건축사 534

KIRA 2013 10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1966년 창간

칼　　럼　편집인 칼럼
에 세 이　건축과 시간
　　브라이언트 파크의 교훈
특　　집　'2013 건축의 날' 기념행사

KOREAN ARCHITECTS

beyond the best

금호석유화학

지키는 것이 **기술**이다

흑연으로 가장 쾌적한 온도를 지키는
신개념 비드법 2종 단열재 **에너포르**

흑연 테크놀로지 | 에너포르는 열을 흡수하고 보존하는 흑연을 첨가한 첨단소재로 기존 단열재에 비해 20% 이상 높은 단열성능을 발휘합니다

슬림 이노베이션 | 뛰어난 단열성능 덕분에 기존 단열재보다 얇게 시공할 수 있어 공간은 더 넓게, 에너지 효율은 더 높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웰빙 신소재 | 내부 구조가 기존 단열재보다 훨씬 미세한 기포구조로 되어있어 습기, 세균, 곰팡이로부터 더욱 안전한 친환경 웰빙 소재입니다

블랙EPS 에너포르 단면

건축법상 [가] 등급 단열재

에너포르는 기존 발포폴리스티렌에 흑연을 첨가, 결정구조상 복사열 흡수기능이 적용되어
동일비중의 기존 단열재에 비해 열전도율이 최대 약 10~20%까지 향상된 신기술 제품입니다

에너포르

www.kkpc.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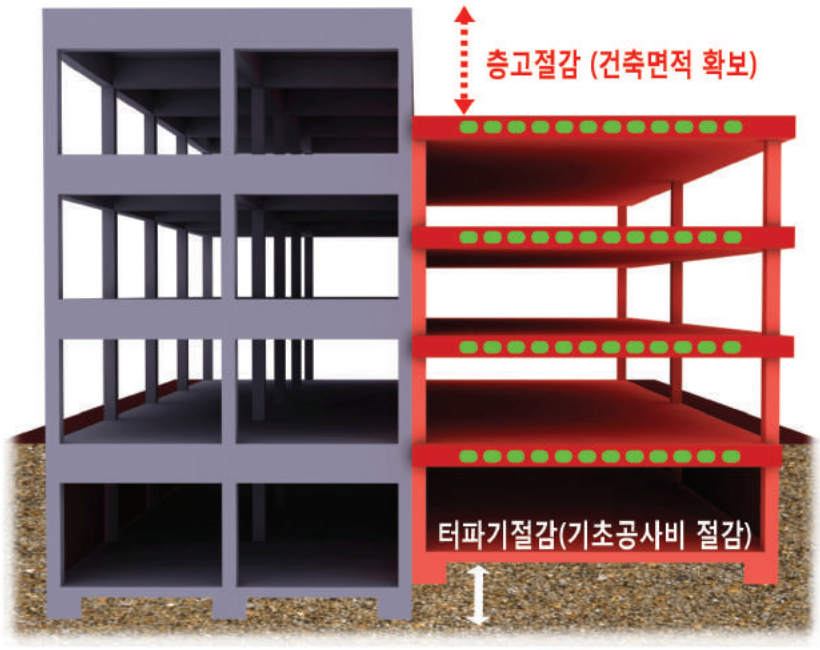
저탄소 녹색성장 공법

건축주의 고민 공사비 절감 !

SLAF® 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 공사비 절감 / 최소 15% 이상
- 공사기간 단축 / 최소 10% 이상
- 가용 공간 증대 / 기둥 수량 10% 감소
- 소음 • 진동 • 보온 • 단열 • 내진 성능 우수
- 구조용역비 SAVE / 초기 구조 디자인 지원
- 완벽한 시공을 위한 현장시공 기술자문 책임수행

건설 V.E. 공법의 NEW 패러다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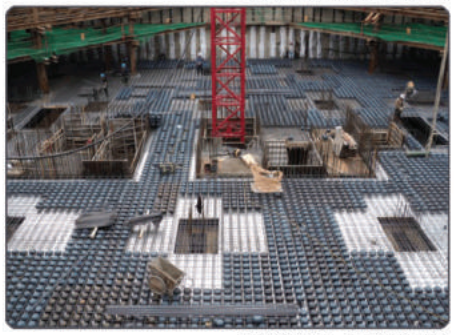
[기존 건물] [SLAF 건물]

Super Light-weight Air-balled Flat plate System

SLAF 공법과 동일한 김포공항청사의 벌집구조

SLAF 공법 적용 후 전경 사진 (무량판 구조 : NO BE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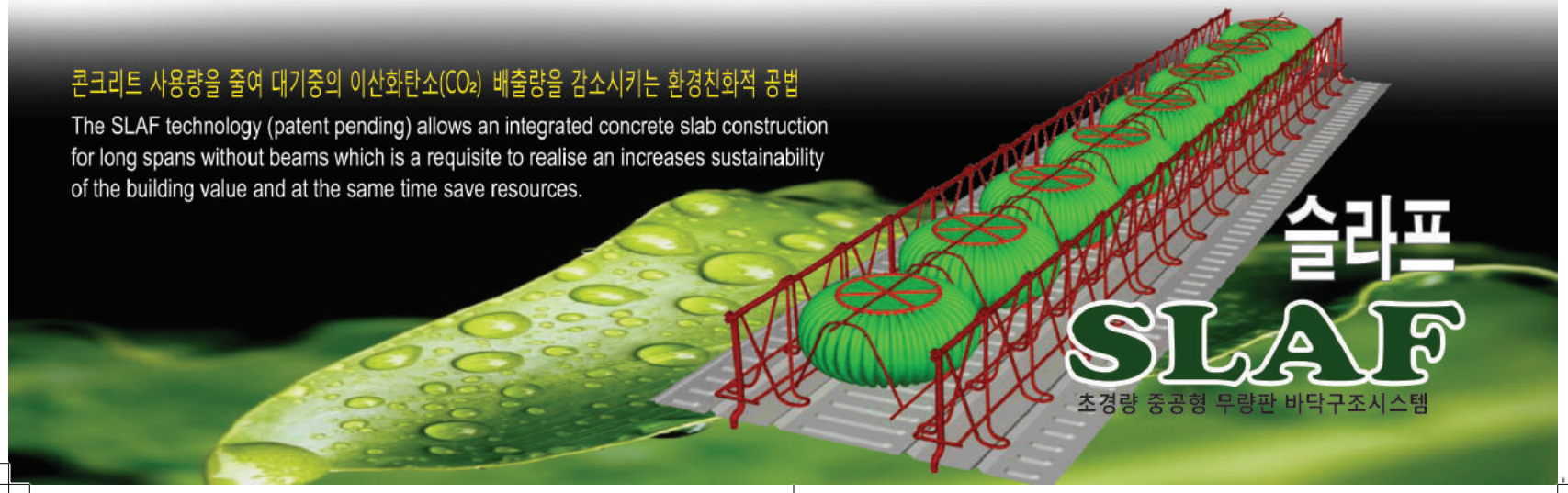
지상층 SLAF 시공 현장사진



지하층 SLAF 시공 현장사진

(주)신화엔지니어링 SHINHWA ENGINEERING CO., LTD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8-20 삼광빌딩 2층 T. 02.3481.3885 M. 010.3745.3885
http://www.sh911.co.kr 건축구조기술사/공학박사/대표이사 조상규

(주)신화엔지니어링은 40년 전통의 구조설계능력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여 구조계산서, 구조도면작성(세움터 인증 포함)을 완벽하게 수행하여 드립니다.



미니로타리식 주차장치의

絶·對·强·者 창공 스카이파크

연속시장점유율 1위　누적설치실적 1위

www.juchagi.com

전국 1544-3335

PL법 영업배상 책임보험 8억 창공주차산업

창공 미니로타리식 입체주차장치 스카이파크

New Trend-Successful Business Power!

구동모터 2개로 보다 강력하고 안정적인 구동력을 갖춤

적용 : **중형급 16대형 / 대형급(RV 수용형) 12대형**

대형(RV급 수용형) 주차기 판매실시

2010년 신개발품! **수용대수 : 5대형~12대형**

일반형, 턴테이블 내장형까지

16대 수용형 및 대형(RV급 수용형)까지

절찬리 판매중!

아주 특별한 주차기 회사

주식회사 창공주차산업

CHANG GONG PARKING INDUSTRY CO.,LTD.

■ 서울사무소 : 서울시 은평구 증산로3길 8, 다동　TEL : 02)333-4448

■ 공장 : 경북 칠곡군 지천면 칠곡대로 2172번지　TEL : 054)973-1900

■ E-mail : sky23487@hanmail.net　■ FAX : 054)973-0067

Technology for tomorrow

동양실리콘주식회사와 만나면, 생각이 현실이 됩니다.

동양실리콘주식회사와 함께하는 생활공간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합니다!

동양실리콘주식회사는 고객의 변함없는 신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친환경 건축용 산업용 실리콘의 대표 브랜드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수준의 기술개발과 지속적인 고객서비스 및 품질관리로
세계 1등 품질의 건축용 산업용 실리콘을 생산 공급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양실리콘주식회사와 함께 하십시요.

KG 東洋실리콘株式會社

ISO 9001/14001 인증업체

http//WWW.dysilicone.com 대표전화 : 02)350-0000 FAX : 02)303-4777

대한건축사협회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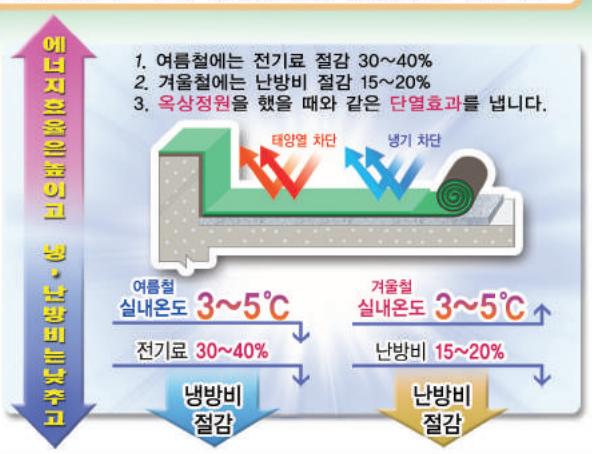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 가는

2중단열 방수 | 천정 결로방지 | 절연방식 시공 | 내구성 탁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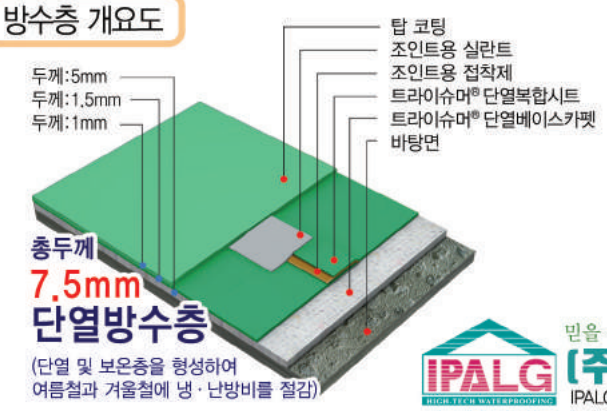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트라이슈머®의 에너지효율 및 내열성능 시험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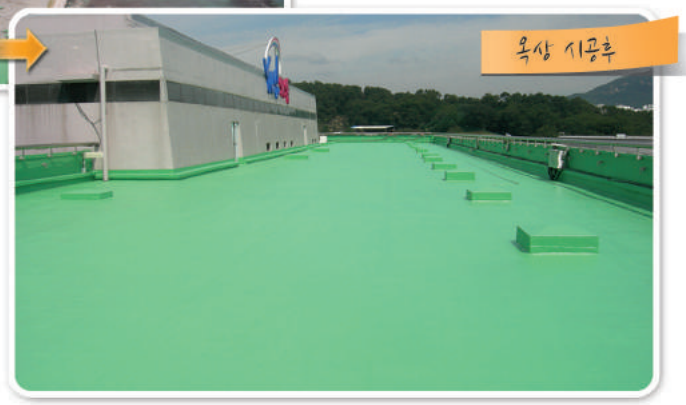
내열성능 시험결과		
시료명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개량형 아스팔트시트
열에 의해 변형이 된 길이 (200mm 기준)	0.1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5 개량형 아스팔트시트 흘러내림길이(mm)
결과 이미지	변형이 거의 없고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시트에 주름이 발생하거나 파단됩니다.
시험방법	가로와 세로길이가 각각 200mm가 되는 시편을 80도에 일정시간이 지난 후 열변화에 따른 길이변화와 겉모양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시험기준	KS F4917: 2007	
시험기관	한국 건자재시험 연구원	

방수층 개요도



시공사례모음

옥상 시공전


옥상 시공후

수영장 시공전

수영장 시공중

수영장 시공후

믿을 수 있는 제품과 공법 • 신뢰받는 회사 –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IPALG TOTAL & HIGH-TECH WATERPROOFING CO., LTD.

스마트폰으로 QRcode를 스캔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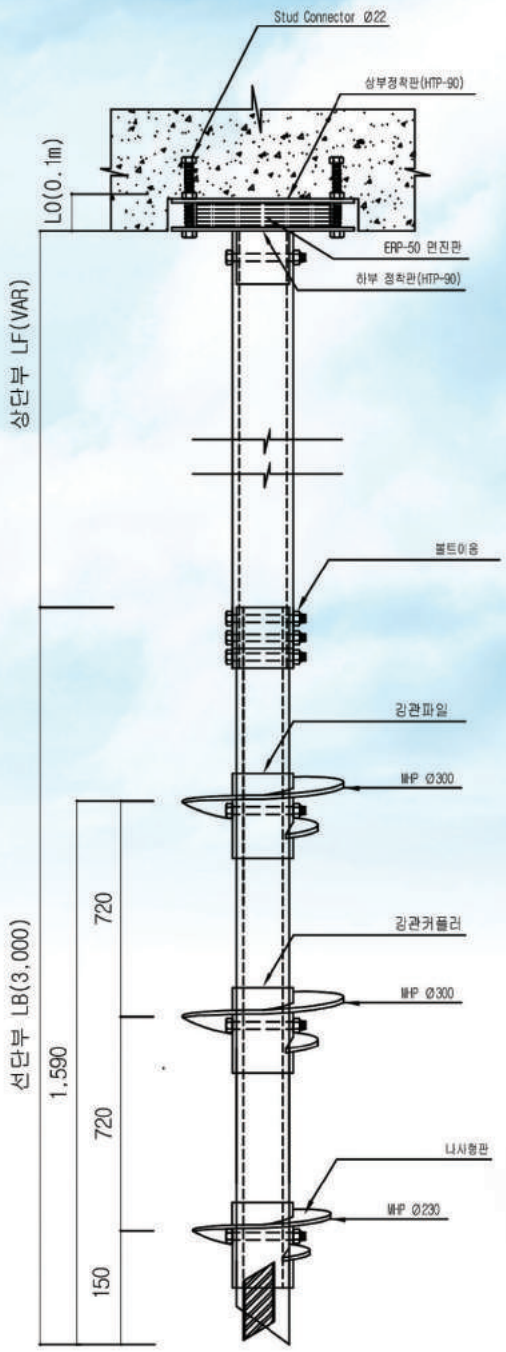
www.ipalg.co.kr
이파엘지.kr

본 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327번길 52 Tel : 032) 471-6020 FAX : 032) 467-1904

METRO T&C
METRO TOTAL CONSTRUCTION

나선형강관파일

www.metrotnc.co.kr



▶ 공법의 개요

나선형강관파일(MHP공법)은 건축물의 기초공사에 사용되는 파일기초로서 고강도 특수강관 하부에 나선형판을 장착하여, 특수장비로 회전시켜 설계깊이까지 박은 후 파일주변을 그라우팅하는 형식으로 연약지반에서 지지력을 높일 수 있는 기초파일공법이다.
그리고 내진성능이 요구되는 건축물에는 나선형강관파일 기초상부에 면진장치를 장착하여 건축물의 지진 대응력을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다.

▶ 공법의 특징

1. 내진성능
기초 상부에 면진장치가 부착되어 내진성능이 우수하다.

2. 안정성
나선형강관파일을 회전 관입하고 2차로 기초파일 주변을 그라우팅하여 마찰 지지력이 높게 형성된다.

3. 공기단축
특수장비를 사용하여 시공이 간편하고 공사기간이 단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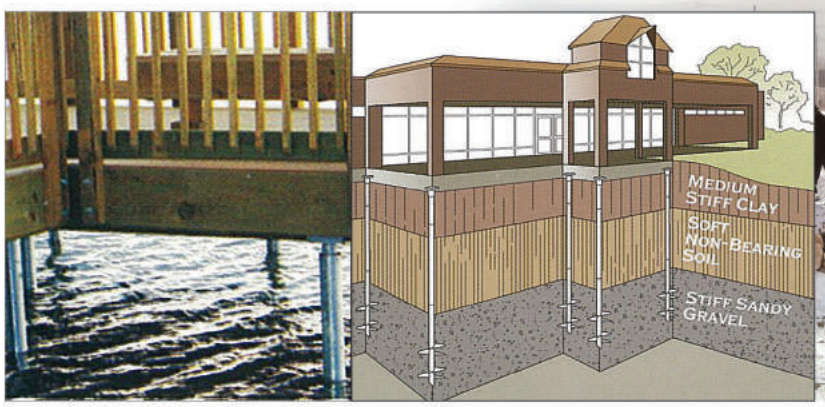
4. 친환경적
무소음, 무진동으로 비토가 발생하지 않아 친환경적이다.

5. 시공성
수중 및 경사지에서 다양한 각도로 파일시공이 가능하다.

6. 경제성
공장제작으로 시공이 간편하여 공사비가 경제적이다.

▶ 공법의 적용

1. 건물신축 기초파일
2. 공장 및 플랜트시설 기초파일
3. 해양구조물 기초파일
4. 기울어진 건물 복원 기초보강
5. 옹벽, 흙막이 구조물 앵커파일



메트로 T&C
건축물 내진구조보강 벤처기업

건축물내진보강 벤처기업 www.metrotnc.co.kr E-mail : metrotnc@naver.com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52 가드파이브웍스동 A-610호 TEL : 02)402-9395 FAX : 02)402-9396

www.sypanel.com

설계부터 시공까지 원스톱 서비스!

조립식 패널 전문 설계팀의 전방위적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획일화된 디자인에서 벗어난 신개념 메탈패널

CUBE METAL

큐브 메탈패널은 서로 다른특징을 가진 4종의 타입이 기능적인 조인트 설계로 상호 조합되어 건물의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표현이 가능합니다.

- 줄눈디자인
  다양한 너비와 깊이
  독특한 경사형 디자인
  자유로운 세로줄눈 간격

- 기능성
  타입별, 두께별 상호결합
  다양한 단열재
  누수방지 결합구조

- PIR
- GLASSWOOL
- ROCKWO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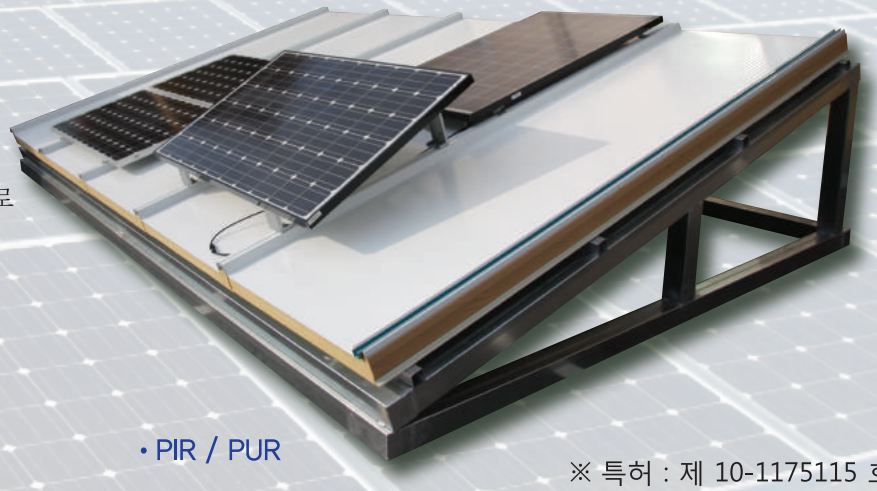
※ 특허 : 제 10-2011-0139926 호

신재생 에너지 : 태양광 발전용 패널

SOLAR Roof

솔라루프는 태양광 발전 모듈을 패널에 바로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개발되어 부자재가 필요 없는 지붕일체형 태양광 발전용 패널입니다.

- 누수방지
  볼트리스타입으로 모세관현상 방지 및 깔끔한 외관
- 시공성
  기존 태양광 모듈 설치의 중복공사 감소로 인한 자재비 절감효과
- 경제성
  뛰어난 단열 및 전력생산의 경제적 효과
- 확장성
  일반지붕형 외에 경사형, 외벽형의 다양한 설치 시스템



- PIR / PUR

※ 특허 : 제 10-1175115 호

에스와이패널(주)

설계영업부(기술지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46-13 효제빌딩 202호
TEL. 02) 501-8480 / FAX. 070-7500-0775
본 사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 1121-4 리치타워 7층 Tel. 031) 222-4028~9 / Fax. 031) 221-5458

brother
at your side

편견을 버리면 새로워집니다.

변화의 새로움을 브라더가 시작합니다. 전혀 새로운 형태의 가로 출력시스템으로
더욱 빠르고 향상된 품질의 프린팅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최대 20/18ipm (흑백/컬러)의 초고속 인쇄
- 초대용량 잉크카트리지로 유지비 절감
- 클라우드서비스 지원
- 유무선 네트워크
- 자동양면인쇄
- 3.7" 슬라이드 터치 LCD 디스플레이

MFC-J2510 InkBenefit

인쇄 속도	고 속 모 드: 최대 흑백 35ppm, 컬러 27ppm 레이저대비: 최대 흑백 20ipm, 컬러 18ipm
복사 속도	흑백 12ipm, 컬러 9ipm
팩스 모뎀 속도	33.6kbps
스캔 해상도	최대 2,400 x 2,400dpi(광학), 19,200x19,200dpi(확장)

MFC-J2510 InkBenefit

디자인 어워드 2013 금상 수상기념!

1+5FREE

브라더 가로출력 복합기 1대 사면
산돌팬시폰트 5개가 무료!

9,900원 잉크 LC565 CMY 1,200매

13,200원 잉크 LC567 K 1,200매

MFC-J2510 InkBenefit 정품잉크 EVENT

MFC-J2510 InkBenefit + 정품잉크 + 산돌 유료 서체 이용권 + 무상A/S 1년 추가 연장

산돌 서체 EVENT

산돌서체 6개월 무료

산돌서체 3개월 무료
(첫번째 구매)

산돌서체 3개월 추가(무료)
(두번째 구매)

총 1년 산돌서체 이용권
(6개월 + 3개월 + 3개월)

무상 A/S 추가 EVENT

A/S추가 1년
(4개월 + 4개월 + 4개월)

무상 A/S 4개월 추가
(다섯번째 구매)

무상 A/S 4개월 추가
(네번째 구매)

무상 A/S 4개월 추가
(세번째 구매)

자세한 사항은 브라더 홈페이지 **www.brother-korea.com** 접속하시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1577-3340

www.wilmat.kr

건축물 유지보수의 새로운 솔루션
고품격 신개념 출입구 시스템매팅
윌매트

Wilmat
Enterance Matting System

윌매트(Wilmat) 매립형 신개념 출입구 매트로써 외부의 오염물들이 건물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며, 건물특성에 맞게 제작하여 설치할 수 있는 고품격 출입구 매트 시스템.
윌매트는 국내생산제품이며 어떤 현장이라도 고객이 요청하시는 규격대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건축물 유지보수의 새로운 솔루션!
윌매트가 바로 정답입니다.

귀하가 요청하시는 현장에 맞게 주문제작 가능한 매립형 시스템출입구매트. 유럽형 신개념 출입구매트의 기능성과 다양한 디자인으로 건물의 품격을 높여드립니다.
윌매트의 가치는 눈으로만 느끼기에도 충분합니다.
최적의 솔루션으로 귀하의 자산을 소중하게 지켜드립니다.

김해공항 국내선

인천공항

ECOSYS (주)에코시스/윌매트 |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544-2 Tel : 02-786-7115 Fax : 02-784-2011

2013 대한민국건축문화행사

국제행사 (Int'l Event)

일본건축가협회(JIA) 전국대회
- 일자 : 9월 6일
- 장소 : 일본 삿포로 북해도

제16차 한중일건축사협의회
- 기간 : 9월 11일 ~ 14일
- 장소 : 중국 하이난 하이커우시

제34차 아카시아 이사회 및 제17차 포럼
- 기간 : 10월 6일 ~ 11일
- 장소 : 네팔 카트만두

제56차 일본건축사회연합회(JFABEA) 전국대회
- 일자 : 10월 19일
- 장소 : 일본 마쓰에시 시마네현

제122차 UIA Council Meeting
- 기간 : 10월 20일 ~ 23일
- 장소 : 중국 베이징

UIA 건축실무회의(PPC)
- 기간 : 12월 11일 ~12일
- 장소 : 레바논 베이루트

100 Architects of the Year 2012 중국 상하이 특별전시
- 기간 : 9월 9일 ~ 28일(개막식 9월 10일 오후 6시)
- 장소 : 중국 상하이, 대한민국주상하이문화원
- 주최 : UIA, 한국건축가협회
- 주관 : 한국건축가협회 국제협력위원회, 주상하이 한국문화원

9월 (September)

제9회 건축의 날
- 일시 : 9월 26일 14시
- 장소 :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
- 주최 : 건축3단체(사협회, 가협회, 학회)
- 주관 : 대한건축사협회

10월 (October)

2013 충청북도건축문화제
- 기간 : 10월1일~11월7일(개막식 10월 31일)
- 장소 : 국립청주박물관
- 주최 : 충북건축3단체(사협회, 가협회, 학회)
- 주관 : 충청북도건축문화제추진위원회

2013 충남건축 · 공공디자인문화제
- 기간 : 10월 2일 ~ 6일
- 장소 : 공주시 고마센터
- 주최 : 충남건축사회, 충남공공디자인협회
- 주관 : 충남건축 · 공공디자인문화제추진위원회

2013 제주건축문화제
- 기간 : 10월 10일 ~ 13일
- 장소 : 제주도립미술관
- 주최 : 제주건축3단체(사협회, 가협회, 학회)
- 주관 : 한국건축가협회 제주건축가회

제5회 대전건축문화제
- 기간 : 10월 18일 ~ 21일
- 장소 : 대전광역시청
- 주최 : 대전광역시, 도시건축연구원
- 주관 : 대전건축사회

대구건축인체육대회
- 일시 : 10월 19일 10시
- 장소 : 신천하수종말처리장내유소년축구장
- 주최 : 대구건축3단체(사협회, 가협회, 학회)
- 주관 : 대구건축사회

2013 서울건축문화제
- 기간 : 10월 21일 ~ 27일
- 장소 : 서울시청, 서울광장
- 주최 : 서울특별시
- 주관 : 한국건축가협회

2013 부산국제건축문화제
- 기간 : 10월 22일 ~ 27일
- 장소 : 월석아트홀, 부산디자인센터, 영화의전당, 부산시청 등
- 주최 : 부산광역시, (사)부산건축문화제 조직위원회
- 주관 : 부산울산건축3단체(사협회, 가협회, 학회), (사)부산건축문화제 조직위원회, 한국실내건축가협회 부산울산경남지회

2013 한국건축문화대상
- 기간 : 10월 15일 14시 (전시 : 10월 15일 ~ 17일, 건설회관 2층)
- 장소 : 건설회관 2층 대강당
- 주최 : 국토교통부, 대한건축사협회, (주)서울경제신문
- 주관 : 대한건축사협회

10월 (October)

2013 대한민국 신인건축사 대상 시상식
- 기간 : 10월 23일
- 장소 : 코엑스
- 주최 : 국토교통부
- 주관 : 대한건축사협회

2013 한국건축산업대전
- 기간 : 10월 23일 ~ 26일
- 장소 : 코엑스 1층 A홀
- 주최/주관 : 대한건축사협회

제16회 울산광역시건축대전 및 회원전
- 기간 : 10월 23일 ~ 29일
- 장소 : 울산문화예술회관
- 주최 : 울산건축사회, 한국건축가협회 울산건축가회
- 주관 : 한국건축가협회 울산건축가회

2013 건축공감한마음 체육대회
- 일시 : 10월 25일 09시
- 장소 :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 주최/주관 : 서울건축사회

2013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 일시 : 10월 25일 09시
- 장소 : 남서울대학교
- 주최 : 대한건축학회
- 주관 : 대한건축학회 대전 · 세종 · 충남지회

2013 경상북도건축대전
- 기간 : 10월 25일 ~ 28일
- 장소 : 안동시문화예술의전당
- 주최 : 경상북도, 안동시
- 주관 : 경북건축사회

2013 경상남도건축문화제
- 기간 : 10월 30일 ~ 11월 2일
- 장소 : 김해문화의전당
- 주최 : 경상남도, (사)경남건축문화연합
- 주관 : (사)경남건축문화연합, 경남건축사회

제5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 기간 : 10월 31일 ~ 11월 5일
- 장소 : 이화여자대학교 ECC내 아트하우스 모모
- 주최/주관 : 대한건축사협회

11월 (November)

제14회 전라북도건축문화제
- 기간 : 11월 4일 ~ 9일
- 장소 : 전라북도 청사내
- 주최 : 전라북도
- 주관 : 전북3단체(사협회, 가협회, 학회)

2013 대한건축학회 합창단(아키콰이어) 정기발표회
- 기간 : 11월 8일 19시 30분
- 장소 : 장천아트홀
- 주최/주관 : 대한건축학회

2013 인천건축문화제
- 기간 : 11월 8일 ~ 13일
-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 주최 : 인천광역시, 인천건축사회, 경인일보
- 주관 : 인천건축문화제조직위원회

2013 대한민국건축문화제
- 기간 : 11월 11일 ~ 17일
- 장소 : 대한민국예술인센터 전시장(목동)

- 제32회 대한민국건축대전
  - 주최/주관 : 한국건축가협회
- 2013 올해의 건축가 100인 국제전
  - 주최/주관 : 한국건축가협회
- 제8회 대한민국공간문화대상
  -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 주관 : 한국건축가협회

제10회 광주건축 · 도시문화제
- 기간 : 11월 21일 ~ 24일
- 장소 : 김대중컨벤션센터
- 주최 : 광주광역시
- 주관 : (사)광주건축단체연합

제1회 경기건축문화제
- 기간 : 11월 21일 ~ 23일
- 장소 : 경기인재개발원
- 주최 : 경기도, 경기건축문화제추진위원회
- 주관 : 경기도건축사회, 경기도시공사, 한국건축가협회 경기건축가회

FIKA 한국건축단체연합 Federation of Institutes of Korean Architects | 대한건축사협회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 사단법인 한국건축가협회 KOREAN INSTITUTE OF ARCHITECTS |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21세기
첨단 시스템 도어
JUNGWOO safedoor

ISO 9001/2000 인증제품

JUNGWOO safedoor

특허 신제품

정우 스텐레스 단열바 프레임

정우 스텐레스 단열 세이프(강화)도어/정우 세이프(강화)도어

견고한 제작, 완벽한 밀폐에 의한 방음, 방풍, 냉, 난방비 대폭 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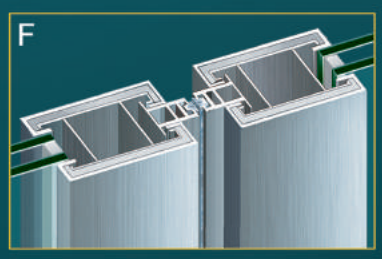
(주) 정우산업만의 노·하우로 제작되는
전 제품은 보이지 않는 곳 까지 정성을 다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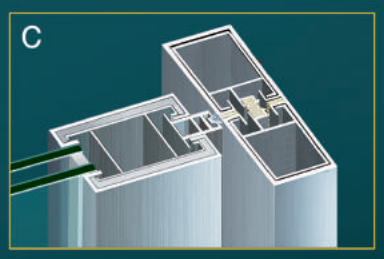
스텐레스 단열바 프레임의 장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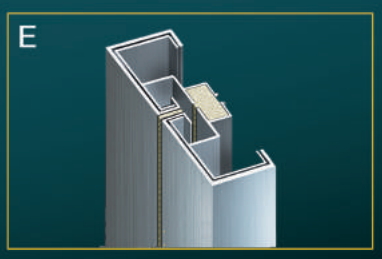
- 아존을 충전하여 내, 외부의 온도를 차단하여 줍니다.
- 완벽한 밀폐에 의한 방음, 방풍으로 냉, 난방비를 대폭 절감해 줍니다.
- 스텐레스 내부 보강재는 알미늄으로 되어 있어 연결부 틈새에 결로 또는 부식에 의한 녹물 흐름이 없습니다.

색상선택이 자유롭 습니다.
- 스텐 - 골드 - 브론즈 - 헤어라인 - 밀러 - 갈바 불소코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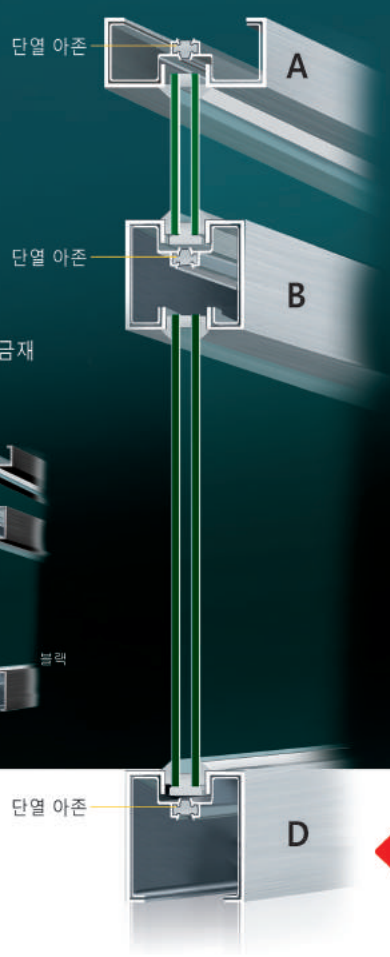
단면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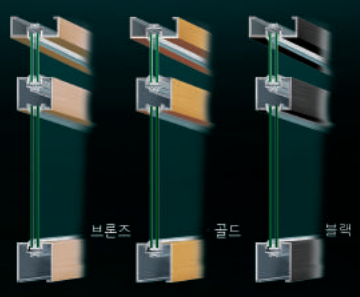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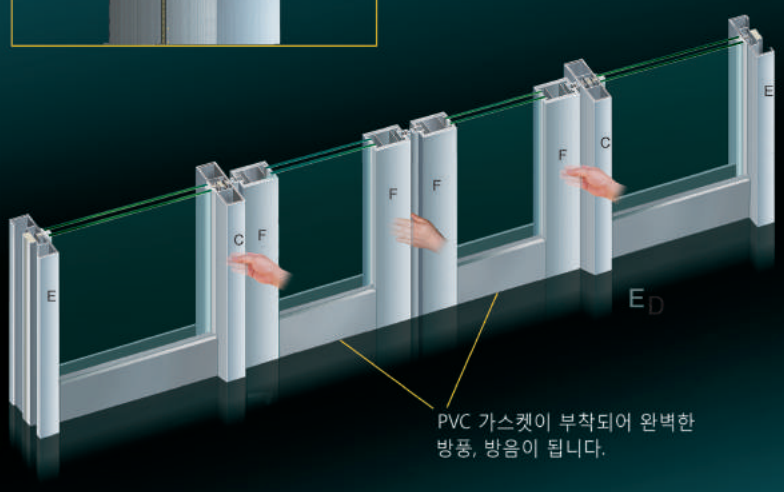
단면 상세도



재질/한국산업규격

- K.S D 6759, 6063, 알미늄 합금재
- K.S D 3098 스텐레스
- K.S L 2002 강화유리





PVC 가스켓이 부착되어 완벽한
방풍, 방음이 됩니다.

▶ 가격표 :
월간 물가 자료집 586p 참조
(2011년 10월 부터)

어린이「손」안전과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는 기업

(주) 정 우 산 업

www.safedoor.co.kr

본 사 :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430-8
TEL : (053)325-9800/325-9801~2
FAX : (053)325-9802
E-mail:jungwoo9800@hanmail.net

• 전국 영업망 구축 •

모두가 행복한 행복주택

사회초년생 주거해결

지역소통 및 교류공간

육아센터, 어린이놀이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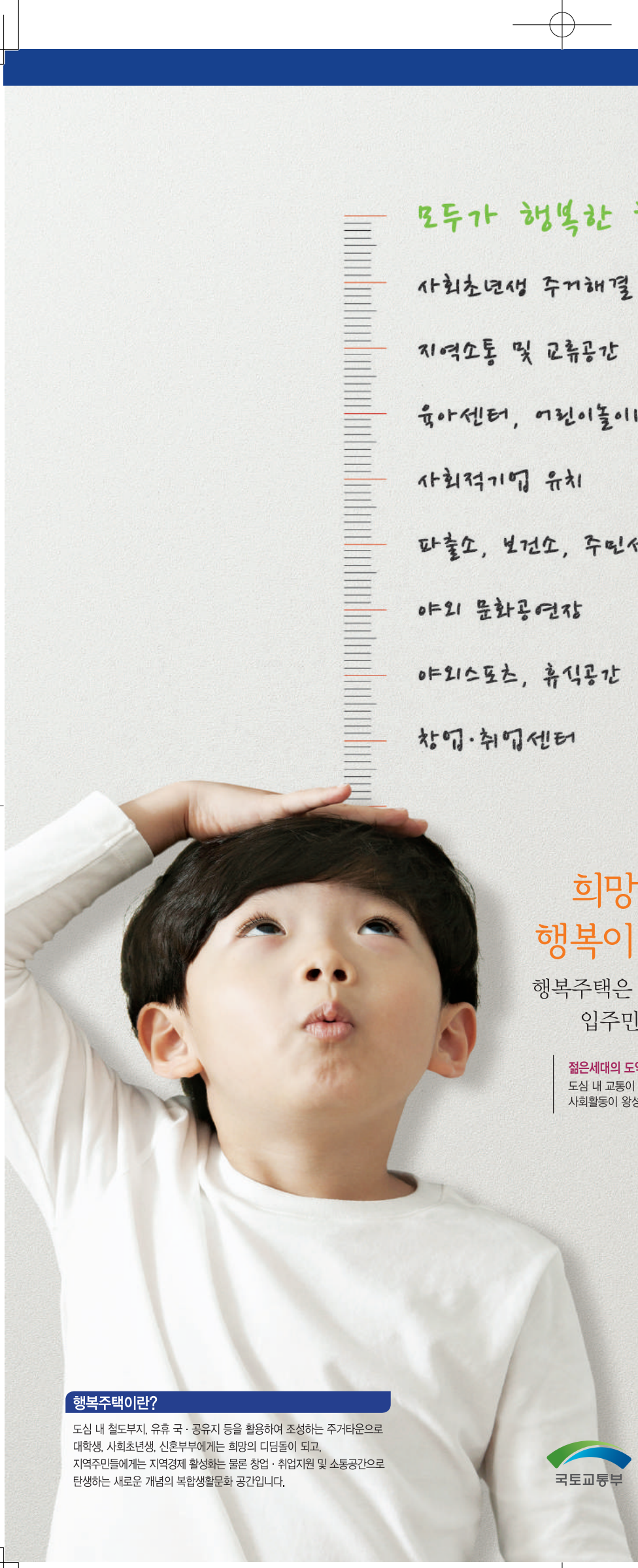
사회적기업 유치

파출소, 보건소, 주민센터

야외 문화공연장

야외스포츠, 휴식공간

창업·취업센터



희망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행복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일자리창출, 문화공연,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입주민과 지역주민 모두가 행복한 공간입니다

젊은세대의 도약을 위한 디딤돌
도심 내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입지,
사회활동이 왕성한 젊은 세대에게 우선 공급

젊고 활력 넘치는 복합문화타운
상업 · 문화시설 복합개발, 문화프로그램 도입
사회적기업 유치로 고용창출, 창업 · 취업 지원

행복이 활짝~ 행복주택

행복주택이란?

도심 내 철도부지, 유휴 국 · 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조성하는 주거타운으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는 희망의 디딤돌이 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창업 · 취업지원 및 소통공간으로
탄생하는 새로운 개념의 복합생활문화 공간입니다.

국토교통부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KORAIL | KR 한국철도시설공단

EURO-ZINC PANEL

다양한 외관창출과 징크패널의 업그레이드 제품 신소재 준 불연 단열재 시스템패널

기존 패널의 단조로운 색상과 형상에서 벗어난 샌드위치패널의 최종 집대성 된 패널입니다.
준 불연 단열재를 사용하여 현존하는 샌드위치 패널의 장점만을 극대화한 21세기형 최첨단 친환경 패널입니다.
지붕과 벽을 혼용할 수 있는 파형으로 다양한 디자인으로 연출할 수 있습니다.

FREE-METAL PANEL

서진공영의 프리메탈패널은 준 불연재이며 고품격 디자인을 바탕으로 비용절감과 코너마감을 더욱 업그레이드 시켰으며
시공상의 우수성과 강도로, 반영구적인 제품으로, 여러가지 장점과 특징으로, 서진공영만의 프리메탈패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조립식 건축문화의 신창조자
서진공영주식회사

본사 :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203-1번지
공장 :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32-1번지
TEL. 032-563-0020 FAX. 032-563-8813
www.i-seojin.co.kr / www.i-seojin.kr

건축과 시간

Architecture and Time

유현준 | Yoo, Hyunjoon
홍익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우리나라의 아파트단지는 건축사적인 관점에서 독일의 1920년대 힐버자이머의 아이디어를 도시에 적용시킨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아마도 전 세계에 이처럼 많은 근대적 아파트를 적용한 사례는 없을 것이다. 국민의 50% 이상이 아파트에 산다. 예전에 필자가 유치원생 때 처음으로 여의도에 지어진 아파트에 갔을 때가 생각난다. 아버지 친구 분 댁에 놀러갔을 때가 한겨울이었는데, 강북의 주택에 살던 필자는 평소처럼 두꺼운 스웨터와 내복을 입고 있었다. 필자는 그때 두 번 놀랬다. 하나는 집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점. 내복까지 껴입는 필자는 더운 집에서 땀을 뻘뻘 흘렸던 기억이 난다. 둘째로 수도꼭지만 틀면 펑펑 나오는 온수. 이 같은 놀라운 경험은 아마도 온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을 것이다. 70년대 초반 당시만 하더라도 샤워는 생각도 못했고, 목욕을 하려면 물을 데워서 통에 받아놓고 하든지 아니면 동네 공중목욕탕에 가야했었다. 그러던 한국인의 일상에 1년 365일 나오는 온수와 춥지 않은 겨울을 날 수 있는 아파트는 풍요로운 삶의 상징이 되었다. 아마도 이후 30년간 한국인의 삶의 목표는 강남의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오너드라이브가 되는 것이었을 것이다. 지난 30년간 최고의 히트상품은 아파트였다. 마치 아이폰을 가지면 자신이 스마트해지는 듯한 착각을 하듯이 아파트에 살면 행복해질 것이라 믿었던 시절이다.

그렇게 중산층의 삶의 표본이 되었던 70~8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가 지금은 바뀌어서 혐오의 대상이 된 듯하다. 어쩌면 우리 국민은 과거의 것들은 모두 없애야할 대상으로 여기는 듯하기도 하다. 새마을 운동을 하던 시절에는 과거의 유산인 초가집이 철거되어야 할 대상이었다. 초가집은 없어져야했고, 슬레이트 지붕으로 지어진 집을 공급하는 것이 농촌 새마을 운동의 골자였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벽돌로 속칭 집장사들이 지어대는 양옥집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40년이 지나서 우리는 다시금 불과 한세대 전에 지은 강남의 강변아파트들과 강북의 달동네 양옥집을 철거하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처럼 보인다.

우리의 도시는 유럽의 유서 깊은 오래된 도시에 비해서 건축적으로 아름답지 못하다. 이점은 인정하고 넘어가자. 단순하게 우리의 도시에 건축을 구경하러 오는 외국관광객이 없다는 점을 보면 증명이 된다. 여러 가지로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오래된 건축이 없어서라고 말하고 싶다. 건축은 사람의 수명보다 오랫동안 지속된다. 오랜 시간 견뎌오면서 건축은 사람의 삶을 담아내고, 사람의 냄새가 베어나는 '환경'이 되는 법이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나라에는 한국전쟁 이후에 새롭게 지어진 젊은 건축물들만 있을 뿐이다. 절대적 시간이 부족하니 시간이 만들어내는 유서 깊은 도시가 없는 것이다. 5천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치고는 너무나 오래된 건축이 없다.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농업중심의 국가이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공업과 상업이 근간을 이루어야 만들어지는 도시의 역사 역시 짧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오랜 시간의 켜가 느껴지는 건축과 도시를 만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러한 사람냄새 나는 도시를 만들 수 있을까? 가장 간단한 방법은 '보존'일 것이다. 그 보존이라는 것이 이조백자 보존하듯이 아무것도 안하면서 그냥 두자는 보존이 아니다. 개선하고 발전시킬 것은 하되 처음부터 완전히 다시 그리는 그림은 좀 자제하자는 것이다.

필자가 유치원 사생대회에 나갔을 때의 경험이 생각난다. 그림을 그리다가 망쳐서 맘에 들지 않으면 울면서 망친 그림을 버리고 새 도화지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었다. 원하는 그림은

홍익대학교 건축대학 부교수 및 (주)유현준건축사사무소 소장. 미국 건축사(AIA). 연세대학교, MIT, 하버드에서 건축공부를 하였다. 하버드를 우등으로 졸업 후, Richard Meier 뉴욕사무소에서 실무 하였다. MIT 교환교수와 홍익대학교 건축대학 학과장을 역임했다.
'김수근 건축상 프리뷰상'과 '건축가협회 베스트7상', '젊은건축가상', '한국현대건축 아시아전' 초청작가를 수상을 비롯하여 5번의 국제현상설계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의 작품 Floating House는 CNN에서 선정한 Seoul's Architectural Wonders의 15개 작품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때때로 시간은 사춘기의 가슴 아픈 실연의 기억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만들어준다.
건축도 그렇다. 시간이 지나면 어려서의 실수도 아름답게 채색되는 법이다.
우리가 지난 삼십년간 열심히 지어대었던 아파트도
열심히 했던 첫사랑과 비슷할지도 모른다.

있는데 그것이 내 도화지에 그려지지 않는다고 계속 다시 시작했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재개발의 모습은 마치 울면서 새 도화지를 달라고 떼쓰는 어린아이의 모습 같다. 몇 십 년 동안 유럽의 근대 건축가들이 그려댄 그림을 보고 우리가 미래의 멋진 도시를 만들려면 저들이 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고 믿어왔다. 그리고 열심히 아파트를 지어댔다. 그런데 만들어진 도시가 유럽의 사진 속에 나오는 그림 같은 도시가 아닌 것에 실망했다. 그리고는 지금 와서는 그 건축물들을 부수고 나서 처음부터 다시 재개발해야겠다고 한다. 이는 마치 새로운 도화지를 달라고 떼쓰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부러워하는 산토리니 섬이나 파리의 중층형 집합주거의 형태도 사실 알고 보면 그 당시의 기술력과 경제력으로 지어낸 나름대로의 시대정신의 산물이다. 최근 들어서 고밀도 도시의 대안으로 많이 이야기 되는 바르셀로나의 경우를 보더라도 계획되어진 도시로 8층 정도의 집합주거가 거의 비슷하게 건설되었다. 사실 알고 보면 그 건축물들도 당시에 대량으로 지어진 우리의 '아파트'같은 건물이다. 다만 승강기와 건축구조가 크게 발달하지 못해서 중층정도로 지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런 건축물들이 백년이상의 시간이 지나면 그 시대를 대표하는 도시 형태로 자리를 잡고 관광객들이 가고 싶어 하는 도시가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파리도 수백 년 전 당시에 유행하던 집합주거로 채워진 도시일 뿐이다. 도시라는 것은 그 시대에 최선의 기술과 경제시스템을 반영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독특한 정체성을 가진 도시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가 보기에 끔찍한 판상형 아파트로 가득 찬 강남의 한강변도 100년 200년 지나고 나면 전 세계에서 비행기를 타고 구경하러 올 20세기를 대표하는 도시가 될 수도 있다. 그렇기에 아파트는 철거해야 마땅한 환멸의 대상이 아니라 약간은 인내심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할 보존의 대상일지도 모른다. 실제로 삼십년이 넘은 아파트 단지에 가보면 나무들이 건물을 가릴 만큼 자라서 그렇게 흉측해 보이지도 않는다. 오히려 자연의 힘이 위대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좋은 예처럼 보인다. 건축은 사람이 아니라 시간이 완성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아파트를 짓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아파트를 충분히 많이 지었다. 이제 더는 반복하지 않았으면 한다. 다만 아무리 흉측한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시대를 대표하는 아름다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과거 흉측한 화력발전소도 현재의 멋진 테이트모던 미술관이 되었고, 버려진 기차역이 바뀌어서 파리의 올세이 미술관으로 멋지게 재탄생되었다.

현대 아파트 단지

어린이가 그림을 그리는 모습

때때로 시간은 사춘기의 가슴 아픈 실연의 기억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만들어준다. 건축도 그렇다. 시간이 지나면 어려서의 실수도 아름답게 채색되는 법이다. 우리가 지난 삼십년간 열심히 지어대었던 아파트도 열심히 했던 첫사랑과 비슷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 한 개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역사가 되는 것이다. 필자는 옛날 여자 친구들과 찍은 사진들이 들어있던 앨범을 가지고 있었다. 결혼 후에도 몇 년간 가지고 있다가 이사 때마다 집사람에게 눈치 보이는 것이 싫어서 결혼 후 6년 만에 귀국 이삿짐을 싸면서 옛 여자 친구들이 녹음해준 테이프들과 함께 버렸다. 지금 와서 그 사진들과 테이프들이 있었다면 그 시절을 추억하면서 얼마나 좋을까 후회하곤 한다. 이렇게 오래된 건물을 부숴대기만 한다면 우리의 도시도 훗날 추억거리가 없음에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브라이언트 파크의 교훈

Learning from Bryant Park

김홍기 | Kim, Hong-ki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회장

1920년대 아르데코 건축이 없었다면 뉴욕의 스카이라인이 오늘날처럼 아름다울 수 있었을까. 모름지기 서울처럼 무미건조했을 것이다. 크라이슬러 빌딩,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아스토리아 호텔, 아메리칸 스탠더드 빌딩. 체니 빌딩, 록펠러 빌딩. 고딕성당의 첨탑처럼 위로가면서 체감하는 모습은 도시의 연륜을 그대로 드러낸다. 역사가 짧은 뉴욕의 스카이라인이 6백년 넘은 서울보다 아름다운 이유이다.

유럽의 아르데코가 주로 장식예술 분야에 적용되었다면 뉴욕의 아르데코는 고층건물로 옮아 붙어 조닝법과 만나 화려하게 개화된다. 지구라트처럼 위로 가면서 계단식으로 좁아지는 형태를 보곤 어느 비평가는 당시 뉴욕의 지하 카페와 선술집에서 울려퍼지던 재즈의 지그재그 리듬과도 닮았다 했다. 1924년 레이몬드 후드의 설계로 완공된 아메리칸 스탠더드 빌딩이야말로 이 시기 가장 주목받는 건물의 하나였다. 미국 모더니즘기를 대표하는 여류화가 조지아 오키프는 뉴욕 42번가를 지날 때 마다 아메리칸 스탠더드 빌딩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밤 풍경을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건물 상부에 왕관을 얹어놓은 듯한 황금빛 장식은 환희와 변영의 1920년대를 상징하는 듯 했다.

필자가 그림 속 건물을 보기 위해 뉴욕을 찾은 것은 5년 전이었다. 건물 명칭은 브라이언트 파크 호텔로 바뀌어 있었고, 그 앞에는 축구장보다 조금 작은 장방형 공원이 펼쳐져 있었다. 이곳에서 만난 뉴요커는 센트럴파크보다 이 공원을 좋아한다며 가장 뉴욕다운 공원이라 했다. 공공디자인의 진정한 의미가 담겨있다면서 그 배후를 들려준다.

연간 500여건의 강력 범죄가 발생하던 곳, 홈리스족과 그라피티가 넘쳐났고 밤이면 마약중독자들로 들끓어 일명 바늘공원으로 불렸던 곳으로 1980년 이전만 해도 뉴욕 한복판에 위치한 브라이언트 파크는 우울함이 깃든 공원이었다. 그런데 뉴욕시도 어찌할 바를 모르던 이곳을 20대의 한 청년이 재생시키려는 계획에 착수한다. 주인공은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갓 졸업한 26살 청년 다니엘 비더만(Daniel Biederman)이었다. 버려져 있는 공원을 살리길 결심한 그는 각계에 호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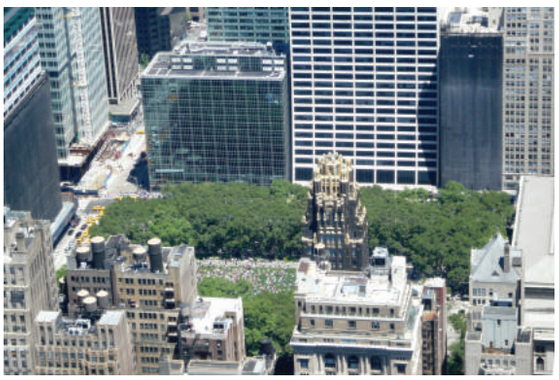
한국 사회 같으면 서른도 안 된 앙팡테리블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록펠러 재단이 기금을 출연하고 인근 뉴욕공립도서관이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실행 모드로 바뀐다. 비더만은 한발 더 나아가 뉴욕 시에 공원관리 운영권을 달라고 했다. 뉴욕시장 에드워드 코치는 진정성이 넘치는 그에게 공원관리 책임과 운영권을 부

홍익대 건축학과를 졸업했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동양미래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회장과 아시아실내디자인학회연맹(AIDIA) 회장을 맡고 있다. 건축과 인접예술과의 관계에 대한 글을 꾸준히 발표해 왔으며 저서로 '그림이 된 건축, 건축이 된 그림' 청소년을 위한 건축학 '로빈슨 크루소가 건축가라고' 등이 있다.

공공성이 강조된 시민참여형 공간이 많아지고
역사성과 지속성이 깃든 건축물이 많아질 때
도시경쟁력은 강화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도 다니엘 비더만 같은
공공의식을 지닌 리더들이 많이 나타나길 기대해 본다.

여했다. 1980년 브라이언트 파크 복원 협회가 결성되었고, 마스터플랜 작업이 이루어져 1990년대 뉴욕을 대표하는 공공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이 공원에는 그저 나무 몇 그루와 잔디만 심겨져 있지 않다.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이 작동한다. 작은 규모의 야외 도서관이 운영되고 피아노 연주가 흘러나온다. 무료 탁구대가 있어 스포츠를 즐기고 동호인들끼리 펜싱을 배우기도 한다. 여름밤이면 영화상영이 이루어지고 패션쇼를 비롯한 다양한 이벤트가 열린다. 그러다보니 범죄율은 뚝 떨어졌고 마약도 사라졌다. 도시의 오아시스가 됐다. 놀라운 점은 공원의 관리 유지 보수비용은 기부금과 민간자본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시가 부담하는 비용은 1센트도 없다고 한다. 공원주변의 건물주들이 이 공원의 운영 관리에 참여한다. 혐오스러웠던 공원이 가장 사랑받는 공원으로 재창조된 배후에 한 청년의 도시에 대한 사랑과 도시를 사랑하는 단체의 동참이 있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뉴욕 브라이언트 파크

요즘 우리사회에도 마을 만들기, 골목길 되살리기 사업이 자자체를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지나간 시대의 건축물 보존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시인 이상이 열었다는 제비다방도 헐리지 않고 옛 흔적을 간직하는데 성공했고, 산업화 시대의 유산인 당인리 발전소도 문화공간으로 변신할 것이라는 소식도 들린다. 건축이 역사를 기록하는 단어이며 도시는 역사를 담는 책이라는 진리를 늦게나마 터득한 듯 싶다.

지난 8월 20일, 서울시는 시대가 변해도 훼손되지 않을 지속 가능한 건축의 기본 원칙을 담은 '서울건축선언'을 발표했다. 1개 전문, 10개 조문으로 구성된 선언에는 서울의 역사, 생태, 민주적 정체성과 세계 도시로서의 가치, 그리고 과거 서울 건축에 대한 반성이 담겨 있었다. 지난 날 경제발전과 양적성장의 프레임에 갇혀 주변과 단절되고 무미건조한 건축물을 짓던 방식을 반성해야 된다는 전제 하에 공공성, 공동성, 안전성, 지속성, 자생력, 역사성, 보편성, 창의성, 협력성, 거버넌스 등 열가지 세부가치와 실천방향이 낭독되었다. 하지만 생각만큼 실천은 어렵다. 온갖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곳이 도시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시민참여형 공간으로 재생된 뉴욕 브라이언트 파크의 교훈을 배울 필요성이 있다.

공공성이 강조된 시민참여형 공간이 많아지고 역사성과 지속성이 깃든 건축물이 많아질 때 도시경쟁력은 강화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도 다니엘 비더만 같은 공공의식을 지닌 리더들이 많이 나타나길 기대해 본다.

건축인의 축제 '2013 건축의 날'기념행사 성료

강성익 동탑산업훈장, 조성원 • 이각표 • 김인철 • 문창호 대통령표창 수상

대한건축사협회가 주관하고 한국건축단체연합(대한건축사협회 • 한국건축가협회 • 대한건축학회)이 주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2013건축의 날'기념행사가 지난 9월 26일 국립중앙박물관 1층 대강당에서 성료됐다.

이번 행사에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정관계인사와 김영수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이광만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서치호 대한건축학회 회장 등 건축단체장 및 건축계 인사, 대학교수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오 명 회장(동부그룹 제조 • 유통부문)의 '30년 후의 코리아를 꿈꿔라'라는 주제의 특별강연을 시작으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념식 치사에서 "오늘날의 경제 강국 대한민국은 바로 건축인 여러분의 피땀 어린 노력이 있었기에 존재할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밝히며 "건축은 창조산업의 큰 축이자 일자리 창출효과가 제조업보다 90%나 크고, 부가가치 창출효과도 40%나 높은 데다 국가 및 도시의 품격을 보여주는 문화적 영향력이 높은 지식서비스산업이다. 앞으로 정부는 국내 건축 산업의 발전과 해외 건축시장의 진출을 위하여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후 열린 시상식에서는 정부 포상 9명, 장관 표창 27명,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표창 8명 등 총 44명이 표창을 받았다.

1

2

3

4

5

1. '30년후의 코리아를 꿈꿔라'란 제목으로 특별강연 중인 오명 회장
2.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을 의전 중인 대한건축사협회 김영수 회장(좌)
3. 건축인선언을 하고 있는 김의중 건축의날집행위원장
4. 개회사중인 김영수 회장
5. 건축의날 기념식장 전경

정부포상에서 동탑산업훈장은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을 지낸 강성익 건축사(㈜한라종합 건축사사무소)가 받았으며, 대통령표창은 조성원 건축사(㈜대우 건축사사무소), 이각표 건축사(㈜엄앤드이 종합건축사사무소), 김인철 건축사(㈜건축사사무소 아르키움), 문창호 교수(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가 수상했다. 국무총리표창에는 김신재 건축사(㈜서강 종합건축사사무소), 황재훈 건축사(㈜자유그룹아바 건축사사무소), 김광현 교수(서울대학교 교수), 김종락 교수(숭실대학교)가 수상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표창은 김용대 건축사(예린이엔디 건축사사무소) 외 8인이,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은 심상봉 건축사(㈜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외 18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은 박순란 건축사(for you 건축사사무소) 외 9인이 수상했다.

한편 중앙박물관 대강당 로비에서는 대한건축사협회 회원들의 우수 건축 작품과 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작 등이 전시됐으며, 대한건축사협회가 주최하는 '제5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의 홍보영상이 상영돼 관심을 끌기도 했다.

올해로 9회를 맞이한 건축의 날은 우리 민족의 역사적 건축물인 경복궁 창건일인 9월 25일을 기념일로 정해 2005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으며, 한국건축단체연합을 구성하고 있는 대한건축사협회 • 한국건축가협회 • 대한건축학회가 돌아가며 개최하고 있다.

6

7

8

9

10

11

12

6. 치사중인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7. 수상자 단체사진(훈장–대통령–국무총리상)
8. 수상자 단체사진(국가건축정책위원장상)
9. 수상자 단체사진(국토부–문체부장관상)
10. 리셉션에서 인사말 중인 김영수 회장
11. 리셉션에서의 건배제의
12. 국립중앙박물관 로비에 설치된 전시장 모습

바 라 움
BARAUM

설계자 | 이기옥_KIRA | 정회원, (주)필립 종합건축사사무소

이기옥은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 서울국제설계학교(MIT-SNU)를 수료하였다. 1999년에 필립건축을 설립해 운영해 오고 있으며,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2009년 대한민국 건축대전 초대작가전 BEST PT상, ARQUITECTUM VERTICAL ZOO 국제공모전 1등상, 2010년 대한민국 토목건축기술대상 우수상, 2011년 한국건축가협회상(올해의 건축 Best 7), 2012년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적스타일 우수공간'으로 선정되었고, 바라움으로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 설계팀 : 박상대, 이서호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SALIM ENG

건축주 | 이강민

감리자 | ㈜필립 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사 | ㈜예지인 종합건설

대지위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1037-11

주요용도 | 다가구주택

대지면적(Site Area) | 441.7㎡

건축면적(Building Area) | 205.98㎡

연면적(Gross Floor Area) | 403.42㎡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46.63%

용적률(Floor Area Ratio) | 91.33%

규모(Building Scope) | 3F

구조 | 철근콘크리트

주요마감재 | 외부 : 노출콘크리트, VM징크패널, thk24 복층유리
내부 : 석고보드 위 실크벽지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11. 08. ~ 2012. 03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2. 05 ~ 2013. 02

Client | Lee, Kang-min

Architect | Lee, Ki-ok

Project team | Sang-dae Park(Project manager) / Seo-ho 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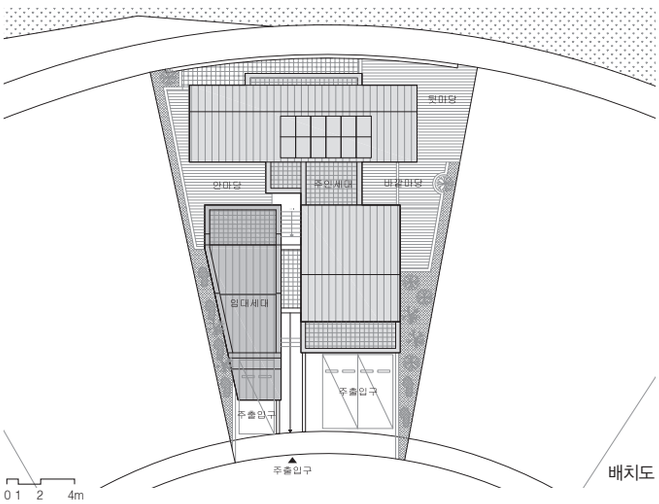
General Contractor | Ye Jiin Construction

Location | 1037-11, Yeongdeok-dong, Giheung-gu, Yongin-si, Gyeonggi-do,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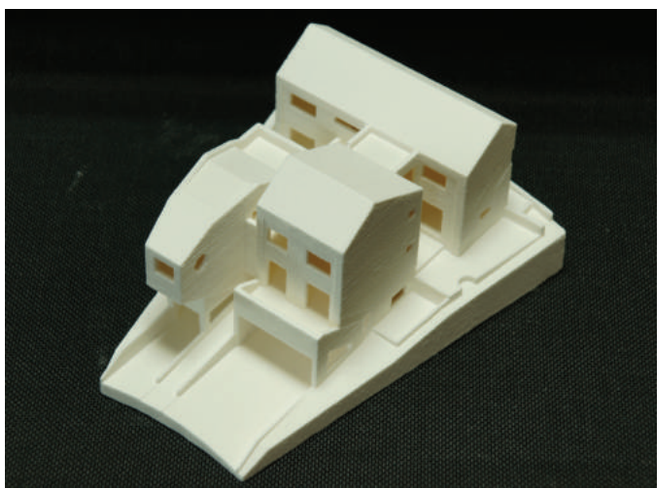
Structure | R.C

Structural Engineer | SALIM ENG

Exterior finishing | Exposed concrete, VM zinc panel, thk24 pair glass



배치도



전경

바라움의 대지는 산을 등지고 아래를 내려다보는 단독주택지의 한 필지이다. 3m 정도 고저차가 있는 이 대지의 중앙에 건물의 프로그램과 구성, 그리고 형태의 이유가 되는 '길'을 만들었다. 건물을 이루는 세 개의 매스는 이 길을 중심에 두고 서로 어우러진다.

대지의 가운데 있는 이 길은, 비유하자면 각각의 매스와 프로그램으로 뻗어나가는 줄기 역할을 한다. 길의 입구 부분은 어두워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곧 빛을 만나게 된다. 입구 위를 덮는 지붕 같은 덩어리는 돌출된 앞쪽 두 매스의 이음매일 뿐, 길은 하늘을 향해 열려있다.

길을 따라 오르다 처음 만나는 것은 왼쪽에 난 문이다. 이것은 전체 대지의 앞쪽 왼편의 첫 번째 매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이다.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온전히 한 채의 집 기능을 하는 이 첫 번째 매스는 임대세대로 계획되었는데, 현재 건축주의 동생 가족이 거주하고 있다. 이 첫 번째 매스는 대지의 앞 쪽 오른편 두 번째 매스와 2층에서 이어질 수 있게 계획하였다.

주인세대는 두 번째 매스와 대지 가장 안쪽의 세 번째 매스의 공간이 결합되면서 구성되는데, 주인세대의 주출입구는 가운데 길 끝 2층 레벨에 있다. 현관문의 열고 들어서면 응접실로 이어진 창과 바깥마당이 시야에 들어온다. 신발을 벗고 툇마루에 올라서면 주방, 식당, 응접실, 할머니 방으로 구성된 공간이 별채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공간은 할아버지 방과 낮은 단으로 연결되어 있다. 3층은 주인침실과 거실로 구성된 공간이 있고, 낮은 단을 오르면 전실, 자녀방, 다락방으로 구성된 자녀공간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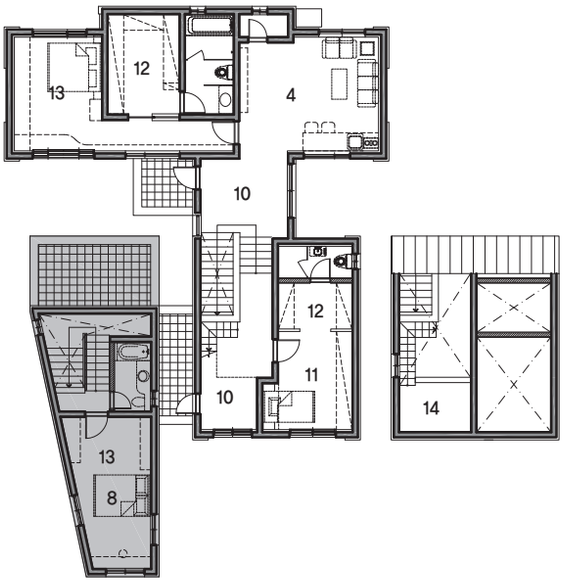
겉으로 드러내는 형태로부터 바라움의 내부공간을 읽어내기는 어렵다. 한 시야에 모든 것이 포착될 수 있게 하기보다 시간적 간격을 둔 공간의 접근을 노렸다. 길을 오르고, 시선을 돌리고, 다시 새로운 공간이 나타나는 행위의 과정을 건물에 담고 싶었다. 내부의 공간 사이를 이동하고 머무는 동선의 움직임과 행위의 변화가 곧 건물의 형태에도 반영되었다. 그리고 중심에는 모든 것의 출발이자 중심인 '길'이 있다.

우측에서 바라본 전경

좌측에서 바라본 전경

측면에서 바라본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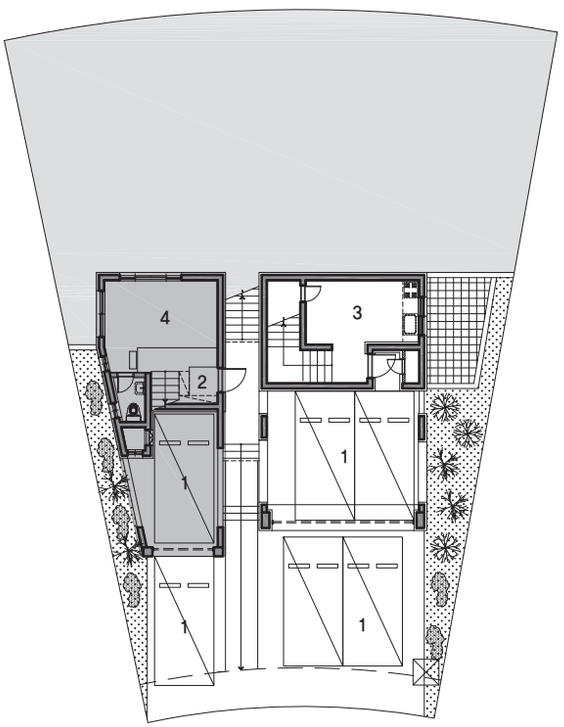
정면에서 바라본 전경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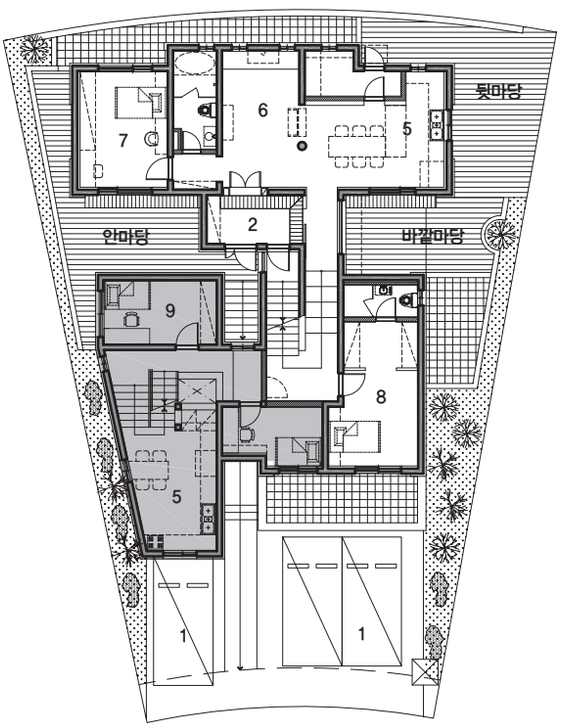
다락평면도

1. 주차장
2. 현관
3. 취미실
4. 거실
5. 주방/식당
6. 응접실
7. 할머니방
8. 할아버지방
9. 침실
10. 홀
11. 자녀방
12. 옷방
13. 부부침실
14. 다락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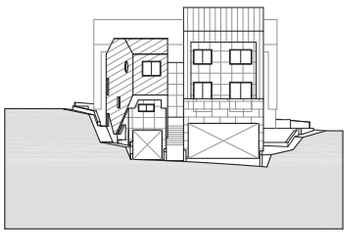


0 1 2 4m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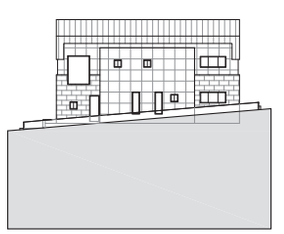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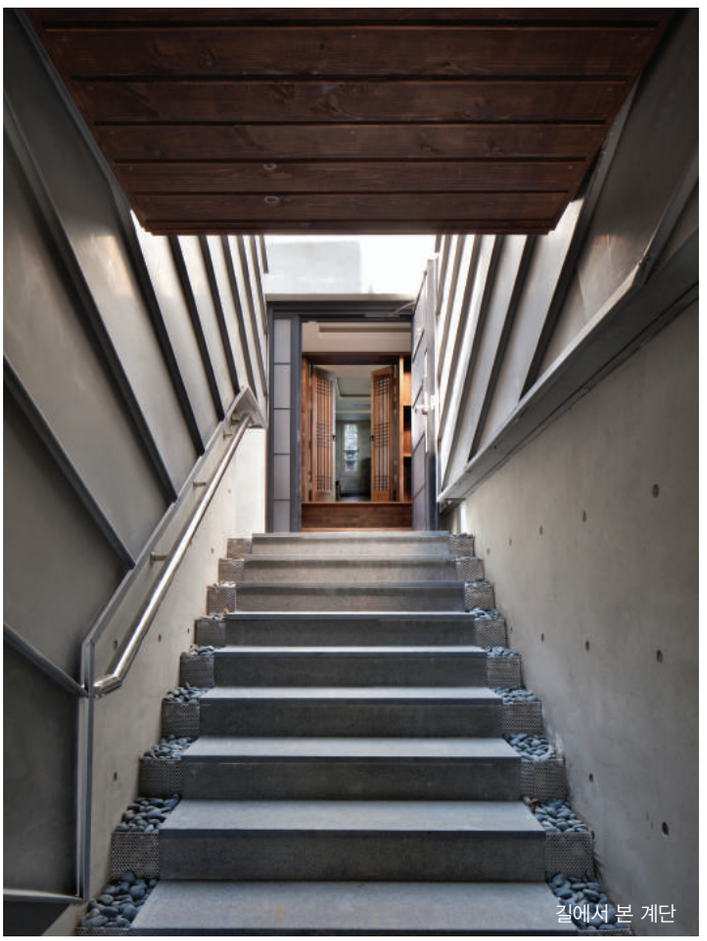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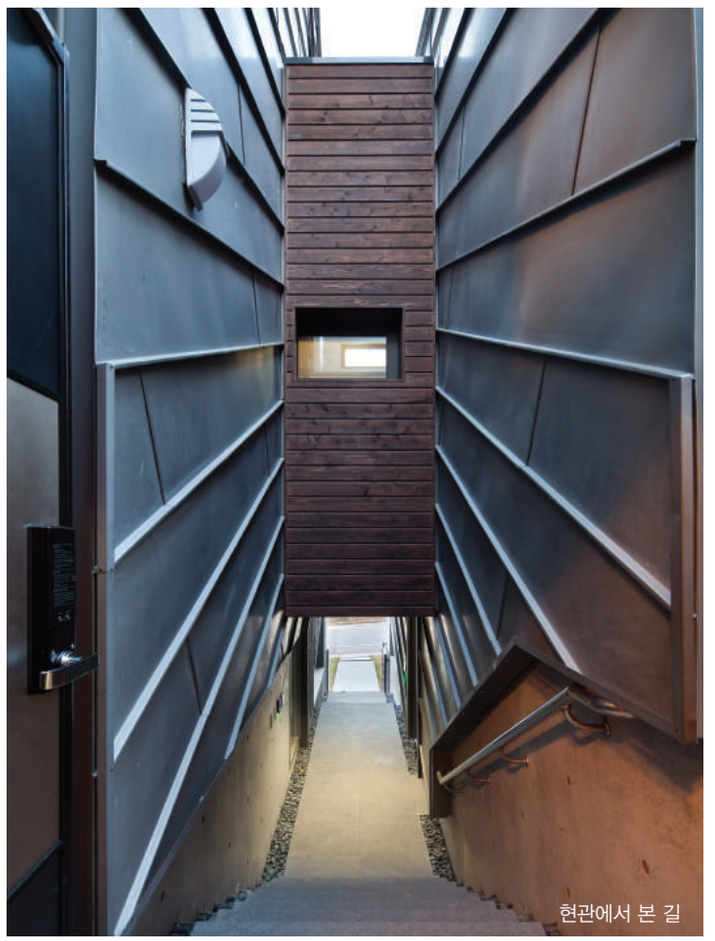
남측면도

서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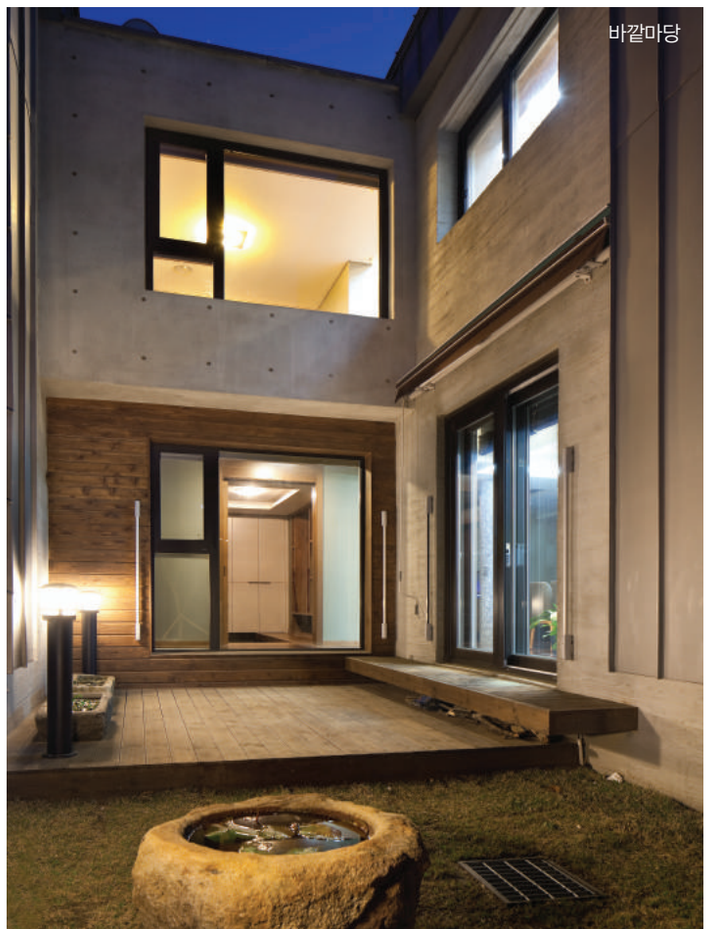
동측면도


북측면도


길에서 본 계단


현관에서 본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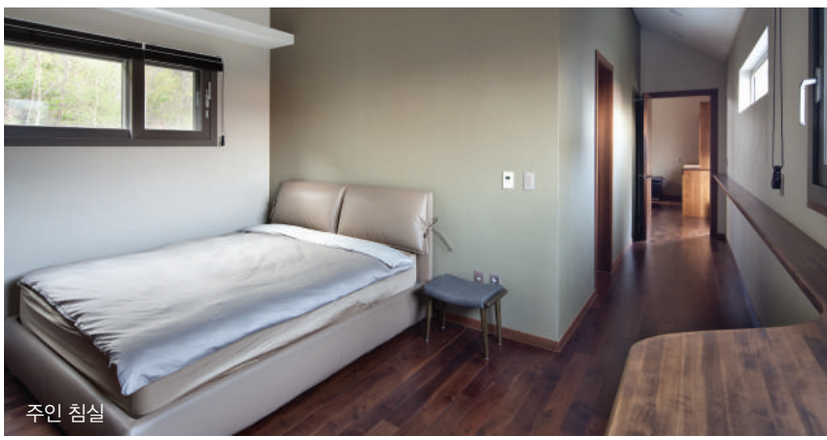
현관


바깥마당

거실에서 본 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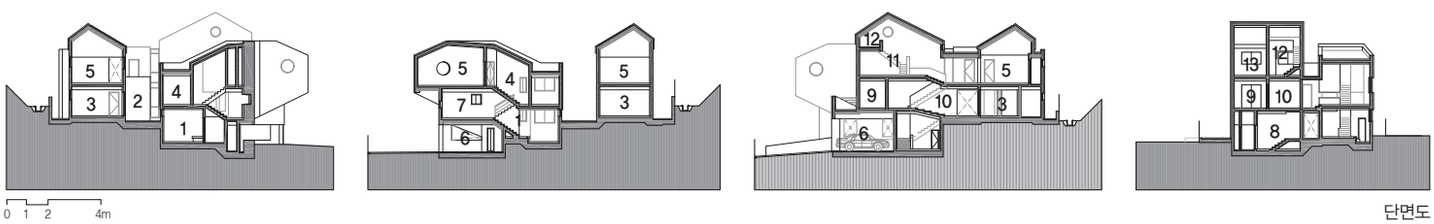
다락방에서 본 계단

임대세대 계단


주인 침실

임대세대

1. 거실
2. 안마당
3. 할머니방
4. 침실
5. 부부침실
6. 주차장
7. 주방/식당
8. 취미실
9. 할아버지방
10. 홀
11. 전실
12. 다락방
13. 자녀방



단면도

좋은 집
LA BELLE MAISON 1101-1: Share-scape

설계자 | 서금홍 | 동아대학교 건축학과 조교수

동아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고베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건축사사무소 홍 대표건축사, (주)해양도시연구소의 대표이사를 거친 후 현재 동아대학교 건축학과에 재직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건축위원 및 경남 도시디자인위원, 부산문화재단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광복로, 반송 느티나무도서관, A Flowing House 등 일상 속의 도시풍경만들기를 주요 테마로 작품을 하고 있다.

설계자 | 정태복_KIRA | (주)부산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동아대학교 건축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일신설계에서 실무를 쌓았다. 현재 ㈜부산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제 22 · 23대부산광역시건축사회 회장과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제13차 아시아건축사대회 집행위원장, 한국건축문화대상 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동아대학교 건축학부 겸임교수와 부산시, 산하구청 건축위원 및 도시계획위원, 국토교통부 신기술 · 신공법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설계팀 : 이상혁, 김형엽, 김진영
- 전문기술협력
  - 구조, 전기 기계설비 : (주)해양도시연구소

건축주 | 진경원

감리자 | 서금홍

시공사 | ㈜해양도시연구소

대지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관동동 1101-1

대지면적(Site Area) | 245.2㎡

건축면적(Building Area) | 145.02㎡

연면적(Gross Floor Area) | 356.78㎡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59.14%

용적률(Floor Area Ratio) | 145.51%

규모(Building Scope) | 3F

구조 | 철근콘크리트

주요마감재 | 대호철망, 드라이비트_고운마감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11 .05 ~ 2013. 06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3. 01 ~ 2013. 07

Client | Jin, Kyung-won

Architect | Seo, Geum-hong / Jung, Tai-bok

Project team | Lee, Shang-hyuck / Kim, Hyung-yeop / Kim, Jin-yo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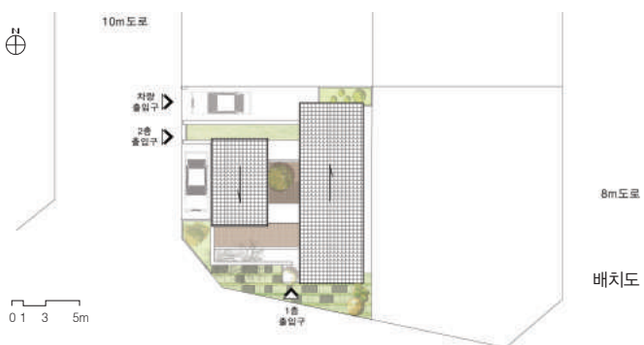
General Contractor | Institute of Bay & City

Location | 1101-1, Koangdong-dong, Gimhae-city, Gyeongsangnam-do, Korea

Structure | R.C

HVAC & Electrical Engineer | Institute of Bay & City

Finishing Materials | Gabion Wall / Onduline / Dry-vit



배치도

설계소묘

작은 천(川)이 흐르고 공원을 앞마당으로 취할 수 있는 따뜻한 땅에, 제2의 도약을 마음에 품고 있는 건축주와 집짓기 얘기를 시작한지 이년도 훨씬 지나서야 비로소 윤곽을 드러내는 집. 무엇보다 건축사를 이해하고 행복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많은 시간을 기다려준 건축주는 집짓는 과정에서도 끊임없는 설계 변경을 기쁘게 받아주었다.

풍경공유 01 – 풍경 끌어넣기

도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우월한 주변 풍경을 최대한 주택 안으로 끌어넣는 것부터 설계는 시작되었다. 각 공간 외벽에 창을 많이 만들어 주면 쉽게 해결되겠지만… 그 창을 통하여 내부의 생활 모습이 보여지는 것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실내의 각 공간들은 밖으로 향해 맘껏 열어두

정문에서 바라본 전경

고, 안으로도 빛과 풍경을 가득 품도록 중정을 중심에 두는 'ㅁ'자형 주택 평면을 우선 구축하였다. 그 이후에는 외부로부터의 시선을 차단하기 위해 골조 공사 내내 현장에서의 수평, 수직으로의 레벨 조정 작업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창의 위치를 조절하고, 외벽을 이중으로 중첩시켜 작은 틈새 정원을 끼워 넣고, 낮은 창, 높은 창, 틈새 조망, 난간 높이의 조절, 스라브와 차양의 깊이 조절….

풍경 공유 02 – 거리의 풍경으로 자리하기

작아도 존재감 있는 당당한 건축이 되기 위해, 주어진 경사지붕기준을 활용하여 최대한 매스를 강조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를 즐길 수 있도록 자연을 건물 외벽에 입혔다. 가벼운 유리벽 위에 육중한 돌담(Gabion Wall)이 불안정하게 떠있고, 그 돌담을 뚫고 여기 저기서 단풍나무는 머리를 내밀고 길 지나는 이들에게 말을 건넨다.

지금은 가을이라고… 해가 거듭하는 동안, 흰 벽과 돌망태는 능소화로 차츰 뒤덮혀가면서 카페 거리의 패션니스트로 자리할 것이라는 기대도 조심스레 가져본다.

SLOW_ SL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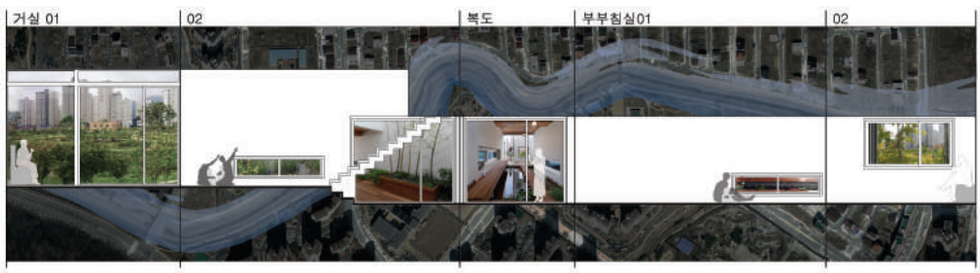
다행하게도 건축주 가족 구성원들은 모두 건강하다. 편리한 아파트 생활과 달리, 긴 동선이나 곳곳에 잠복한 수직적 이동을 은근히 즐길 수 있을 만큼… 뒷베란다의 텃밭은 전원생활을 꿈꾸는 건강한 가족들에게 건강한 식탁을 제공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집은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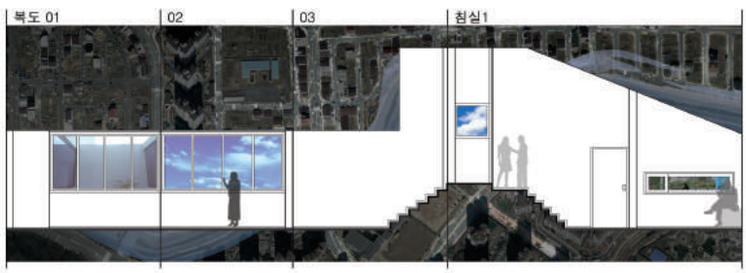
시작부터 좋은 땅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오랜 시간 건강한 모습으로 자리해가는 집… 나는 이런 집을 "좋은 집(La Belle Maison)"이라 감히 말하고 싶다.

정면에서 바라본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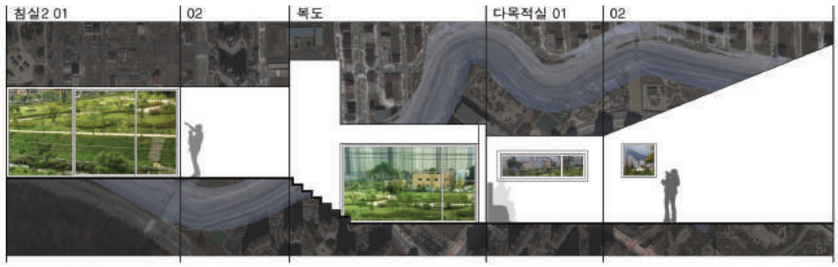
2F
Planar figure



3F (Inner)
Planar figure



3F (Outner)
Planar fig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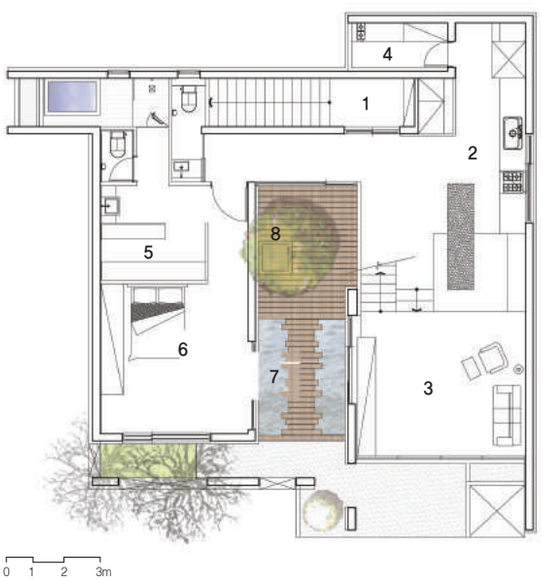


바깥에서 바라본 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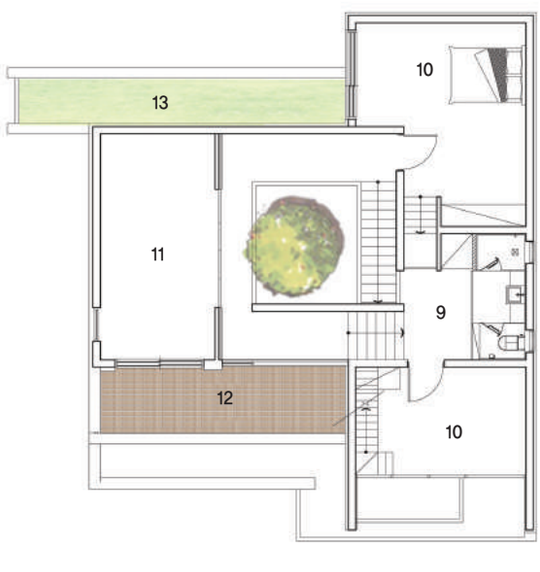
풍경나누기

종첩을 통한 보호

1. 현관
2. 식당 및 주방
3. 거실
4. 다용도실
5. 드레스룸
6. 안방
7. 연못
8. 중정
9. 전실
10. 침실
11. 다목적실
12. 옥상정원
13. 텃밭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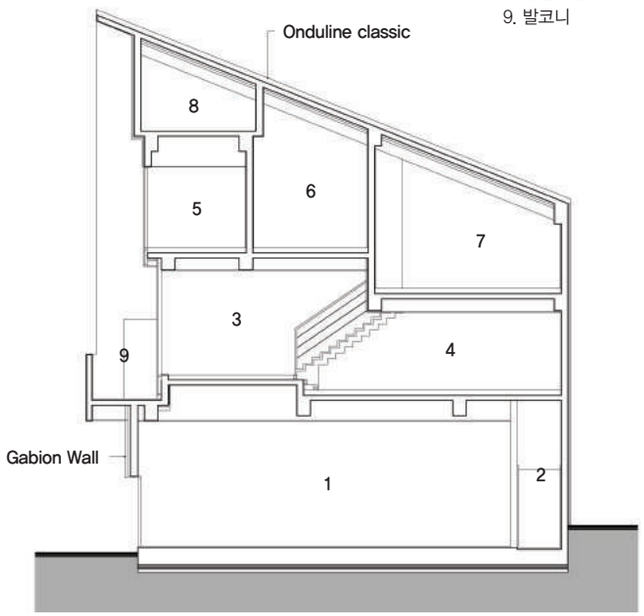
3층 평면도

거실에서 바라본 전경

중정연못에서 바라본 전경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화장실
3. 거실
4. 식당 및 주방
5. 침실2
6. 복도
7. 침실1
8. 물탱크실
9. 발코니

입단면도



단면도

주 계단

부부침실 낮은창으로 엿보기

3층에서 중정으로

와이지 타워
YG TOWER

설계자 | 허계훈_KIRA | (주)한솔 종합건축사사무소

한양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주)한솔 종합건축사사무소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현대건설 설계부, (주)창조 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근무하였으며, 진주시 건축상을 수상했다. 주요작품으로 대우한강베네시티, 천호쌍용플래티넘리버, 창원덕산베스트텔 등이 있다.

설계자 | 강성호_KIRA | (주)한솔 종합건축사사무소

중앙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주)한솔 종합건축사사무소의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주)창조 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근무하였으며, 주요작품으로 대동피렌체리버, 내수재개발구역 복합빌딩, 대우한강베네시티, 진주이현지구 주거단지 등이 있다.

- 설계팀 : 김용환, 남궁돈, 김병래, 박상우, 김영석, 오진호, 배성우, 강재상, 김영일, 홍지현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주)도화구조 엔지니어링
  - 설비분야 : (주)비전 엔지니어링
  - 전기분야 : (주)비전 엔지니어링
  - 토목분야 : (주)진영 이엔시

건축주 | (주)와이지씨
감리자 | 파슨스브링커호프아시아리미티드
시공사 | (주)대우건설

대지위치 | 서울시 중구 다동 156번지
주요용도 | 업무, 판매,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Site Area) | 4,154.9㎡
건축면적(Building Area) | 1,677.13㎡
연면적(Gross Floor Area) | 42,541.69㎡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59.97%
용적률(Floor Area Ratio) | 999.99%
규모(Building Scope) | B6-23F
구조 |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지하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주요마감재 | 로이유리 커튼월, 알루미늄복합패널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08. 02~2009. 03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09. 03~2011. 07
사진(Photographer) | Lim, Jun-young (청암디토그라피)

Client | YG Corporation
Architect | Heo, Gye-hoon / Kang, Sung-ho
Project team | Kim, Yong-hwan / Namgung, Don / Kim, Byeong-rae / Park, Sang-woo / Kim, Yeong-seok / Oh, Jin-ho / Bae, Seong-u / Kang, Jae-sang / Kim, Yeong-il / Hong, Ji-hyeon
General Contractor | DAEWOO Engineering & Construction Co.Ltd.
Location | 156, Da-dong, Jung-gu, Seoul, Korea
Structure | RC, SRC
Structure Engineer | Dohwa Structural Engineers Co., Ltd
HVAC & Electrical Engineer | Vision ENG'G
Civil Engineer | Jin Young Consultant CO.,LTD
Finishing Materials | Low-E GLASS Curtain wall, AL Composit Panel

크리스탈의 이미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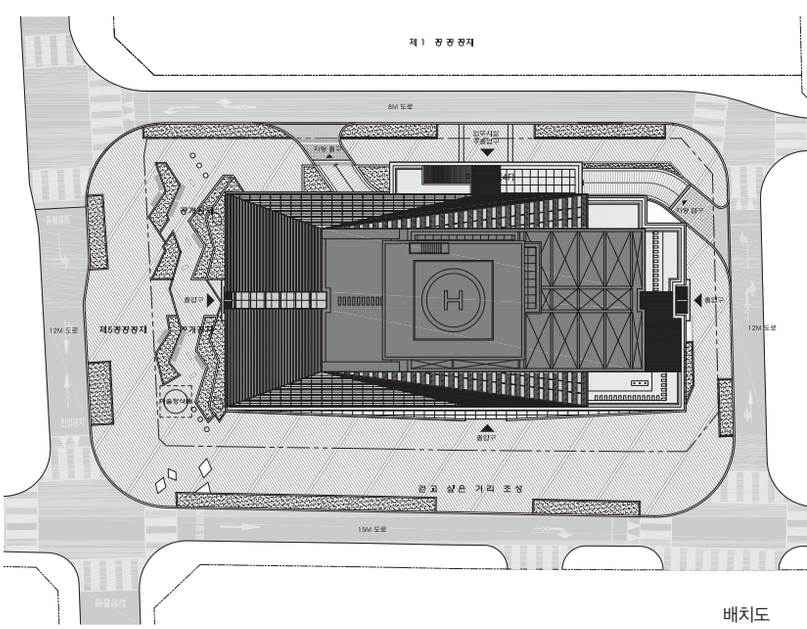
크리스탈에서 이미지를 차용하였다.
삼각형태의 기하학적 면분할, 유리면 단위 기울기의 각도변화, 유리 커튼월의 후레임 변화(노출, 비노출, 간격조정, 서향 돌출 루버) 등으로 도심의 박스형 빌딩군의 회색적인 공간에서 일조 시간대별로, 조망 위치별로 표정변화가 읽혀지는 액티브한 건물을 디자인 모티브로 삼았다.

복합건물(오피스 + 식당가)의 시선끌기…

부지 주위로 다소 밋밋하고 경직된 오피스빌딩들이 포진되어 있으며, 신축 전의 본 부지는 주위 오피스 근무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식당 밀집지역으로 오래전에 형성된 곳….
따라서, 본 건물의 오피스 이용자 및 주위 오피스 근무자들의 본 건물 접근성을 고려하여 보행공간의 활성화(걷고싶은 거리조성)와 청계천 연결 공지확보 및 외부공간의 장애물 최소화를 꾀하였으며, 또한 건물의 고층부(오피스) 매스와 저층부(식당가) 매스가 만나는 접점에 옥외데크 설치 및 원형기둥 노출로 매스분절 및 상호 기능 충돌을 완화하는 매개공간으로 옥외 휴게공간을 제공하였다. 시각적으로 매스의 변화감과 역삼각형의 컴포지션 등으로 도심 오피스 가로에 생동감을 부여코자 하였다.

저층부 상업용 시설은 주로 식당으로서, 고층부 오피스 환경을 고려하여 동선분리, 각종 냄새 및 소음차단, 공조 및 설비분리 등의 기능분리를 원칙으로 삼았으며, 에너지 절약을 고려하여 LOW-E 복층유리, 일사율 경감을 위한 FRIT GLASS, 서향 일사량 조절용 수평 돌출바설치, 효율적인 공조시스템(업무시설: 빙축열 냉방시스템) 채용 및 용도기능별 공조방식 분리, 빌딩 자동제어(시스템 통합), 중수도 시스템 도입 등을 감안하였다.

대지가 속한 구역의 도시정비계획 구상과 지역이 갖고있는 컨텍스트를 조화시켜야 하는 전제하에, 본 건물의 기능상의 두얼굴(정적인 오피스+동적인 상업공간)을 융화시켜 유니크한 디자인으로 표출코자 하였다.
본 빌딩의 이용자들과 도심의 행인들에게 신선한 모티브와 생동감이 느껴질 수 있는 건축물로 자리하길 기원한다.



배치도

서남측에서 바라본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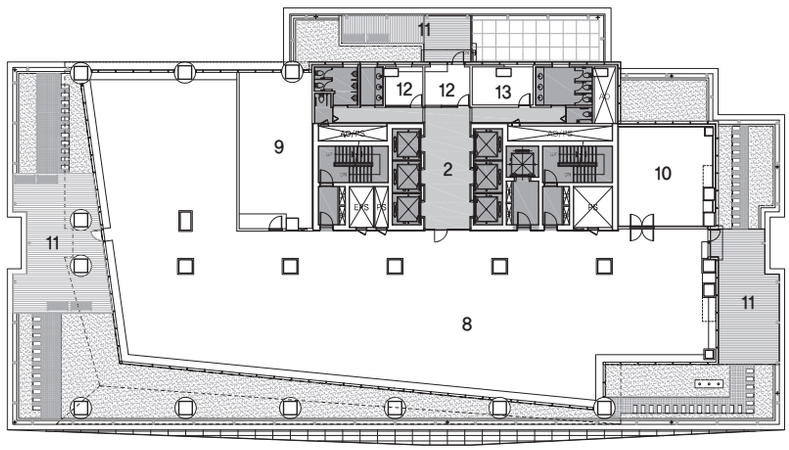
서남측 전경

서측 전경 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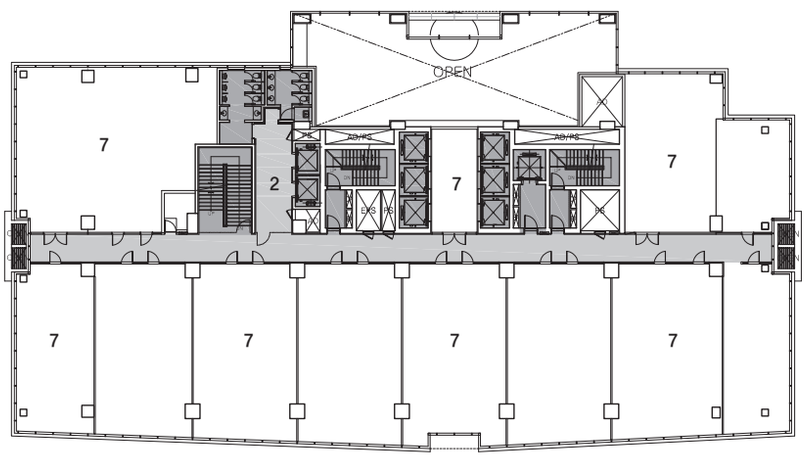
북측전경

저층부와 고층부 접속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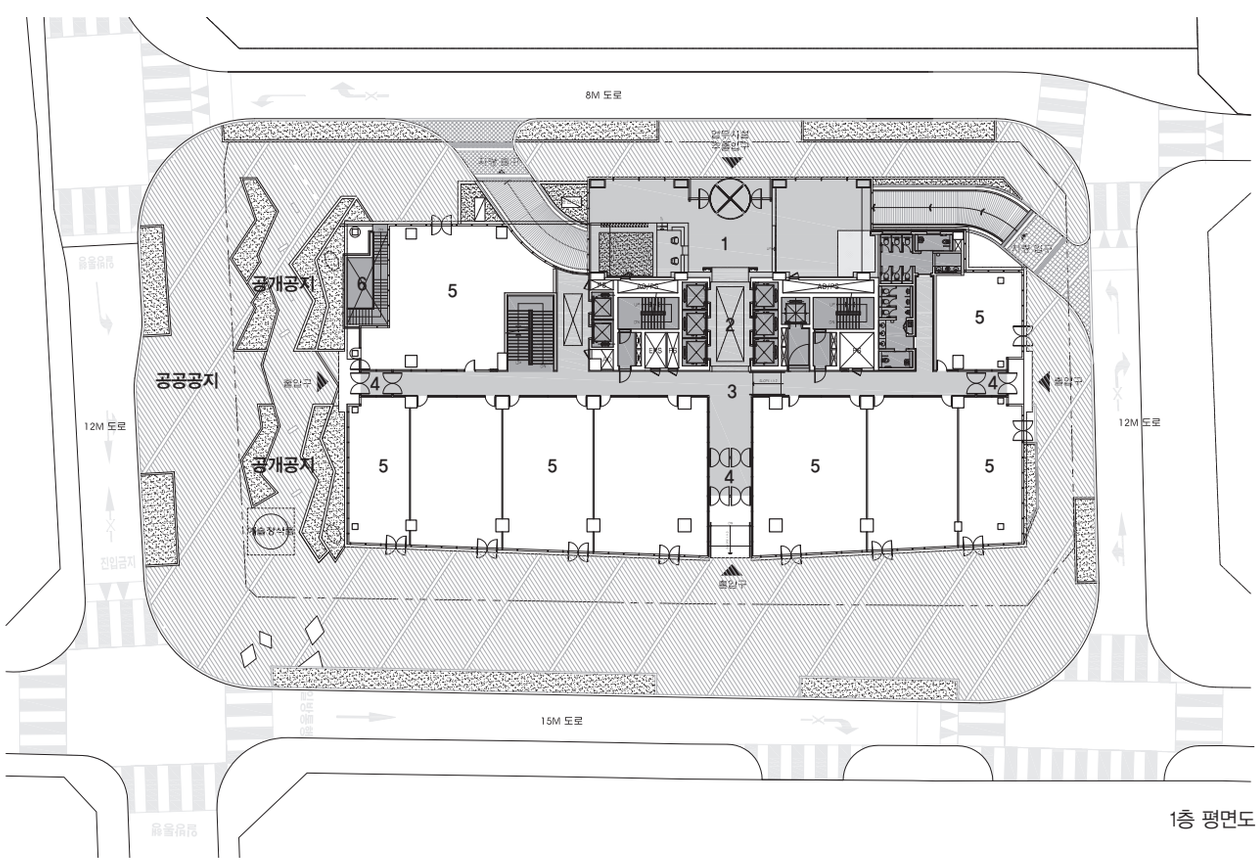
1. 로비
2. 엘리베이터 홀
3. 복도
4. 방풍실
5. 판매시설
6. 선큰
7. 근린생활시설
8. 업무시설
9. MDF
10. AHU
11. 하늘정원
12. 휴게실
13. 통신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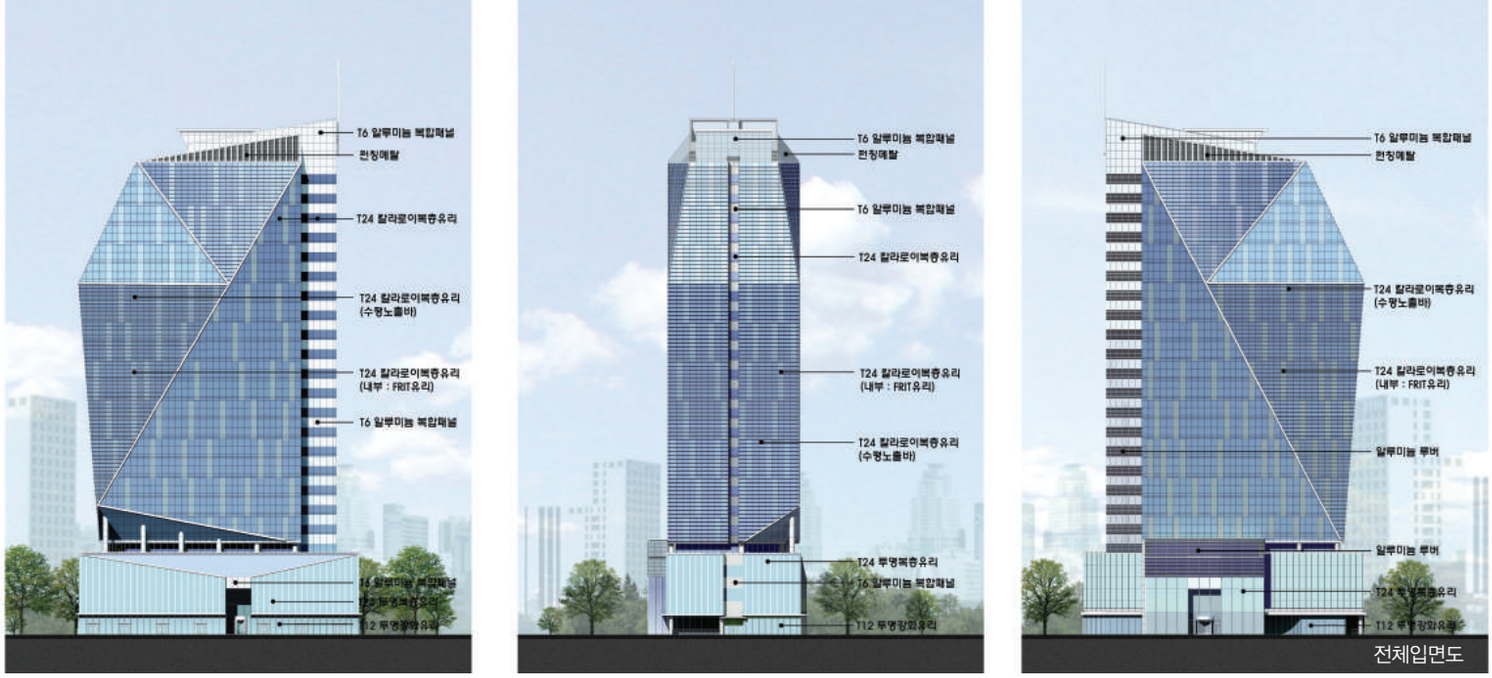
4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전체입면도

저층부 남동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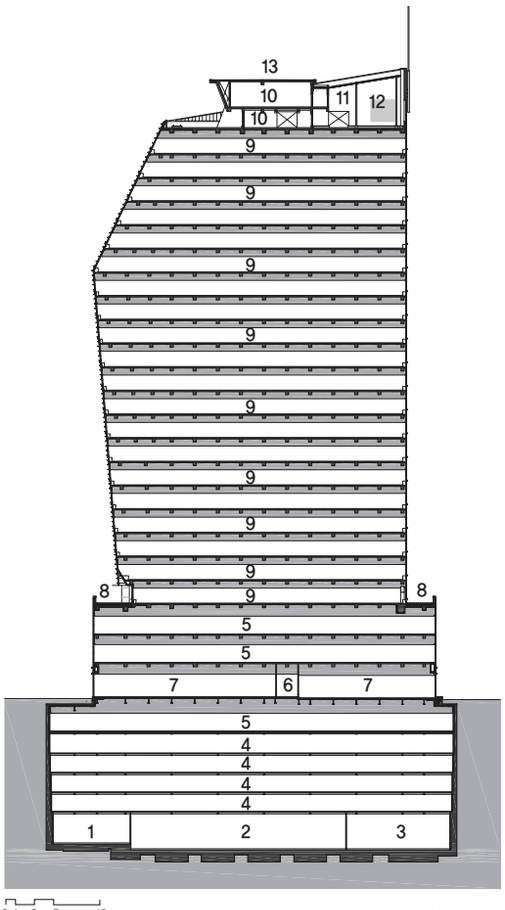
서측입면루버(고층부)

옥외테크(4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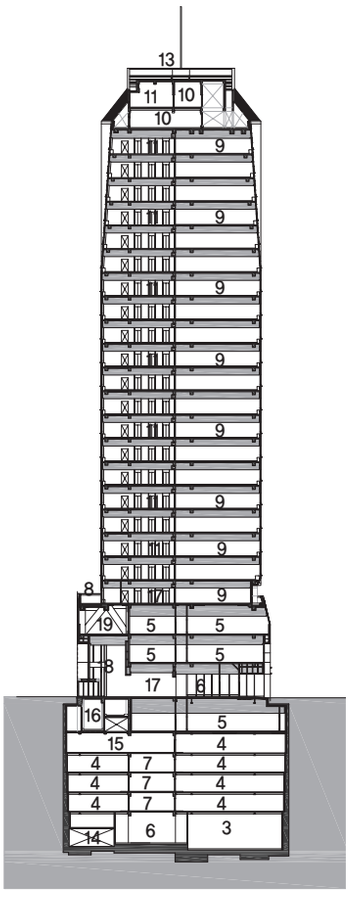
1층 출입구(업무시설)

엘리베이터 홀(업무시설)

1. 전기실
2. 기계실
3. 저수조
4. 지하주차장
5. 근린생활시설
6. 복도
7. 판매시설
8. 하늘정원
9. 업무시설
10. 팬룸
11. 엘리베이터 기계실
12. COOLING TOWER
13. 헬리포트
14. 중수도
15. 창고
16. 경사로
17. 엘리베이터 홀
18. 로비
19. A.H.U



횡단면도



종단면도

이움빌딩
EUM BUILDING

설계자 | 이 봉_KIRA | 이움건축 건축사사무소

한양대학교 건축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 하였으며, 영국 AA School에서 수학했다. (주)원도시건축, (주)삼우 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의 실무를 거쳐 2011년에 이움건축을 개설해 현재 대표건축사로 재직중이며, 한양대, 단국대 겸임교수로 활동 중이다. 주요작품으로는 서울시립미술관, 명동국립예술극장, 거제삼성호텔, 웅진R&D센터, 제2공무원수련원 등이 있다. 저서로는 '지속가능한건축의 패시브디자인'과 '한국현대건축총람(2000~2009)'이 있다.

- 설계팀 : 김희백, 양서진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청림구조기술사사무소
  - 기계설비 : 선진이앤씨
  - 전기분야 : (주)코덕엔지니어링
  - 토목분야 : (주)에스텍컨설팅그룹

건축주 | 이봉

시공자 | (주)삼협종합건설

대지위치 |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279-8
주요용도 |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Site Area) | 339.80㎡
건축면적(Building Area) | 202.59㎡
연면적(Gross Floor Area) | 926.10㎡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59.62%
용적률(Floor Area Ratio) | 199.38%
규모(Building Scope) | B1 – 5F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주요마감재 | 노출콘크리트, 벽돌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11. 08 ~ 2012. 02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2. 03 ~ 2012. 12
사진 | Kim, Hee-baek

Client | Lee, Bong
Architect | Lee, Bong
Project team | Kim, Hee-baek / Yang, Seo-jin
General Contractor | SAMHYUB Construction Ltd.
Location | 279-8, Seokchon-dong, Songpa-Gu, Seoul, Korea
Structure | Reinforced concrete, RC
Structural Engineer | Chunglym Structural Consultant
HVAC & Electrical Engineer | SUNJIN E&C
Electrical Engineer | KODUG Engineering Inc.
Civil Enginner | STECH Consulting group
Finishing Materials | STECH Consulting group

Facade Design

송파구 백제고분로에 자리잡은 본 대지는 2종일반주거지역이며, 정북방향으로 일조권을 받도록 되어있어 북측의 매스는 상부로 갈수록 점점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전면도로에서 매스가 빈약해 보일 수 있는 약점을 노출콘크리트 가벽으로 연장시킴으로써 정갈하고 번듯한 facade를 형성시켜 건물 형태의 완성도 및 인지도를 높여 주고 있다.

Mass De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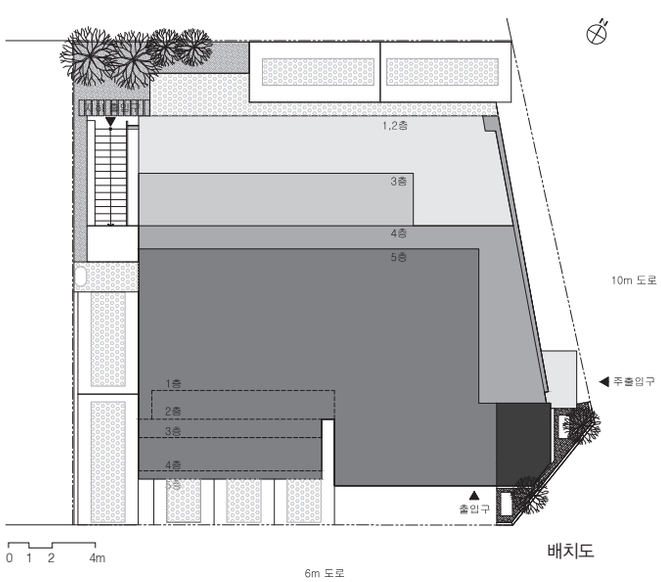
북측 매스는 일조권에 의해 줄어들므로 남측 매스는 상부로 갈수록 오히려 앞으로 나오도록 형태를 디자인함으로써 매스가 전체적인 하나의 역동적인 매스 덩어리로 보이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이는 중력에 반하는 매스의 긴장감, 상승감, 형태적 아름다움과 같은 단순한 미적 감각에 의한 매스디자인 외에, 이러한 매스형태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합리적 이유를 가지고 있다. 즉 태양의 고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각 상부의 돌출된 매스가 차양의 역할을 하여 그 아래층의 창문으로 들어오는 직사광선을 차단함으로써 냉방부가가 줄어들게 되고, 반대로 겨울철에는 태양의 고도가 낮기 때문에 상부의 돌출된 매스와는 상관없이 태양에너지가 실내로 유입 될 수 있어 난방비를 줄여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Skin Design

남측의 우측 매스인 계단실의 벽 재료는 건물의 내부와 외부 상호간의 시각적 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유리커튼월로 만들어져 있으나 유리라는 재료는 열관류율이 높은 단점이 있다. 이를 완화해 주기 위해 남측면에 효율이 좋은 수평방향 루버를 설치하였으며, 루버 폭의 크기에 따라 루버의 간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루버로 입면의 패턴을 만들어냄으로써 facade의 디자인요소로 발전시키고 있다.

Space Design

지하층으로의 접근은 선큰가든을 통하여 진입이 가능하여, 지하공간이지만 자연채광과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3층에서 5층까지 일조권에 의해 단단 set back되는 북서측 부분의 테라스 공간은 실내공간을 외부로 연장시킬 수 있는 확장공간으로 디자인되어 있다. 이 공간에 설치된 전면도로변의 노출콘크리트 가벽은 허름한 주변건물을 시각적으로 차단시켜 주고 있으며, 3층과 4층의 테라스 공간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여 아늑하고 독립적인 테라스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테라스 공간에서 노출콘크리트 가벽 면으로 떨어지는 석양과 앞으로 노출콘크리트 벽을 타고 올라갈 넝쿨식물에 의해 이 공간의 풍요로움은 더해질 것이다.



배치도

KONA KOMO
KONA BEANS
KONA BEANS
KONA BEANS
골프리스트
Hawaiian Style
KONA KOMO
Hawaiian Premium Coffee
KONA BEANS
KONA KOMO
PURE KONA BEANS

남동측에서 바라본 전경

정면에서 바라본 전경

남서측에서 바라본 전경

남동측에서 바라본 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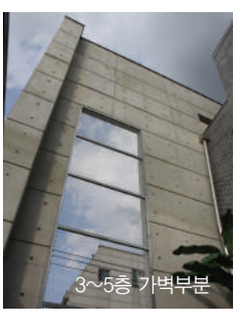
북동측에서 바라본 전경

북측 4, 5층 전경

야경–코너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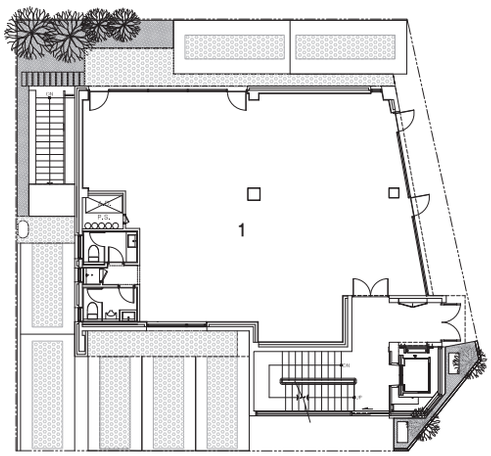
북동측 부분

3, 4층 테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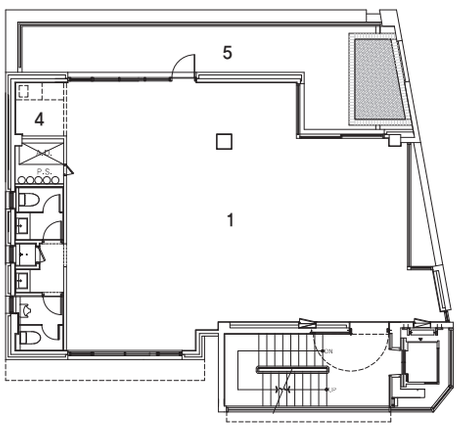

3~5층 가벽부분

야경–북측 부분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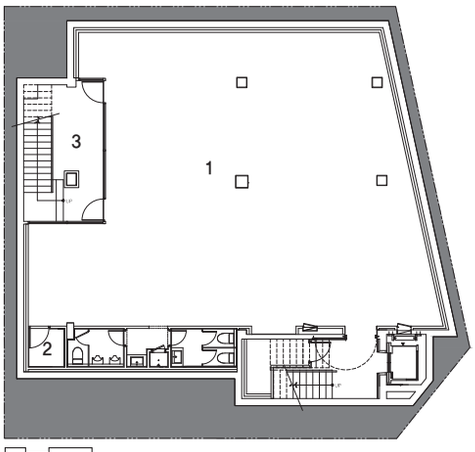
1. 근린생활시설
2. 창고
3. 지하선큰
4. 탕비실
5. 테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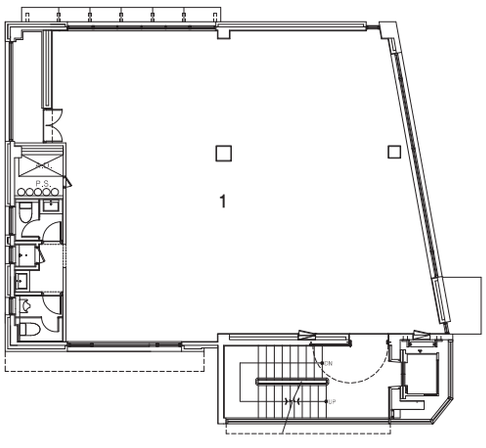
1층 평면도



3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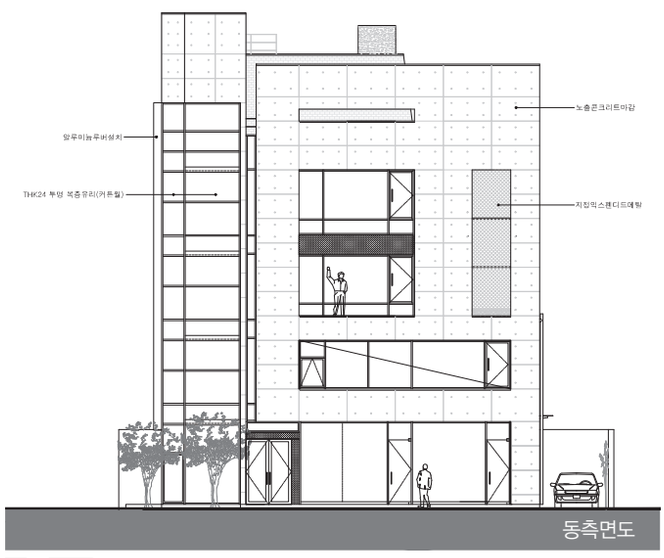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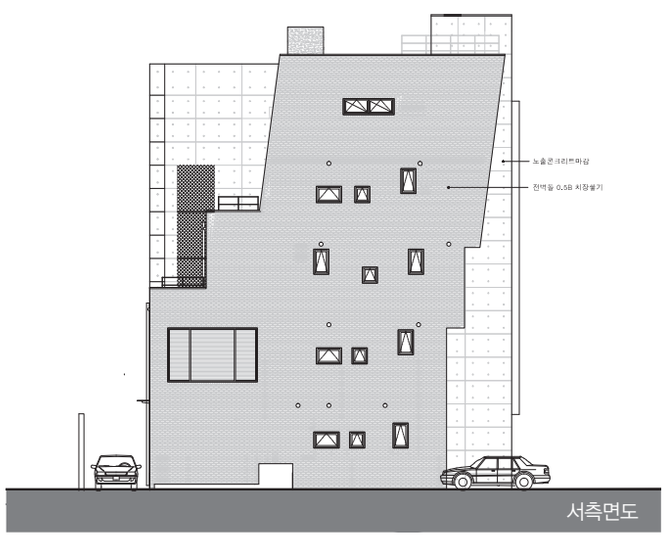
3층 테라스

남서측 부분

남측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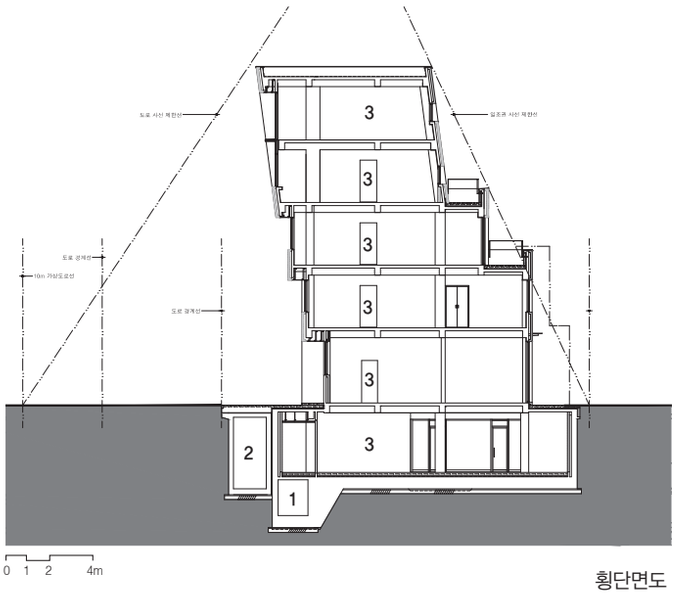
동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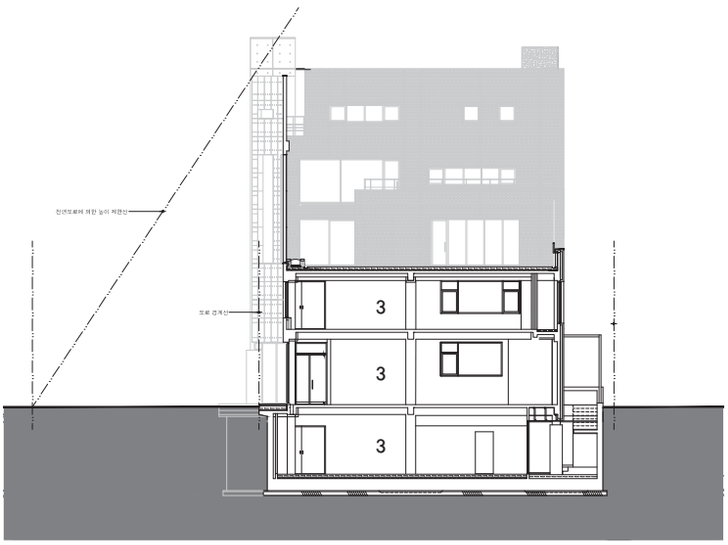
서측면도

0 1 2 4m

1. 피트　　2. 정화조　　3. 근린생활시설



횡단면도



종단면도

지하선큰

2층 내부

5층 테라스

행정중심복합도시 1-5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1-5 COMMUNITY CENTER

설계자 | 서영철_KIRA | ㈜에이비라인 건축사사무소

서영철 건축사는 부산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였다. (주)삼우 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근무하였고 현재 (주)에이비라인 건축사사무소의 대표이사이다. 주요작품으로는 도곡동 타워팰리스, 상계동 이끌리오 빌딩, 용인시 사랑의 집, 메가스터디(주) 사옥, 세종시 아트센터 등이 있다.

설계자 | 박래훈_KIRA | ㈜에이비라인 건축사사무소

박래훈 건축사는 영남대학교 건축공학과, 동대학원을 졸업하였다. (주)천일건축엔지니어링, (주)삼우 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근무하였고 현재 (주)에이비라인 건축사사무소의 대표이사이다. 주요작품으로는 영등포 1-4구역 주상복합, 본동 래미안 트윈파크, 세종시 1-4생활권 M9블럭 공동주택 등이 있다.

설계자 | 김봉수_KIRA | ㈜에이비라인 건축사사무소

김봉수 건축사는 경희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일송건축 및 코다건축에서 실무경험을 쌓았다. 현재 (주)에이비라인 건축사사무소의 도시건축설계본부장및 연구소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작품으로는 세종시 1-3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포항시 은빛 빌리지, 바이스트로닉코리아(주) 신사옥 등이 있다.

- 설계팀 : 김홍연, 장경용, 박재순, 정경호, 홍경범, 배소영, 김주희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일송구조기술사사무소
  - 토목분야 : 씨엠엔지니어링(주)
  - 기계분야 : (주)청우이엔지
  - 전기분야 : (주)청우이엔지

건축주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시공사 | (주)황토종합건설

대지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88-5
주요용도 | 복합커뮤니티센터
대지면적(Site Area) | 14,982㎡
건축면적(Building Area) | 8,323.89㎡
연면적(Gross Floor Area) | 13,461.28㎡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55.56%
용적률(Floor Area Ratio) | 73.84%
규모(Building Scope) | B1~3F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트러스지붕
주요마감재 | THK4 알루미늄복합패널, THK22 복층로이유리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08. 12 ~ 2009. 08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1. 12 ~ 2013. 08
사진(Photographer) | Sin, Il-su

Client |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Agency
Architect | Seo, Young-cheol / Park, Rae-hoon / Kim, Bong-soo
Project team | Kim, Hong-yeon / Jang, Kyeong-yong / Park, Jae-soon / Jeong Kyeong-ho
Hong, Kyeong-beom / Bae, So-young / Kim Ju-hee
General Contractor | Hwangto Construction Co., LTD.
Location | 88-5, Eojing-dong, Sejong, Korea
Structure | RC, SRT
Structural Enginner | Ilsong structural Engineering
HVAC, Electrical, Civil | Chungwoo ENG Co., LTD.
Finishing Materials | THK4 AL. composite panel, THK22 Low-E pair glass

세종시 1-5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는 국내 최초로 주민센터,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문화의 집, 도서관, 체육시설, 실내체육관 등을 하나의 공간에 담아 지역주민의 전 세대, 연령층이 공유하여 지역사회 활성화를 주도하는 사업으로, 자연환경과 생태체계가 최대한 보존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공간, 도시공간의 중심부에 위치한 아름다운 건축물로서의 상징적 공간, 다양한 생활문화 공간이 있는 매력적인 문화공간 형성이라는 세 가지 개념을 실현하여 활력있는 커뮤니티의 구심점이 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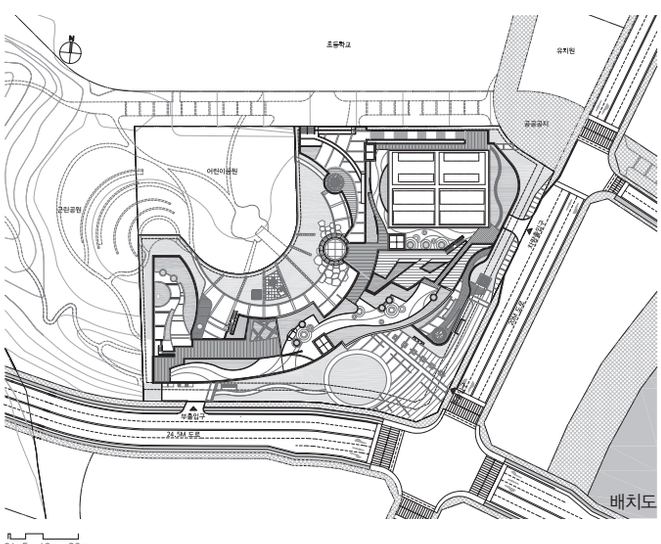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에 위치한 대상지는 중심행정타운, 주거, 상업 등 다양한 도시기능이 어우러진 복합단지로 순환대중교통도로가 서측으로 관통하며 금강의 지류 방축천과 원수산, 국사봉의 녹지 중심축에 위치한 근경의 생태보존형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경관이 매우 수려한 지역이다.

도시의 흐름을 대지내부로 끌어들여 커뮤니티 공간을 위해 대지를 비우고, 기존 산(생태보존형 근린공원)의 흐름을 이어 순환하는 생태 보행동선 축을 형성하며 진입가로에서 연결된 소통은 진입마당과 중정으로 이어져 자유로운 만남과 화합을 만들고, 기존의 산 "자연"을 이어 부드러운 곡선처리와 마을동산 능선을 형상화한 건축은 자연의 일부가 되어 도시의 획일적인 건축을 탈피한 진정한 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복합커뮤니티센터는 다양한 기능이 복합되어 있는 건물로서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상호간 연속성 있게 연결하면서도 각각의 기능이 독립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고려하였고, 연계성 있는 시설간 입체적, 평면적 복합화를 통해 공간의 효율성과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사용자의 시설관리, 운영측면의 효율적 공간구성과 이용자의 서비스 수준 향상과 편의를 제공하였다.

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 세종시 도시계획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초 에너지 절약형 건축 및 친환경건축을 지향하여 자연요소를 최대한 활용하는 패시브 건축기법과 환경부하를 절감하는 신재생 에너지를 선도적으로 적극 도입하여 총에너지 30% 이상 절감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 친환경 본 인증 최우수를 획득하였고, 또한 유니버셜 디자인을 완성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 인증 최우수를 획득하였다.

설계를 진행하면서 적극적인 지원과 조언으로 보다 더 생활공간으로서의 편의와 아름다운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세종시 도시건설청 청장님과 담당부서, 그 외 협조해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이곳에서 생활하실 주민 분들이 항상 여유로움과 풍요로움을 담는 커뮤니티가 되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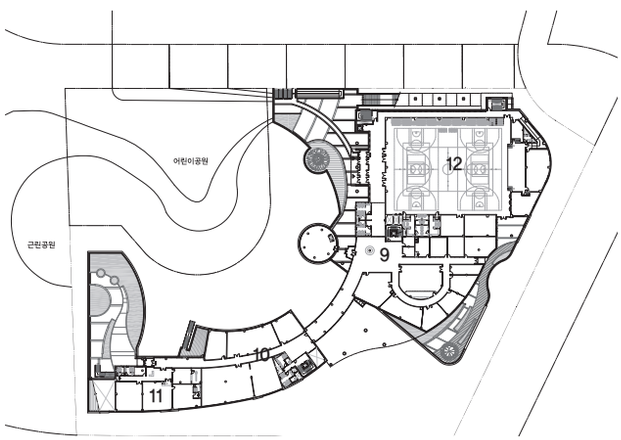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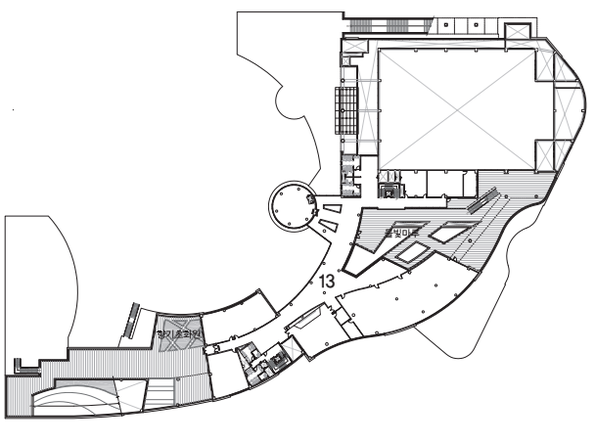
측면에서 바라본 전경

측면에서 바라본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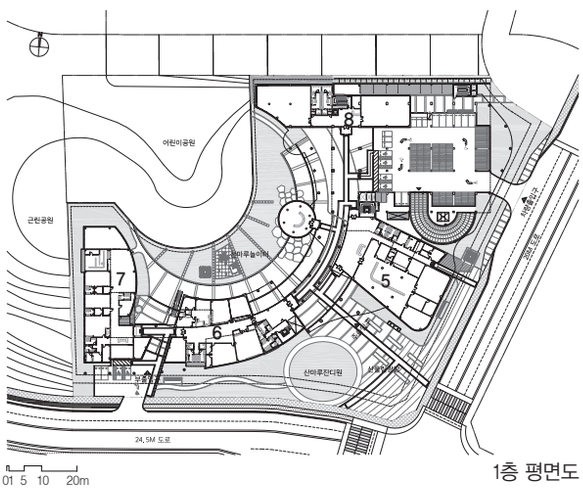
1. 주차장
2. 저수조
3. 기계실
4. 전기실
5. 동사무소
6. 노인복지시설
7. 보육시설
8. 체육시설
9. 문화의집
10. 도서관
11. 지역아동센터
12. 체육관
13. 알파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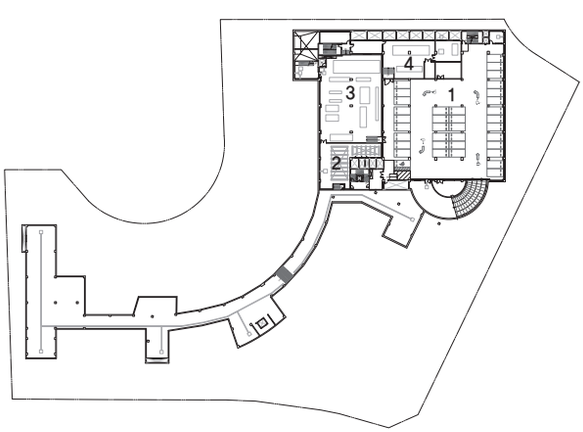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지하1층 평면도

측면에서 바라본 전경

바깥에서 바라본 현관

우측 건물 전경

측면에서 바라본 테라스

측면에서 바라본 계단

01 5 10 20m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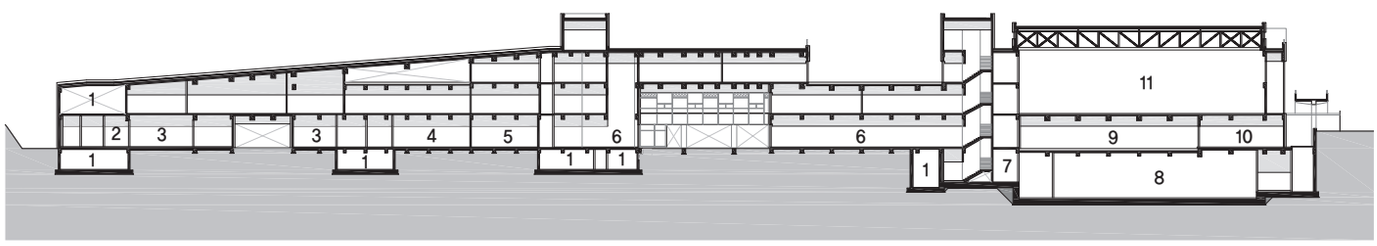
옥상에서 바라본 건물

현관

조감도

메인투시

1. PIT
2. 창고
3. 사무실
4. 교양교실
5. 시청각실
6. 로비
7. EPS
8. 기계실
9. 주차장
10. 체육교실
11. 체육관



단면도

제일빌딩 1, 2, 3

3필지를 연벽으로 하나로 만들다

JEIL BUILDING 1, 2, 3

설계자 | 박영준_KIRA | 건축사사무소 나무

중앙대학교 건축미술학과를 졸업하고, 제30회 국전에서 특선을, 건축대전 1회, 2회 입선한 바 있고, 그후 (주)정림건축에서 10년간 실무경험을 쌓았으며, 현재는 국립한밭대학교 겸임교수이며, 충청남도 건축심의위원과 충남교육청 건축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나무건축을 운영 중이다. 현상설계수상경력으로는 KAIST마스터플랜과, LH의 충남권(서산, 태안)공동주택, 시흥장현나군공동주택, 대구대곡2지구공동주택, 시흥은계지구공동주택 등이있고, 그외 다수이다. 기타사항으로 국내 신세대건축가 "10인에선정", 국내 젊은 건축가 "28인에선정" 되기도 하였다.

- 설계팀 : 박경식, 황재일, 심봉덕, 오수미, 차마라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모아구조기술사사무소
  - 설비분야 : 우정enc 주식회사
  - 전기분야 : 우정enc 주식회사

건축주 | 김석규, 정제득, 구기일

감리자 | 두리 건축사사무소

시공사 | 일진종합건설㈜

대지위치 | 충남 당진시 수청동 1026, 1027, 1028 번지

주요용도 | 업무시설

대지면적(Site Area) | 1,116.90㎡

건축면적(Building Area) | 668.56㎡

연면적(Gross Floor Area) | 3,300.40㎡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59.86%

용적률(Floor Area Ratio) | 295.50%

규모(Building Scope) | 5F

구조 | 철근콘크리트

주요마감재 | Thk0.7 징크패널, Thk 오석물갈기, Thk24 로이칼라 복층유리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11. 03 ~ 2011. 06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1. 07 ~ 2012. 11

사진(Photographer) | Chae, Su-ok

Client | Kim, Sok-kyu / Jong, Jae-dok / Gu, Ki-il

Architect | Park, Young-jun

Project team | Park, Young-sik / Hwang, Jae-il / Shim, Bung-dok / O, Su-mi / Cha, Ma-ra

General Contractor | Iljin Construction

Location | 1026, 1027, 1028, Sucheong-dong, Dangjin-si, Chungnam-do,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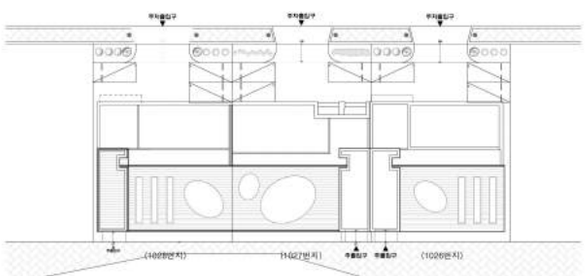
Structure |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

Structural Engineer | Moa Structural Engineering

HVAC Engineer | Woo-Jang Engineering

Electrical Engineer | Woo-Jang Engineering

Finishing Materials | Thk0.7 Zinc Panel, Thk Black Stone, Thk24 Color Insulating Glass



배치도

3필지 연벽

당진수청지구(준주거지역)의 신시가지의 첫번째 들어설 건축물로 기억되는 빌딩이다. 택지개발이 되긴했지만 황량한 주변의 분위기를 선도에 주력했고, 당진시청 민원실 맞은편에 자리잡고 있어서 시청과의 업무시설 빌딩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었다. 3개의 필지를 1개의 빌딩으로 구성하는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가 있었다. 대지 활용도면이나 빌딩의 연벽배치의 법적제약을 풀어가는데 별무리는 없었으며, 대지의 특성상 레벨차 1.5m를 적절하게 배분하는 입면을 고려함도 잊지 않았다. 3개의 빌딩를 연벽함에 있어서 세분의 건축주의 상호간의 협조로 좋은 건물을 완성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 그로인해 시너지가 극대화되는 좋은사례가 되고있다.

평면계획

- 3필지를 연벽배치하므로써 도시미관에 매우 도움을 주고 경제적이고 주차계

정문에서 바라본 전경

획에 융통성있게 배치할 수 있었다.

- 3코아를 일직선상으로 배치하여 전용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대지 레벨차를 극복하며, 자연스런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주출입구와 부출입구에 완만한 경사로를 설치하였다.
- 3주차의 경우는 10m 후면 도로쪽으로 차량진입 주출입구를 두어 진 · 출입에 용이 하도록하고 10m도로 건너편의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매입하여 업무시설로서의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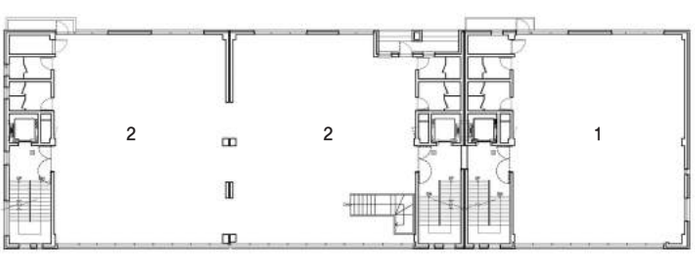
외장계획

- 코어부분의 오석물갈기 마감과 상가부분의 커튼월이 재료상의 대비를 이루며 코어부분의 무게중심을 잡아주도록 하였다.
- 커튼월 부분의 수직 bar와 코어부분의 돌나누기는 수직성을 강조하였고 간판지지대를 통해 수평적인 안정성도 고려되어 간판을 설치할수 있도록 하였다.
- 주출입구는 강조색(오렌지색)을 사용하여 입구성를 드러내고 진입을 유도하도록 하였다.
- 타원형 매스는 모든 사람들을 포용한다는 이미지와 나뭇가지 형상으로 친환경적 이미지를 극대화했다.
- 3필지의 각각의 건물을 하나로 묶어주는 중요한 컨셉을 강조하는 방법론적으로는 측면부분부터 감싸올라간 징크판넬지붕은 곡선의 skyline을 만들어내는 당진지역의 랜드마크 추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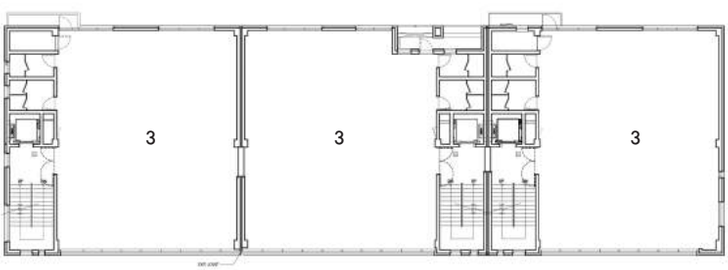
건축주 세분의 높은 안목과 신뢰가 있었기에 설계를 진행함에 있어서 보람과 뿌듯함과 자부심을 가지고 설계시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했다. 당진시청 맞은편의 새로운 패턴의 업무시설 빌딩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측면에서 바라본 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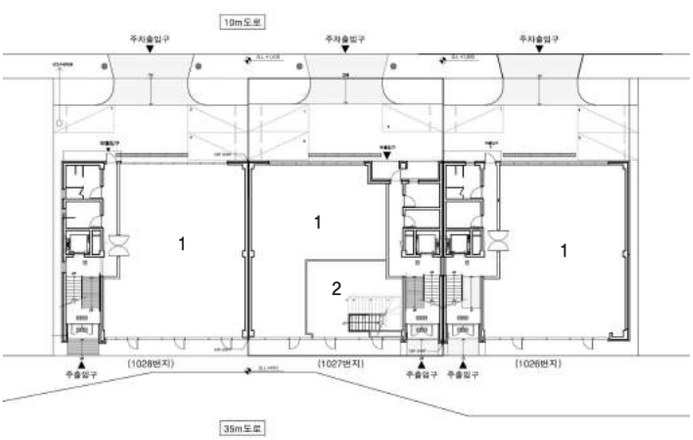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업무시설/은행　3. 업무시설/사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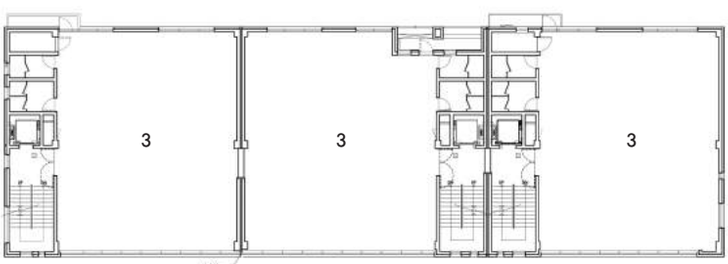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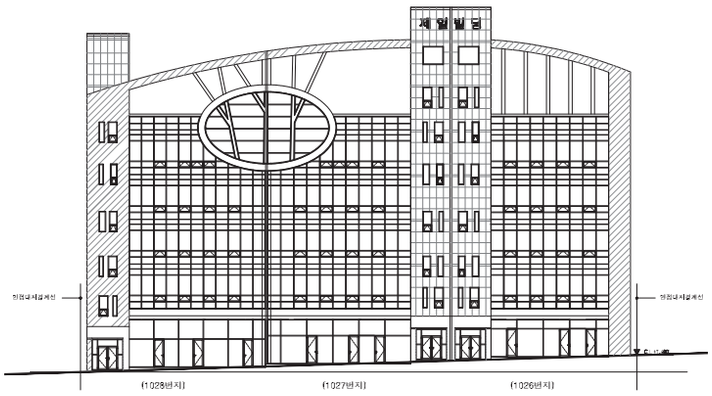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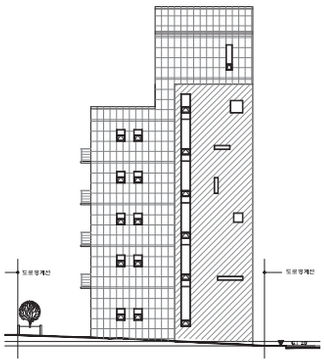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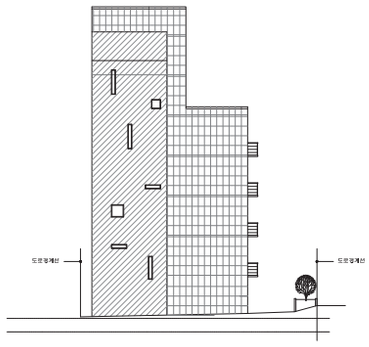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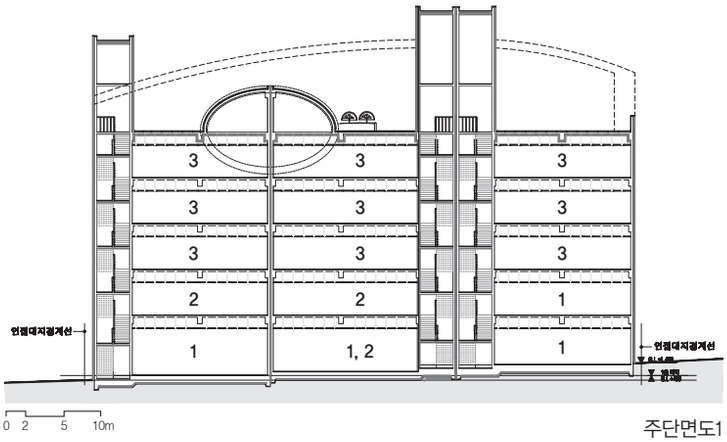
정면도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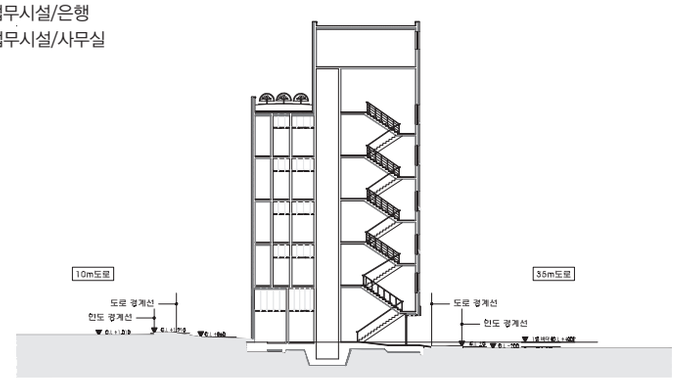


우측면도



주단면도1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업무시설/은행
3. 업무시설/사무실



주단면도2

옥상에서 바라본 건축물

건물 내부

건물 내부 휴게실

고양 원흥 고등학교 _당선작

GOYANG WONHEUNG HIGH SCHOOL

발주자 : 경기도 고양시

설계자 : 노형래 KIRA | (주)건정 종합건축사사무소
조환우 | (주)건축사사무소 시그에이
설계팀 : 장승현, 박근철, 박재광, 유진선, 이수민

대지위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412학 일원
지역/지구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주요용도	교육연구시설(고등학교)
대지면적	14,246㎡
건축면적	4,667.93㎡
연 면 적	12,830.31㎡
건 폐 율	32.77%
용 적 률	90.06%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규 모	지상5층
주요마감	외부-석재마감, 로이복층유리, 목재루버, 알미늄 복합패널, 점토벽돌 내부-고밀도 목재패널, 알미늄 복합패널, 로이복층유리

기본계획

자연환경을 교육환경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자연과 함께하는 창의적이고 정서적인 학습공간을 계획하였다.

배치계획

주출입구와 후면공원을 연계하는 녹지축과 자연으로 열린마당을 형성하고 주민개방영역과 학습영역을 분리하고 교과교실과 특별교실을 이격하여 소음 및 동선을 고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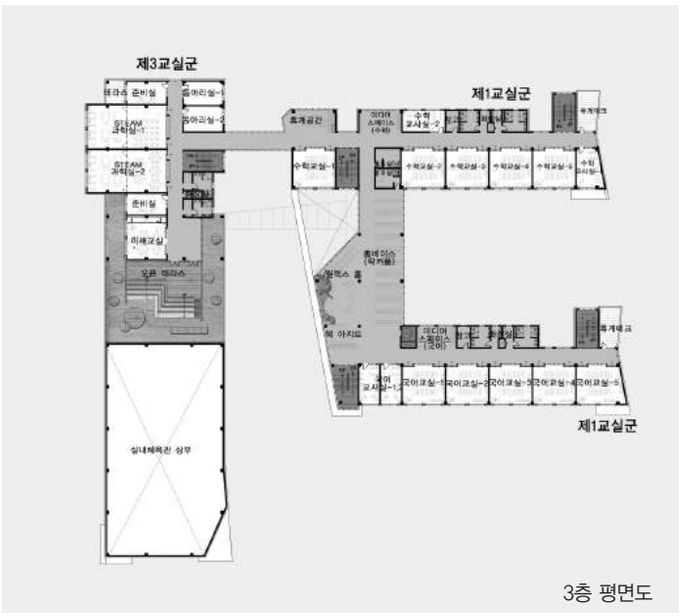
평면계획

각각의 기능을 담는 영역을 데크로 연결시키고 자연을 유입시켜 확장하는 교류의 장을 형성하였고 창의적인 미래교실은 확장을 고려하면서 상징적인 공간을 형성하였다.

입면계획

진입데크에 차경효과를 연출하여 자연환경이 학교공간으로 유입되게 하고 재료와 패턴의 조합으로 기능을 담으며 다양하면서도 하나로 통합되는 입면이 되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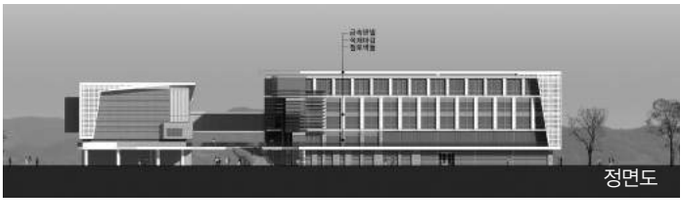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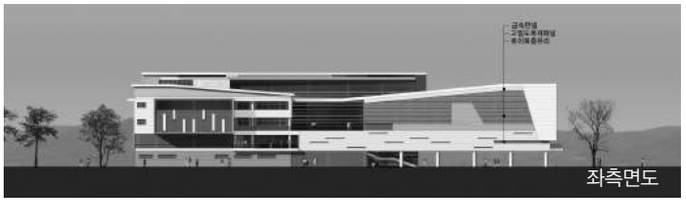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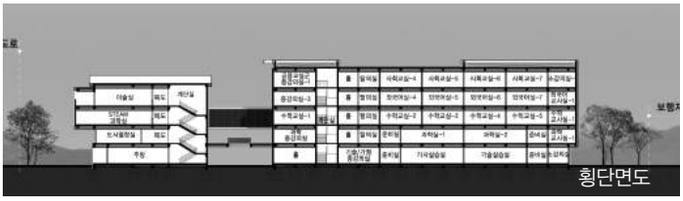
3층 평면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정면도


좌측면도


횡단면도

종단면도

건축주와 사이에 계약관계가 없는 건축사의 설계변경 책임

The Responsibility of a Change of Design Regarding No Contract Between Architect and Client

박시준 |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건축법 제19조의2 제3항은 "공사시공자는 설계도서가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여건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주 및 공사감리자의 동의를 얻어 서면으로 설계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주와 계약관계 없는 건축사가 설계변경 요청에 불응하여 건축주가 피해를 입은 경우 건축사가 건축주에 대하여 건축법 제19조의2 제3항 위반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까요?

대법원 2009.4.9. 선고 2008다72776 판결은 '그렇지 않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위 판결 사안에서 건축주는 건물 증축공사의 설계 등에 관한 업무를 A에게 도급을 주었고, 건축사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A는 종합건축사사무소인 B에 위 설계에 관한 용역을 하도급을 주어 B에 소속된 건축사 C가 위 설계업무를 맡아 이를 완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공사가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위 설계도면이 공사현장과 맞지 않아 시공이 불가능해졌고, 이에 C에게 그 보완을 요청하였습니다. C는 보완설계도면을 작성하여 A에 납품하였으나, 건축주로부터 보수의 일부를 받지 못한 A는 이를 이유로 건축주에 보완설계도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건축주는 다른 건축사인 D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설계도면의 하자를 수정하는 내용의 보완설계도면을 제공받은 후 D에게 지급한 비용만큼 C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위 판결에서 건축사가 건축주에 대하여 건축법 제19조의2 제3항 위반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건축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건축법 제19조의2 제3항의 설계자는 시공자 및 건축주 등과의 계약 기타의 방법으로 관계를 맺은 자임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 · 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 기능 ·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및 감리자 등 업무주인 각 건축관계자를 적용대상으로 하여 상호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과 범위를 규정한 법률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5.12.22. 선고 2003도3984 판결 등 참조), 계약 당사자 아닌 개인인 건축사를 적

건축주와 계약관계 없는 건축사가 설계변경 요청에 불응하여 건축주가 피해를 입은 경우 건축사가 건축주에 대하여 건축법 제19조의2 제3항 위반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까요?

대법원 2009.4.9. 선고 2008다72776 판결은 '그렇지 않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축사법' 상 건축사 개념과 달리 '건축법' 상 '설계자'는 시공자 및 건축주 등과의 계약 기타의 방법으로 독립한 법인격을 지닌 업무주로서의 설계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건축설계 변경의 필요성을 예정한 규정으로서 그 설계변경에 따르는 추가설계대금이나 하자보수, 손해배상 기타 권리관계의 정산이 요구되는 '건축법' 제19조의2 제3항의 해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위 판례사안에서 건축주는 건축사 C가 건축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건축사법' 제20조 제1항은 "건축사는 이 법, 「건축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지키고, 건축물의 안전 · 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사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써, 건축사법에서 정하는 건축사의 자격규정 및 전문가로서의 건축사의 지위 등에 비추어 '건축사법' 제20조에서 정한 업무상 성실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건축주의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의 각 주체로 정한 건축사는 설계 등 계약 당사자로서의 건축사에 한정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 사안에서 건축주의 손해는 건축사인 C가 설계도면 보완요청에 불응하였음을 전제로 발생하는 손해라 할 것인데, '건축법' 상 설계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C에게 설계변경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C가 보완설계도면을 작성하여 B 종합건축사사무소에 하도급을 준 A에게 납품한 이상, 설령 그 후에 A가 계약관계에 있는 건축주의 보수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건축주에게 이를 교부하지 않는 바람에 건축주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그것이 '건축사법' 제20조 제1항에 반하는 C의 위법한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위 사안에서 건축사 C가 '건축법' 제19조의2 제3항 및 '건축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을 근거로 한 건축주의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인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조금 복잡할 수는 있으나 위와 같은 판례 및 법리의 소개가 건축사분들의 업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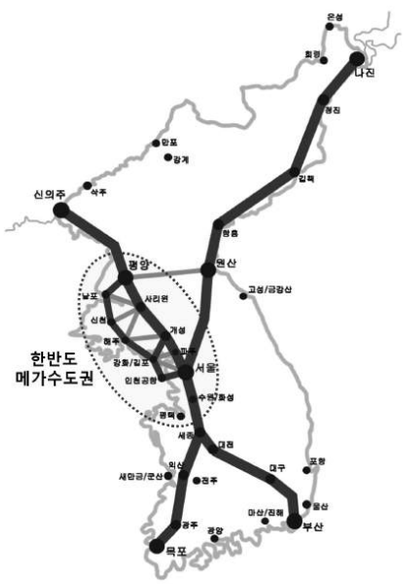
서울–평양 네트워크 경제권 구상

The Establishment of Network Economy between Seoul and Pyongyang

한반도의 미래 신성장 동력, 창조경제를 위한 새로운 제안

향후 한국 건축계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을 들자면 '남북통일'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부터 교통 · 통신 · 에너지 인프라 구축과 도시 기반 시설에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중동 붐을 뛰어넘는 엄청난 물량의 프로젝트들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의 국제정치 상황에 비추어보면 통일은 상당히 요원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와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새로운 관점에서 남북한 경제협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 입장에서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정치적 통합이 미진한 단계에서도 경제적 교류의 확대 가능성을 모색해보는 것이다.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결합하면 한국은 경제 성장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다. 한반도의 미래 신성장 동력을 바로 남북한 경제협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창조경제의 새로운 방향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필자 | 민경태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 박사, 경제 · IT 전공

1992년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연세대학교 공과대학원에서 '건축역사 · 이론 및 도시설계' 분야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4년부터 2000년까지 삼성건설에서 싱가포르 현장 등 해외 프로젝트를 담당하였으며, 이후 건축 디자인과 IT를 접목한 벤처기업 데코드림(주)를 공동 창업하여 운영하였다. 2003년 영국 옥스포드대학교 MBA 과정을 졸업하고, 현재까지 삼성전자에서 신기술 소싱, 기술벤처 투자, 대외협력 업무 등을 담당해왔으며, 2013년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I 한반도 경제 성장의 새로운 방향

New Strategy for the Economic Growth of Korean Peninsula

새로운 성장 전략과 한국 건축계

세계 경제의 침체 상황에서 각국은 저마다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한국도 이제 몇몇 산업분야를 제외하고는 주요산업의 성장 동력을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이와 같이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한반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할 때이다. 특히 그 동안 간과했던 남북한 경제협력의 잠재력을 다시 돌아보고, 한반도의 미래 설계에 북한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의 남북한 관계는 정치 · 이념 · 군사 · 사회적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진행되어 왔으며, 이들에 비해 경제적 문제는 상대적으로 보조적 역할에 그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생각을 바꾸어서, 경제적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남북한 문제의 엉킨 실타래를 풀어 나가는 것을 시도해 보아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적 경제협력이 주변 국가들의 실질적인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구상하고 이를 설득할 수 있다면 남북한 통일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얻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경제협력을 통해 동북아에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고 이 과정에 참여한 주체들이 함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군사적 긴장지대였던 북한을 평화지역으로 변화시키고 글로벌 경제 중심지로 전환시키는 것은 멋진 일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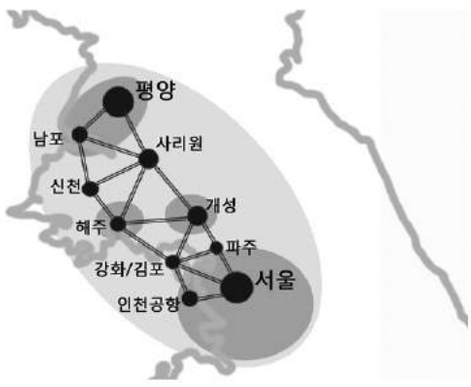


그림 1. 서울–평양 네트워크 경제권 개념도 [1]

새로운 경제협력 방안은 남한이 일방적으로 북한을 지원하는 형태가 아니라, 남북한이 상생적인 협력을 통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남북한 경제협력 방안으로, 서울과 평양을 연결하는 경의선축과 인근 서해안 거점도시들을 서로 연계하는 '서울–평양 네트워크 경제권'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지역을 인구와 산업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남북한 공동의 초국경적 광역경제권으로 만들게 되면, 초고속 교통 · 통신망 등 네트워크 인프라를 통해 남한의 산업역량이 급속하게 북한으로 확산될 수 있으며, 동시에 북한의 상대적 경쟁력을 남한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상생적 경제활동의 무대가 마련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제안이 현실화 될 수 있다면 한국 경제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제 남북한 경제협력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생존과 번영에 직결된 문제이다. 특히, 남북한 경제협력의 초기단계에서 구축되어야 하는 막대한 인프라 시설을 위해서는 한국 건축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단순히 교통 및 에너지 인프라에 그치지 않고, 북한 주요 도시들의 기반시설을 전반적으로 새롭게 구축하고 다양한 건축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해야만 하기 때문에 도시설계, 건축, 토목, 엔지니어링 등 관련 업계 전반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비록 현재는 그러한 변화의 가능성이 낮아 보이지만, 일단 변화가 시작되면 한국의 관련 업계에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기업들도 대거 진출하게 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한국의 건축계가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고 적절한 전략을 준비해야만 하는 이유이다.

남북한의 유기적 통합 과정

남북한의 새로운 경제협력 방식은 기존과는 다른 접근을 필요로 한다. 북한에 대한 남한의 일방적 투자나 지원을 통해 경제 상황을 단기적으로 호전시키려는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남

1) 민경태, 『서울–평양 네트워크 경제권 구축을 통한 한반도 성장전략 구상』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p. 97.

북한이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단순한 경제적 교류와 지원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의 생명체와도 같이 남북한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의 경제가 상호보완적으로 연계되고, 산업의 융합적 구조 형성을 통해서 각자의 장점과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각자가 원래 보유하고 있었던 비교우위의 경쟁력은 적극 활용하되, 열세인 산업부문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중복투자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의 분업구조를 재편하고 긴밀한 산업협력 체계를 구현함으로써, 마치 동일한 국가영역 내에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듯 원활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상호보완적 산업구조 형성을 위해 분업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은 마치 생명체에서 유기적인 융합이 일어나는 과정에 비유할 수 있다. 생명체에서 세포융합(cell fusion) 현상이 나타날 때와 같이, 분리되어 있던 남북한이 다시 상호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하나의 경제 시스템으로 통합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생명공학적 세포융합 과정이 두 세포의 우성 형질은 모두 포함하되 열성형질은 제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과 같이, 남북한의 비효율적인 산업을 구조조정하고 상호보완적 분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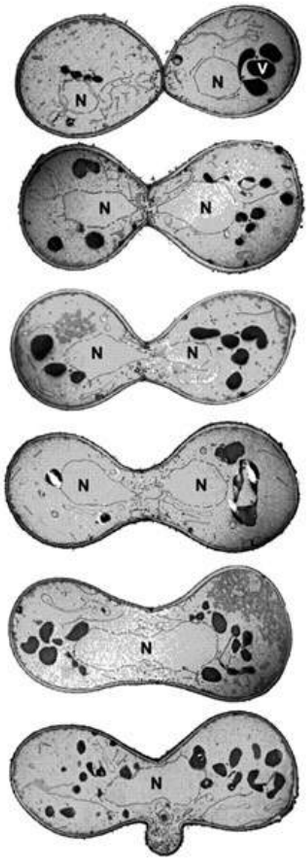


그림 2. 세포융합 과정 [2]

〈그림 2〉에서 보이는 세포융합은 두 개의 세포를 구분하고 있었던 세포막이 사라지고, 점차 핵과 세포 구조물이 융합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세포융합의 초기 단계에서는 접합관이 형성되면서 세포벽을 분해하여 세포질이 서로 융합될 수 있도록 변화하게 되는데, 남북한의 통합과정에서 물류 · 에너지 · 정보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네트워크 인프라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또한 세포질 융합 과정은 각 기능이 서로 연계되는 분업구조 재편 과정에, 세포핵 융합 과정은 원활한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제도적 통합 단계까지 발전시켜 나가는 것에 비유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유기적 경제통합을 전제로 한다면, 북한의 낙후된 경제 상황은 남한과의 협력에서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줄 수 있다. 남북한의 경제적 차이가 독일 경제 통합에서 동서독의 차이보다 훨씬 크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장점으로 활용될 수도 있는 것이다. 산업을 구성하는 기술 혁신 수준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남북한의 산업 분업구조를 새롭게 재편하여 상호보완적인 역할 분담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즉, 북한은 기술 혁신도가 낮은 노동 · 자원 기반의 산업을 담당하고, 남한은 기술 혁신도가 높은 설비 · 장치 중심의 산업을 담당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남한에 비해 상대적 경쟁력이 낮은 설비 · 장치 기반의 제조업 분야를 포기하는 대신에, 신경제 체제하에서 새로운 게임의 룰이 적용되는 지식 · 네트워크 기반의 신성장산업 분야를 남한의 지원을 받아 추진해 볼 수 있다.

〈표 1〉 세포 융합과 남북한 통합의 비교 [3]

단 계	세포 융합	남북한 통합
1단계	접합관 형성	정보 · 물류 · 에너지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세포벽 분해	
2단계	세포질 융합	분업구조 재편, 상호보완적 경제협력 활성화
3단계	세포핵 융합	경제협력 성숙, 제도적 통합으로 발전

수도권의 초국경적 협력 가능성

〈표 1〉에서 제시한 남북한 통합의 단계는 생물세포의 융합과정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 대입해 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한반도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난관이 예상되는데, 그 중에서도 북한의 전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에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의 경제통합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남한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협력대상 지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과거의 방식과 같이 소규모 경제 특구를 운용하는 것만으로는 북한 경제 성장을 의미 있는 수준으로 견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남한 경제를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에도 역부족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평양 경제권을 대상으로 우선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서울과 평양을 연결하는 지역은 비록 공간적으로는 약 200km 거리에 불과하지만, 남북한 주요 산업의 중심이자 인구가

2) 효모접합(酵母接合, yeast mating) 과정, Rose & Gammie Lab, Molecular Biology, Princeton University
3) 민경태, 『서울–평양 네트워크 경제권 구축을 통한 한반도 성장전략 구상』, p. 8.

집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한반도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평양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인프라를 통해 남북한 산업의 유기적인 협력구조를 구축하고, 네트워크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초국경적 광역경제권을 육성하는 것은 한반도 성장 전략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남북한의 경제협력에 적용하는 것은 기존에는 시도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방향이지만, 이미 세계 각지에서 확산되고 있는 초국경적 경제 협력의 양상을 살펴보면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남북한의 정치적 통합은 유보한 상태일지라도, 산업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서 우선 경제 시스템을 서로 연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지 살펴보자.

실제로 한 국가의 정치적 영역을 초월하여 이루어지는 경제적 협력이 역사적으로 볼 때 결코 새로운 것은 아니다. 자본, 노동력, 상품, 원자재, 여행객 등 초국경적 흐름은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다. 그러나 과거의 초국경적 경제활동이 국가 체제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었던 반면, 1980년대 이후 국가 경제가 해외기업들에게 개방되고 경제 주체들이 글로벌 시장에 참여하게 되면서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국가의 역할이 감소되고 국경의 구분이 희미해지면서, 도시들과 지역을 아우르고 국경을 초월하는 협력지대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초국경적 M&A가 진행되고, 외국 기업들의 네트워크가 확장되며, 글로벌 금융시장으로 편입이 진행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초국경적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들을 연계하는 네트워크도 함께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초국경적 경제협력이 확대됨에 따라서, 심지어 인접한 도시간의 경제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국가(Region States)'의 개념을 민족국가의 개념보다 의미 있는 영토적 분리선으로 주장하는 의견도 있었다. 오마에 겐이치는 'The End of the Nation State'(1995)에서 국경을 초월하는 세계도시들의 경제적 협력관계를 강조하면서, 이러한 흐름을 민족국가의 쇠퇴 및 새로운 지역국가의 부상이라고 표현하였다.

사례로든 홍콩 및 주변지역의 관계에서는 홍콩 경제의 발전이 선전(深圳)을 넘어 광둥성(廣東省)의 다른 여러 지역들까지 폭넓게 영향을 주었음을 강조하고, 이러한 초국경적 지역간 협력이 앞으로 세계 도처에서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비록 민족국가의 개념이 실제로 종말을 맞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경제적 협력이 정치적 영역을 초월하여 보다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지적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표 2〉 홍콩–광둥성 경제협력 모델의 한반도 적용 [4]

단 계	중국의 사례	한반도 적용
① 초기협력	홍콩 – 선전 경제특구	서울 – 개성공단 경제특구 (개성공단 모델)
② 확대발전	홍콩 – 광둥성 전체지역	서울 · 인천 – 개성 · 해주 – 평양 · 남포 (서울 – 평양 경제권 모델)

초국경적 경제협력이 발생하고 있는 공간적 배경은 주로 세계적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한다. 이러한 대도시들은 네트워크로 서로 연계되어 협력하는 관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른 도시들보다 많은 네트워크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 관계에 놓여 있기도 하다. 동아일보와 모니터그룹은 글로벌 광역경제권을 '메가시티리전(Mega City Region, MCR)'으로 지칭하고, 세계적인 대도시권의 경쟁력을 평가하여 발표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대도시권이 새로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자 성장의 기반으로서, 이제는 한 국가의 역량이 대도시권의 역량에 좌우되는 시대가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초국경적 경제협력은 글로벌 경쟁의 패러다임도 변화시키고 있으며, 기존의 국가 단위 경쟁으로부터 초국경적 광역경제권 단위로 글로벌 경쟁이 재편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도 이제는 경제 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수도권이 세계적인 광역경제권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확장시키고 미래 사회에 적합한 도시기반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등 역량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그 확장의 범위를 이제는 남한 지역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북한 지역을 포함해서 수도권의 공간적 확장을 추진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남한의 수도권과 북한의 평양 · 남포 및 인근의 서해안 주요 도시들을 포함하면, 한반도 전체 인구의 약 50% 이상이 거주하고 주요 산업시설이 배치되어 있는 핵심적인 지역이다. 이 지역의 도시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면 한반도의 미래 경제성장을 이끌어 갈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의 중심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점점 진보되고 있는 교통 · 통신 기술을 적용하여 고도화된 네트워크로 연결하면 서울–평양간의 공간적 · 물리적 제약은 더욱 감소될 것이다.

네트워크 경제의 적용 가능성

서울–평양 경제권의 도시들을 네트워크 인프라로 긴밀하게 연결하면 남북한 산업의 유기적인 통합을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이론적 배경은 '네트워크 경제'라는 개념이다. 이는 기존의 남북한 산업협력 방안에서는 아직 체계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서, 기술발전을 통해서 새롭게 등장한 신경제적 패러다임에 속하는 영역이다.

4) 민경태, 『서울–평양 네트워크 경제권 구축을 통한 한반도 성장전략 구상』, p.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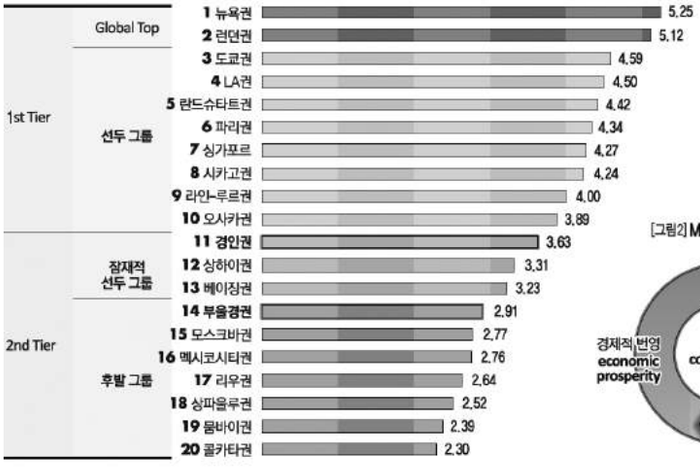


그림 3. MCR 경쟁력 순위 [5]

네트워크 경제 이론의 도입은 남북한의 경제 협력 방식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서 서울–평양간의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두 지역을 동일한 경제권으로 통합시킴으로써, 남한의 발전된 산업 및 인프라 역량을 단기간에 북한으로 파급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전략 모색이 가능하게 된다.

제러미 리프킨은 'The Age of Access'(2000)에서 시장은 네트워크에 자리를 내주며 소유는 접속으로 바뀐다고 주장하였다. 새로운 네트워크 경제 체제에서는 물적 자본에 대한 소유권보다는 접속할 수 있는 권리가 중요하며, 부의 창출도 물적 자본에서 나오지 않고 개념, 아이디어, 이미지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은 기존 경제체제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이에 따라 정치제도와 법, 그리고 인간형의 변화까지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인류사회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게 될 것이다.

마뉴엘 카스텔은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2000)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신경제(New Economy)의 특성을 정보화(Informationalism), 지구화(Globalization), 네트워크화(Networking)로 정리하였다. 정보화는 신경제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지식기반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생성 · 가공 · 적용하는 능력에 달려있다는 관점에서, 지구화는 생산 · 소비 · 순환의 핵심적인 활동과 그 구성요소가 경제행위자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구적 규모로 조직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네트워크화는 다양한 비즈니스가 네트워크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산성과 경쟁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관점에서 본 것이다. 미래에는 경제 발전을 위해 기술과 지식을 적용하여 관리 · 경영하는 것이 점점 심화되고, 이를 통해 정보 네트워크에 대한 상호의존도가 깊은 경제가 출현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기술 혁신을 통해 급변하는 경제적 환경은 새로운 경제 체제의 도래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다. 기존의 경제 체제가 선형적인 기술 발전을 바탕으로 한다면, 새롭게 도래하고 있는 신경제 체제는 기하급수적 기술 발전을 통해 보다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 새로운 게임의 룰을 적용하게 되면, 산업 발전을 이미 달성한 국가들의 경쟁력 우위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네트워크로 연결된 환경에서는 '네트워크 외부성(externalities)'으로 인해 새로운 경제적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의 남북한 산업협력 개념으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으로서, 개별기업 또는 중소규모 경제특구 차원의 협력을 뛰어넘는 경제적 이익이 한반도 차원의 남북한 전체 경제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남북한 분업 구조를 재편하여 이루게 될 미래 한반도의 새로운 성장 시스템은 지금까지의 경제체제와는 성격을 달리하게 될 것이다. 새롭게 육성되는 산업은 자본과 기술, 대규모의 생산설비 등 양적 성장시대의 경쟁력을 결정지었던 물질적 토대와는 거리가 먼 것일 수도 있다. 신경제 체제에서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기존의 공간적 시장 개념이 필요 없는 사회로 발전하고 있으며, 중심산업도 생산기술 위주의 제조업에서 창의력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영역으로 진화하고 있다. 경제 활동을 이루는 생산요소의 형태가 변화하고 있으며, 물질적 기반을 소유하는 것에서 접속하는 것으로 경제활동의 개념이 바뀐다는 것은 새로운 가능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시스템이 네트워크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물질적 생산요소를 반드시 '소유'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남한이 보유한 산업 역량과 인프라에 대한 '접속'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제성장의 동력을 갖출 수 있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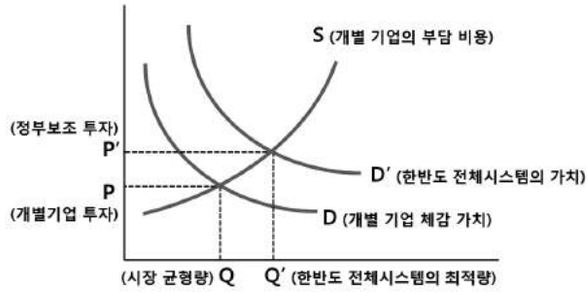


그림 4. 네트워크 외부성과 한반도 전체시스템의 수익성 [6]

5) 박영훈, "'Mega City Region'은 국가 도약의 플랫폼," 『Dong-A Business Review』, Vol. 37 (2009년 7월), p. 59.
6) 민경태, 『서울–평양 네트워크 경제권 구축을 통한 한반도 성장전략 구상』, p. 67.

추론이 가능하다. 이러한 네트워크 경제의 등장은 남북한 경제협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네트워크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남북한이 함께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고 미래 한반도의 도약적 성장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정치 · 경제적 환경 조건

본 구상은 남북한의 경제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상적인 조건을 가정한 것으로서, 정치적 요인은 모두 해결된 상태를 전제로 한반도 경제 성장을 위한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초국경적 경제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적 조건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특히, 경제협력이 이루어지는 공간적인 배경이 국가 정치의 중심인 수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남북한 정치 체제의 차이가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교류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일련의 정치적인 변화를 통해서 남북한이 동일한 제도적 체계를 갖추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협력에 앞서 정치적 통합을 기대하는 것은 오늘날의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오히려 점진적인 경제적 교류를 통해서 정치적 긴장의 완화를 추구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치적으로 큰 변화가 선행되기 이전의 상황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경제협력 모델의 구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회주의 체제하에 있는 중국의 광둥성과 홍콩 간의 성공적인 경제협력 사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형태의 협력을 위해서는 남북한의 정치적 체제가 반드시 하나로 통합되는 단계가 아니더라도, 상호 적대적인 긴장 상태를 해소하는 수준으로 변화하게 되면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는 2개의 국가로 유지되지만 경제적으로 연계가 심화된 초국경적 광역경제권의 형성을 초기 단계의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남한과 북한이 각각 자율적인 경제체제를 유지하되, 물류의 이동은 자유로운 상태를 가정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에서 생산된 제품이 글로벌 시장으로 원활하게 수출될 수 있도록 제도적 · 정책적 개선과 보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광역경제권내의 교류가 성숙되어 감에 따라서, 경제활동을 관장하는 남북한 공동의 행정적 운영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비록 남북한이 각자 자율적인 경제체제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서울–평양 경제권의 경제활동에 있어서는 하나의 국가와도 같은 경제 단위로서 긴밀히 기능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남북 간의 인력이동 제한 및 임금수준의 격차 유지는 일정한 단계까지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인력의 이동은 방향성을 부여하여 일정 수준으로 제어할 필요가 있는데, 상당기간 남북한 주민의 이주권을 제한해야 할 수도 있다. 동독의 사례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듯이, 남한의 일방적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남한과 북한의 소득 및 복지 수준의 격차를 일정기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의 경제협력 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정치 · 사회적 안정이 매우 중요하며, 아울러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한반도 주변 국가들과의 우호적 관계를 통해서 남북한의 협력을 지지하는 분위기 형성이 중요하며, 특히 남북한의 평화 유지가 주변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도 긍정적임을 지속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의 협력이 점점 심화되고 정치적 안정 상태가 지속되면, 중국과 홍콩의 관계와 같은 '일국양제'를 통해서 남북한의 점진적 통합을 추진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에서도 정치적으로는 두 개의 국가로 기능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초국경적 광역경제권에서 원활하게 교류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협력 관계를 시도해 보는 것이다.

그림 5. 한반도 메가수도권의 지리경제학적 중요성 [7]

남북한의 정치적 통합이 실현되는 미래에는 서울–평양 경제권을 '한반도 메가수도권'으로 발전시켜 수도의 기능을 역내 도시들에 분산 배치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미래의 서울–평양 메가수도권은 한반도의 중심으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중추적 거점이자 글로벌 광역경제권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7) 민경태, 『서울–평양 네트워크 경제권 구축을 통한 한반도 성장전략 구상』, p. 96.

한옥은 근대를 어떻게 맞이했나? 2.

Hanok's Response to modern Society and Change 2.

안창모 | 경기대학교 대학원 건축설계학과 교수, 역사문화환경보존프로그램 주임교수

한옥이 근대를 어떻게 맞이했는가?에 대한 질문과 함께 시작된 지난 호와 금번 호의 연재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한옥들이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등장했고, 이 시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한옥들이 조선이 대한제국으로 전환되어가는 시점 그리고 대한제국이 식민지로 전락한 후 일제강점지배 시스템이 구축되는 과정에서 한인들의 삶을 담당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시설 종별로 한옥을 받아들이는 주체가 달랐다는 점이다.

금번 호에 소개하는 한옥들은 우리가 아닌 외지인에 의한 한옥들이다. 그 중에서 종교시설의 경우는 구미인들에 의한 선택이었고, 나머지 시설들은 일인들에 의한 선택이었다.

한옥 종교건축

이 땅에 가장 먼저 전래된 서양종교인 가톨릭의 성당 중 현존하는 서울과 대구 그리고 전주를 비롯하여 많은 도시에 지어진 성당들은 서양의 역사주의 양식건축을 벽돌로 번안하여 건축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러한 조적조 서양의 교회건축이 가톨릭이나 개신교의 전래 초기의 모습은 아니다. 큰 틀에서 도시에서는 붉은 벽돌교회건축이 지어지고, 비도시 지역에는 전통건축을 이용한 교회건축이 지어졌지만, 외래 종교의 전래 초기에는 지역의 구분 없이 기존의 한옥건축을 종교시설로 이용했다. 이는 초기교회건축과 도시권을 벗어난 지역의 경우 경제적인 문제외에도 보편화되지 않은 근대건축술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성당이 지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기와 비도시권의 종교건축은 대부분 기존의 한옥을 개조해서 사용하거나, 한옥으로 서양의 다양한 교회형식을 번안하였다. 이는 가톨릭과 개신교 그리고 성공회 성당은 교파에 관계없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한옥교회는 크게 4가지 평면으로 구별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강화도 성공회성당이며 현존하는 성당에서 가장 많은 유형이다. 이러한 류의 성당은 2고주(高柱), 7량(梁)구조를 갖는 한옥성당으로 2개의 고주 사이에 신도석이 위치하고 그 양편으로 복도가 위치하는 전형적인 바실리카식교회의 공간구조를 갖고 있으며 평면의 형식은 라틴크로스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성당은 언덕 위에 위치했지만 축선 상에 정문과 종루 그리고 예배공간의 배치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전통적인 사찰건축의 예와 유사하다. 한편, 예배공간의 일반적인 전통건축과는 달리 단변을 통해 진입되었는데, 이는 초기 기독교건축에서 로마시대 바실리카의 단면을 주출입구로 삼아 공회당을 종교시설로 전환시킨 것과 유사한 방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구성된 예배 공간은 중층의 지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지붕의 높이 차이가 나는 곳에 고측창을 설치하여 내부 채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처리 역시 서양교회건축에서 회중석과 복도의 높이 차이에 의한 채광을 시도한 클리어스토리(Clearstory, 고측창)의 원리와 같다. 장변의 측면에는 돌출된 트란셉은 없지만 양쪽에 출입문이 설치되어 트란셉(Trancept)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 다른 형식으로 그릭크로스 형식의 한옥교회가 있다. 대구의 초기 계산성당이 그 예다. 1899년에 김보록 바오로 신부(Archille Pal Robert)에 의해 건축된 첫 계산성당은 전형적인 그릭크로스(Greek Cross)의 형태를 갖고 있었다. 그러

그림 1. 성공회 강화성당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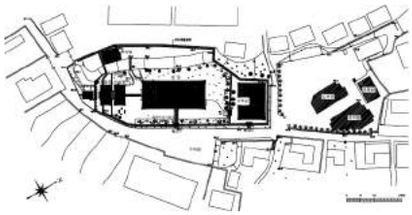


그림 2. 성공회 강화성당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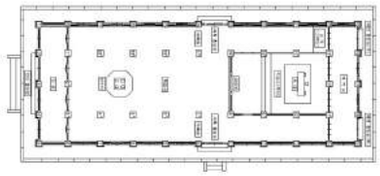


그림 3. 성공회 강화성당 평면도

나 평면구성과는 달리 매스는 전형적인 한옥의 모습이었다. 이전에 건축된 중림동성당(1892, 서울), 명동성당(1898, 서울), 답동성당(1896, 인천)이 모두 서양식 교회건축을 모델로 건축되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대구의 첫 성당이 전통건축으로 지어진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계산성당은 가로 세로 8칸의 길이를 갖고 있지만, 각 방향으로 각각 4칸의 전면이 2칸 씩 돌출되어 있다.(그림 참조). 십자형 평면의 한옥 계산성당은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았던 평면형식이었지만(다양한 형태의 정자 제외) 전통 목구조가 다양한 유형의 공간구조에 적응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준공된 지 40일만인 1900년 2월 4일 화재로 인해 십자형성당이 소실되었다. 당시 김보록 신부는 파리외방전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한국 건축양식의 걸작으로 그토록 많은 노력과 정성을 들였던 아름다운 노틀담(성모 마리아)의 루르드성당이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화 하였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화재는 지진으로 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재건된 성당은 로마네스크양식의 라틴크로스 형식을 갖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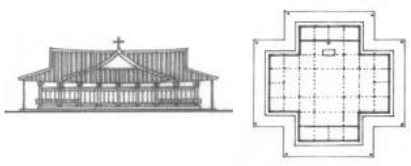


그림 4. 초기 계산성당의 평면과 입면(그림:김정신)

그림 5. 계산성당 초기 한옥교회모습과 사제관

그림 6. 소실 후 다시 건축된 계산성당

세 번째 유형으로는 화산성당이 있다. 화산성당은 장방형의 평면으로 외관상 여느 붉은 벽돌 교회건축과 차이가 없지만, 현재의 교회 정면은 1916년에 증개축된 것이다. 최초의 성당은 1906년에 전통건축형식으로 건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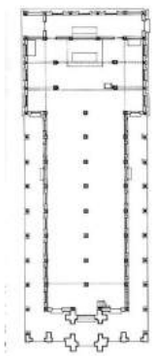


그림 7. 화산성당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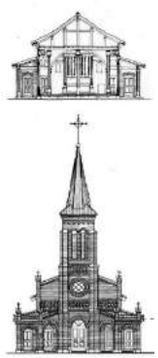


그림 8. 화산성당 현 정면과 단면

그림 9. 화산성당 내부, 중앙의 기둥에는 장막이 쳐져서 남녀의 공간을 구분했다.

그림7의 평면도는 장방형 평면이지만 공간 구성의 내용이 독특하다. 장방형의 실내공간은 하나의 긴 홀이나 중앙의 회중석과 양쪽에 복도가 위치하는 3랑식 구성이 아닌 2개의 세로로 긴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남녀가 유별한 우리의 전통에서 남녀를 하나의 공간에 수용하는 방식으로 두동교회와 같은 'ㄱ'자형 평면과 역할은 같지만 공간구성은 다른 모습이다. 한편, 건물의 외부에 회랑이 둘러쳐져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회랑은 길게 내민 처마를 받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미사를 행하는 과정에서 영성체를 모시는 동선을 외부로 수용하는 효과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네 번째 유형으로 두동교회의 'ㄱ'자형 평면이 있다. 두동교회는 1929년에 건축되었으며 'ㄱ'자형 평면의 모서리에 제단을 설치하고 양쪽 공간에 남과 녀를 각각 앉도록 했다. 남북축 축상의 공간에 남자가 앉고 동서축 공간에 여자가 앉았다. 실내는 회중석과 복도의 구분이 없는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10. 두동교회 전경

그림 11. 두동교회, 제단에서 바라본 내부 모습

마지막으로 강경의 북옥감리교회와 같이 회중석과 복도의 구분이 없을 뿐 아니라 남녀공간에 대한 구분이 없는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된 예다. 북옥감리교회는 1920년에 건축되었다. 전면 4칸과 측면 4칸으로 구성된 정방형에 가까운 공간으로 구성되었으며 팔작지붕으로 구성되었다. 정면은 좌우에 각각 출

입문이 설치되어 있다. 정면4칸과 측면4칸의 정방형 공간은 우리나라에는 흔치 않은 공간구성인데, 이는 근대기 대공간을 필요로 하는 예배공간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중앙의 고주에 남과 여의 공간을 구분하는 장막을 설치하였다고 한다.

그림 12. 북옥감리교회 전경

예배공간을 남과 여의 공간으로 구분하는 것은 화산성당이나 두동교회와 개념적으로 같지만, 공간의 규모 등으로 인해 공간구조가 아닌 실내 장막에 의한 구분이 이루어졌다. 공간구조적인 측면에서는 하나의 큰 홀을 이루고 있어 Hall Church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밖에도 한옥 종교건축으로 고산성당(1894), 평양성당(1895), 공세리성당(1897, 공주), 청계성당(1898), 장호원성당(1893, 장호원), 수류성당(1907), 구포성당(1922, 안성), 북옥감리교회(1923, 강경) 등이 있다.

한옥 박람회건축

서양박람회의 한국관_파리박람회

우리가 처음으로 참가한 해외박람회는 1893년의 시카고박람회였지만, 한국관이 독립적으로 지어진 것은 1900년의 파리박람회였다. 당시 한국관은 경복궁의 근정전을 모델로 지어졌으며, 그 모습은 그림과 같다. 20세기 전반은 박람회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많은 박람회가 개최되었는데, 일본도 예외가 아니었다. 일제강점기간 동안 일본의 지배하의 동아시아에서는 각종 공진회와 박람회가 일본 내에서는 물론 만주와 대만 등에서 개최되었고, 조선도 참가하였다. 전체 참여 박람회의 전모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조선의 참가가 확인된 박람회에서 조선관은 예외 없이 조선의 전통건축양식으로 지어졌다. 전시장의 입지와 용도에 따라 다양한 양식의 변용이 이루었는데, 조선 전래의 건축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은 이질적인 매스의 결합과 다각형의 지붕 처리를 비롯하여 현관부의 처리에서 양식적 변용이 두드러졌다.

당시 조선관은 전통건축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통건축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전시기능을 갖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전통건축의 공간구조와 새로운 공간구조가 반영되는 외관의 모습은 전통건축의 모습과는 달라졌다. 파리박람회에서 한국관이 근정전을 모델로 한 것도 대공간을 필요로 하는 전시장의 성격을 감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에서 개최된 박람회의 한국관 역시 대공간으로 지어졌지만, 매스를 분절하고 부분적으로 중층구조를 도입하여 큰 전시장의 매스를 전통건축의 비례감을 갖는 작은 덩어리로 분절하도록 디자인되었다.

식민지박람회_조선물산공진회와 조선박람회의 건축양식

이 땅에서 개최된 최초의 박람회는 대한제국기인 1907년에 개최된 경성박람회로 1907년 9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개최되었다. 이중화의 '京城記略'에 따르면 한일 양국의 생산품과 공예품을 진열해 한일 양국 국민들의 사교적 융화를 도모하고, 한국의 산업과 문화를 진작시키고 한일 무역의 성운을 유지하는데 있다고 밝혔으나, 실제 전시된 내용은 일본 제품 일색이었다고 한다. 전시관은 서양건축의 모습을 갖추었다.

그림 13. 1900년 파리박람회의 한국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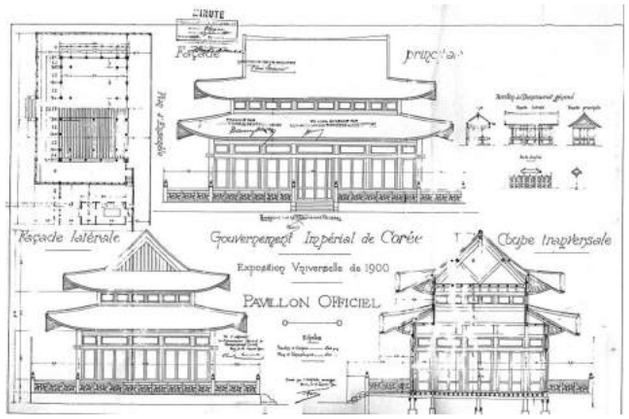


그림 14. 파리박람회 한국관 도면(출처 : 정동1900에서 재인용)

1907년 조선에서 최초의 박람회가 개최된 이후, 1915년의 조선물산공진회와 1929년의 조선박람회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박람회와 공진회가 개최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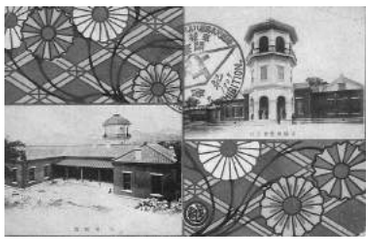


그림 15. 경성박람회장, 1907

그림 16. 조선박람회 조감도, 1929

그림 17. 조선박람회 전경

그림 18. 조선박람회 각도 번세관

그림 19. 조선박람회 산업북관

었다. 이중에서 1929년에 개최된 조선박람회는 규모나 내용면에서도 식민지기에 개최된 박람회 중 으뜸이었지만, 주최 측에서 주전시장 건축양식으로 조선의 전통건축양식을 채택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의 전시관이 르네상스양식 또는 세제션양식으로 지어졌던 것과 구별되는 부분일 뿐 아니라 모더니즘 풍으로 건축된 일본 각 부현 특설관과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박람회 전시장은 건춘문 북측에 이축된 광화문을 정문으로 경회루에 이르는 주축 상에 직영관이 배치되었는데, 산업남관, 산업북관, 사회경제관, 미술공예교육관, 심세관 등이 조선건축양식으로 지어졌다. 조선건축양식에 대해서는 당시 조선총독부 건축과장이던 이와이(岩井長三郎)는 '조선인이 갖는 느낌이 좋을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지에서 온 관람자도 조선의 박람회에 대해서는 무언가 조선의 맛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선택했다고 이야기한다.[1)]

이와이의 설명은 조선박람회의 건축양식 선정에 '관광'이라는 상업적 목적성이 개입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조선박람회를 방문하는 일본인에게는 조선의 지방색을 경험케하기 위한 관광차원에서 조선건축양식의 전시관이 마련되었다고 하겠다.

박람회 한옥 전시관과 한옥건축의 변용

전체적으로 조선건축양식으로 지어진 전시관이라 하더라도 원건축양식으로 지어질 수는 없었다. 조선의 전통건축에서 대형전시장에 적합한 건축유형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시관이라는 근대적 기능을 수용하기 위해 전통건축양식에서 구조적으로 또는 양식적으로 변용이 일어나는 것이 불가피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시장이라는 대공간을 구현하기 위해서 전체 외관은 2층의 구조를 갖게 되었는데 이는 2층 부분에서 고측 창을 통해 대공간 전시장에 필요한 채광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과도한 지붕의 볼륨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둘째, 의장적으로 전통건축의 회랑의 이미지가 채용되었으며, 부분적으로는 입구를 강조하기 위해 쌍기둥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셋째, 주출입구를 중앙에 배치하여 중심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1칸을 돌출시켜 중심성과 볼륨감을 부여하였다.

넷째, 각도 번세관의 경우 주출입구 기둥에 돌(또는 돌의 의장)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경회루의 1층 부 기둥의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한옥 박물관건축

대한제국기에 창경궁 안에 박물관이 개설된 이래, 1915년 조선총독부 박물관이 설립되었다. 일본박물관협회가 1932년에 펴낸 '전국박물관안내'에는 조선의 박물관으로 조선총독부 박물관, 조선총독부 박물관 경주분관, 개성부립박물관, 평양부립박물관, 창경원박물관(이왕가박물관)이 소개되어 있다. 박물관 설립은 1920년대 후반에 본격화되었는데, 경성과 평양의 박물관을 제외한 나머지가 지방의 박물관 모두 한옥이라는 점이 주목할 부분이다. 이중에서 개성박물관은 콘크리트로 전통건축양식에 따라 새롭게 지어졌다.

한옥박물관 : 경주박물관, 부여박물관, 공주박물관

그림 20. 경주박물관

경주박물관은 1910년 출범한 경주신라회가 1913년 경주고적 보존회를 발족시킨 후, 경주시 동부동에 있던 옛 객사 건물을 이용

1) '박람회의 건축시설을 어떠한 풍으로 하면 좋을 것인가라는 문제도 상당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중략… 박람회로서는 활기차고 충분히 새로운 맛이 있어 관람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무언가 강한 힘을 지닌 형태나 분위기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즉각적으로 생각되어지는 점입니다. 내지의 박람회를 보아도 가능한 한 새롭고 신선한 양식을 채용하고 색채도 풍부하여 강렬한 분위기를 갖춰 보는 이의 즐거움을 돋우려는 감을 지니고 있으나, 조선에 있어서는 이외에도 도 한 가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여기에 조선의 맛을 나타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조선의 박람회 건물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간취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중략… 그리하면 조선인이 갖는 느낌이 좋을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지에서 온 관람자도 조선의 박람회에 대해서는 무언가 조선의 맛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 틀림없으므로 거기에 딱 맞는 건축시설을 하지 않으면 진정한 조선박람회의 의의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 고심한 것입니다.'('회장의 선정과 건축시설', 조선과건축, 8집 9호, 1929)

그림 21. 부여박물관

그림 22. 공주박물관

하여 신라시대의 출도 유물을 전시하는 지역 박물관으로 설립되었으며, 1926년 총독부 박물관 분관으로 편입되었다.

부여박물관은 1929년 9월 27일 설립된 부여고적보존회를 중심으로 부소산 남쪽에 자리한 조선시대의 객사에 백제관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고, 1939년 4월 1일자로 '조선총독부 박물관 부여분관'이 되었다.

설립된 공주고적보존회가 모태가 되었다. 1927년 가루베 지온에 의해 공주의 송산리 고분이 발굴되면서 1933년 공주사적 현창회가 발족되어 박물관 건립요구가 시작되었다. 이후 1932년 충남도청이 대전으로 이전된 후 총독부의 지원과 민간에서 모금한 기부금을 토대로 선화당(宣化堂)을 복원하여 박물관을 설립하였다.

일제강점기 경주와 부여 및 공주에 설립된 박물관은 유서 깊은 지역의 문화유적을 보존하기 위함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1920년대 이후 일본으로부터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의 일환이었다. 따라서 역사 유적이 풍부한 지역의 경우 기본적으로 박물관을 설치하였지만, 수장품을 위한 환경을 갖춘 박물관이 아니라 식민지 조선의 문화를 관광객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컸다. 전통건축은 소장품을 위한 온습도 조절 기능이나 도난 등 소장품에는 극히 취약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시기에 세워진 경주와 공주 및 공주 박물관은 소장품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기 힘든 기존의 대공간을 가진 조선시대 건축의 재 활용 차원의 건물이었다.

콘크리트 한옥박물관, 개성박물관

진홍섭의 개성박물관 회고에 따르면, 개성부립박물관은 1930년 10월 개성군 송도면이 '개성부'로 승격한 것을 기념하여 초대부윤으로 부임한 김병태의 주선과 개성 시민의 협조로 자남산 남쪽에 터를 닦고 1931년 5월에 기공하여 6개월에 걸친 공사 끝에 1931년 11월 1일 개관하였다고 한다. 초대부윤과 개성시민의 협조로 지어졌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조선총독부의 정책이 강하게 개입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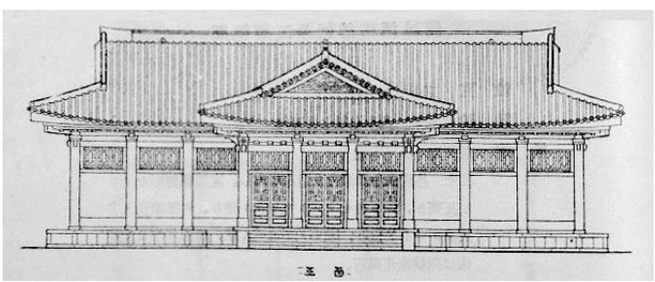


그림 23. 개성박물관 정면

그림 24. 개상박물관 전경

박물관은 건평 87평에 전면 9칸, 측면 4칸의 단층으로 건축되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이지만 팔작 한식기와를 입힌 조선의 전통건축양식으로 지어졌다. 마감재는 분홍색 인조석이었다고 하는데, 이는 인조석 물갈기 마감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중앙의 3칸을 이용하여 주출입구로 삼았고, 기둥은 높고 위에서만 채광이 되었다고 한다. 이는 박물관의 기능을 고려한 채광방식이 채택되었음을 보여준다. 주출입구의 반칸 돌출된 팔작지붕의 박공면처리는 한옥에서 주출입구를 구성하는 전형적인 방법이다.

한옥 철도역사

1920년대 후반에 등장하기 시작한 한옥 철도역사는 식민지관광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철도가 적극 활용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철도역사는 관광자원으로서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적절한 건축디자인 양식이 선택되었는데, 한옥형 철도역사는 역사유적 및 유물의 분포가 많은 역사도시를 중심으로 세워졌다. 그러나 이러한 철도역사는 외관상 조선의 건축양식을 따르고 있지만, 공간구성과 건축구법에서는 동시기의 근대건축을 따르고 있어 전통건축의 근대적 변용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예가 된다.

한국병합 이후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고 공고히 하는 방편으로 조선문화를 폄하하던 조선총독부가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조선건축양식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식민지 지배의 안정화에 대한 자신감에 기초한 관광산업 진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매일신보 1926년 5월 26일자에 따르면, 철도국에서 전 조선에 걸쳐 명승고적과 고사찰 등 42개소를 선정하였다. 철도국의 이러한 조치는 관광지를 개발 및 홍보하여, 당시 유일하게 전국적인 교통망을 갖추고 있는 철도의 이용을 높여 수익을 증대하고자 하는 철도국의 정책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30년대 조선의 일간지에서는 관광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각종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시도 단위로 관광협회를 결성하는 외에도 경성관광협회주관으로 '전람회'를 미쓰코시 백화점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양조천년의 고적지兩朝千年의 古蹟地, 관광경기(觀光京畿)를 부르짖으며, 사화, 전설, 사진, 시가를 담은 소책자를 발간하였으며, 삼방지역에는 스키열차를 운행하는 등 관광을 진작시키려는 노력이 다각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관광 증진을 위한 노

력은 당시 유일하게 전국적인 교통망을 구축하고 있던 철도의 수입을 증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옥 철도역사는 관광 증진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1925년 4월 1일 총독부 철도국장으로 취임한 오무라는 "한국철도의 지방역사는 일률적으로 양식건축이며 지방의 특색이 표현되지 않은 것이 유감"이라 하고 '한국의 고유한 건축양식과 색조를 채택하여 민중들에게 친근미를 갖게 하는 뜻에서도 앞으로는 역사 신개축에 있어서는 되도록 한식을 채용할 것'을 주장하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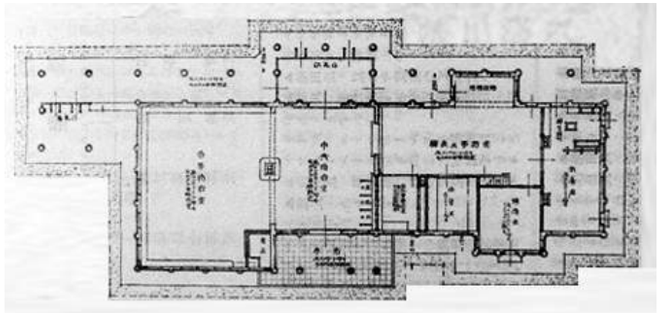


그림 25. 수원역 평면

그림 26. 수원역 전경

한식 철도역사는 외견상 한옥의 모습을 거의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비록 전통적인 재료와 구법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비례나 모습은 전통적인 한옥의 맛을 내고 있다. 그러나 철도역사에 적용된 양식은 양식적으로는 조선의 건축양식을 따르고 있으나, 건물은 신재료와 공법에 기초하고 있다. 1928년에 완공된 수원역사의 경우 평면구성에서 당시 역사의 표준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으나, 외관은 한식의 팔작지붕으로 외부에 콘크리트 원주를 세우고 벽체는 목재를 대신하여 벽돌을 기둥형으로 쌓고 몰탈로 마감하였다. 주목할 것은 일반적인 한옥건축의 규모를 넘어서는 기차역사에서 전통건축의 의장적 효과를 내기 위해 주지붕과 부지붕을 조형적으로 분리하고 한편에는 부출입구를 두었다는 점이다. 하나의 매스에 하나의 지붕을 씌우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전통건축의 구성에서 복잡한 내부공간을 지니고 있는 대형화된 매스에 하나의 지붕을 씌우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능 단위별로 지붕을 씌웠는데 대공간을 필요로 하는 대합실에는 폭과 높이가 높은 주한옥지붕을 설치하고 크고 작은 내부 공간의 규모에 따라 각기 적절한 크기와 방향의 지붕을 설치하였다. 이러한 구성은 한국건축이 지니고 있는 비례감을 살리기 위한 조형적 구성이다.

그림 27. 전주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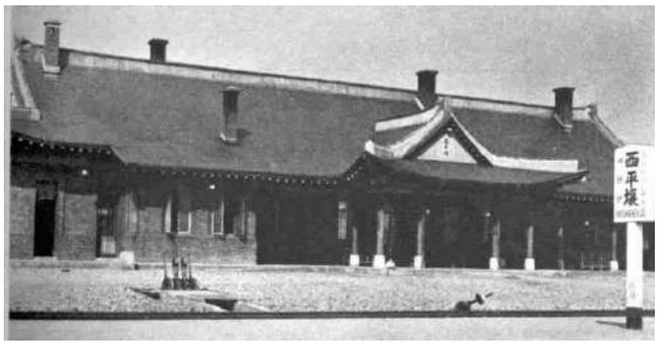


그림 28. 서평양역

이밖에 북청역사(1927), 내금강역사, 경주역사, 전주역사(1929), 서평양역사(1929), 남원역사(1931), 남양역사(1933) 등이 차례로 건축되었다. 이들이 건축된 지역은 남과 북에 걸쳐 역사유적지가 비교적 많은 곳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맺음말

조선이 서구문물과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서양의 문물의 도입에 주목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지만, 국가 또는 몇몇 단체나 기관에 의해 도입된 서양식 건축으로 동시대 한국의 도시와 건축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가 또는 특정 기관의 의지에 의한 근대도시와 건축의 변화 못지않게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있던 전통건축이 시대적 변화에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건축이 근대사회에 어떻게 대응하며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개항이후는 물론 일제에 강제병합된 이후 한옥의 존재방식이 한옥을 도입한 주체별로 어떠한 이유로 어떻게 다루어졌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근대기에 한옥이 광범위하게 근대제도의 정착과정에서 역할을 담당했으며, 일제강점기의 한옥은 시기에 따라, 건립주체에 따라 각기 다른 사회적 위상과 목적에 따라 다른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대한제국기와 한일합방 초기 공공시설로 전용된 한옥은 근대적 기능에 적합한 근대건축의 보급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공백을 메우는 성격이 강했으나, 식민지배가 안정기에 접어드는 1920년대 후반에 공공시설에 사용된 한옥은 경제적 가치 창출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지어졌다. 박물관의 경우 박물관이 소재한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성격이 건축물에 반영되었지만, 박람회와 철도역사에 사용된 조선건축양식의 경우는 전통건축이 근대기능을 수용하기 위해 어떠한 의장적, 구조적, 공간적 변용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19세기말부터 근대적 기능을 수용하기 시작한 한옥의 존재는 전통건축이 근대를 어떻게 맞이했고, 어떻게 극복해 나아갔는지를 보여주는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국건축 태동의 주역 —예산지역 건축사 김세환(Ⅳ/完)

Architect, Kim, Se-hwan, From Yesan, Who Pioneered Korean Architecture.

해방 이전과 이후 근현대건축과 작품활동(1950~1970)을 중심으로

김득수 | 종합건축사사무소 S.S.P 삼대

건축사의 철학

일제시대에 태어나 16세의 나이로 전주공업학교 건축과에 진학한 이후 목공 및 목조주택 현장 실습을 통해 건축에 관심을 갖고 몰두한 흔적이 많은 고심과 노력을 했음이 엿보인다. 김세환(1919~1979)은 식민지 기간에 교육을 받고 일본인 회사에서 건축수업을 하고 경력을 쌓았으며 한국건축계에서 본격적인 활동은 1950년 예산에서 시작되었다고 본다. 해방 이후에 활동이 활발했던 건축사로 주요 작품시기는 50년대 초반부터 70년대 중반까지이다.

공직에서 작품활동 중 건축사 김세환 씨는 1965년 1급건축사 면허 취득 후 예산에 김세환건축설계사무소를 1965년도 개설하여 충남건축사지부 창립멤버로 초대 감사[1], 예산분소 초대분소장[2]을 역임하면서 작품에 임했다.

건축작품에는 평촌초등학교(1952), 장복초등학교(1954), 구만초등학교(1956), 조림초등학교(1956), 동신초등학교(1957), 주교초등학교(1957), 예산중학교 본관 · 별관(1957), 예산교육청(1961), 예산제일감리교회(1962), 예산농업고등학교 본관(1963), 예산토지개량조합(1964), 예산문화원(1964), 예산중앙교회(1965), 충남보령복지법인 정심원 교육관(1967), 예산고등학교(1969), 농협협동조합(1970), 예산자유회관(반공회관 1970), 아산교육구청(1972), 예산중앙극장(1974), 향천사 극란전(1977) 등의 건축물들은 모던니즘 계열로 기술적 바탕 위에 자신의 개성적 형태 언어를 결합하는 일에 몰두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주로 학교 공공건축물을 시작으로 다양한 관공서, 사무실 등 설계 작품이 많이 남아있다. 1965년대 근무한 박갑순(朴甲淳)[3], 1970년대 근무한 고흥주(高興柱)[4] 씨의 증언에 의하면 일할 직원들이 거의 없어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열악한 상황속에 그 당시는 건축전공 인원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세부적인 전문성보다는 건축전반을 알고 건축만능이 되어야 했다. 당시 사회가 요구하는 건축사상은 건축의 모든 분야 즉 건축 계획, 건축 구조, 건축 시공 등을 마스터한 만능의 건축 기술자였다.

특히 박갑순 씨는 옛 일을 회고하면서 사업 실패 후 설계사무소 개설 때 아들(필자 김득수)이 이 집을 홍성 법원에서 낙찰 받아 찾아주었다고 늘 말씀하시면서 적지 않은 돈을 준비하느라 고생을 했을거라며 나에게 한두 번 말씀하신게 아니라 가끔 눈시울을 적시곤 하였다고 전해 주었다.

방학 때마다 주로 설계에 참여 시간을 보내면서 밤늦게까지 작품의 토론과 지도를 받았으며 모든 일을 손수하시는 생활에 필자도 배울 점이 많았다. 설계부터 시공까지 본인이 직접 설계도면을 오구로 잉킹하는 방법, 두루마리 감광지를 도면에 맞추어 절단한 후 청사진 틀에 햇볕을 조절하여 암모니아 통에 현상하는 등 청사진에 풍기는 암모니아 냄새가 채 사라지기 전에 또다른 청사진을

1) 충남건축사지부 초대회장 및 임원 / 지부회장 양세환 1965~1971 / 총무이사 최용현 1965~1971 / 간사 조정환 1965~1971 / 간사 송장호 1965~1967 / 간사 배한구 1964~1969 / 간사 이원우 1969~1971 / 감사 김세환 1965~1967 / 감사 손돈영 1965~1967 / 대한건축사협회20년사 464p 광문정판사

2) 충남건축사지부 초대분소장 / 천안분소장 이문복 1965~1972 / 부여분소장 김윤환 1971~1978 / 예산분소장 김세환 1965~1972 / 보령분소장 신기현 1965~1975 / 논산분소장 김이동 1965~1976 / 대한건축사협회20년사 465p 광문정판사

3) 박갑순(朴甲淳, 1938년 4월 1일) : 충남 논산시 채운면 장화리 277 태생으로 부친(김세환)과는 외가당숙으로 대전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 충남대학교 건축공학학사(1956~1961)를 졸업하고 잠시 1965년 김세환 건축설계사무소 개업과 함께(1965~1966) 근무하면서 대전공업고등학교 교사로 시작 대학 교수의 길로 들어선다. 대전공업전문학교(1966~1978) 학제 개편되면서 조교수, 부교수 동국대학교 건축공학석사(1978~1980) 학위를 받고 대전공업대학에서 대전산업대학교, 한밭대학교 교수로 정년퇴임하게 된다. 보직경력은 학생과장 도서관장 등 역임하고 대한건축가협회 대전지회장(1992~1993) 대전광역시 건설심의의원 외 기관의 심의위원, 자문위원, 평가위원 등 연구업적은 철근콘크리트 보의 기둥 외부접합부의 내력과 인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등 건축재료, 건축재료실험저서와 대한건축학회 정회원, 한국건축가협회 정회원 등 현재에 이르고 있다.
(자택 전화 042-524-3110, HP 011-436-7199)

4) 고흥주(高興柱, 1952년생) : 현 內浦건축사사무소 건축이사, 예산 태생으로 미8군 설계실 근무(1970년), 김세환건축설계사무소(1970~1973), 건축사보 대전건설공병단(1973~) 군복무 등 근무하였으며 제대후 잠시 건축가 김세환씨를 모신 후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457-7 내포건축사사무소 건축이사로 작품활동과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다.
(사무실 전화 041-632-0799, HP 010-2582-0798)

대하면서 잊고 산 지난 시간들… 직접 실행하여 완성함으로써 나 또한 학습과 할 수 있는 실기적인 작업과정이 가장 추억에 남는 학창시절이었다. 묘사력, 이해력이 도움되어 설계훈련을 받고 건축적인 기초를 닦게 된다.

1960년 대학 3학년 초 봄 방학기간 시골 예산에서 절친한 지인인 김동국[5](서라벌예대, 동양화), 정상원[6](서울대 미술대학 동양화), 김정자[7](수도사대 미술대학 서양화), 김득수(한양대 공과대학 건축과, 건축) 4인전 전시회를 갖는 등 활발한 작품세계에 몰두하게 된다. 그해 4 · 19혁명에 참여하고 5월에 군에 입대하여 군에서 5 · 16 군사혁명을 맞았다. 6 · 25를 경험하고 1958년 대학을 입학한 학부시절에는 정치 · 경제 · 사회가 혼란스럽고 어려운 때였다. 그야말로 먹고 살기조차 어려운 난국의 연속이었다.

제대 후 복학하여 부친한테 사사받은 실력으로 졸업 작품은 특수학교설계로 설계(이해성 교수), 견적(홍봉희 교수), 의장 · 도학(박학재 교수) 등 학점이수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졸업 후 설계사무소에 근무할 때 기억으로 요즈음 모두 '홀더'를 쓰지만 당시에는 연필을 깎아 썼다. 하루는 어쩌다가 새연필을 깎아 쓰는데 "누가 신입사원이 새연필을 쓰라고 했어? 그건 선배를 주고 몽당연필을 버리지 말고 쓰란 말이야"고 호통을 받은 지난 시절, 몽당연필의 사용법은 사인펜 뒷 꽁무니를 녹여 꽂아 쓰거나 트레싱 페이퍼를 말아서 쓰는 것이다. 2년 후에 100대 1이 넘는 경쟁자 속에 건축사(2-151 · 1-1400)시험에 합격하는 영광을 얻었다.

부친 김세환 씨는 예산읍 예산리 523-1 자택 마당에 손수 지은 사무실에서 작품에 몰두하다 과로로 고혈압에 쓰러져 당분간 요양 중 서울 사무실 직원을 파견하여 급한 일을 처리하고 필자도 시간을 할애하여 직접 참여하였으며 책임감 때문에 다시 불편한 거동으로 작업에 임하였으나 병이 재발되어 결국 그는 천수를 다하지 못하고 1979년 유명을 달리하셨다.

건축사 김세환 씨는 그의 나이 60세 환갑을 못채우고 급환으로 후대를 위한 건축적 유언을 채 준비할 겨를도 없이 돌아가셨다. 60세의 건축사로서는 이제사 진정한 자신의 작품세계를 구축하고 건축계를 이끌어 갈 시기였으나, 너무나도 아쉽게 이 세상을 떠나시고 만 것이다. 활달하고 명랑한 성격에 유머와 약주를 좋아하셨는데, 식민지 시대에 청년으로서 겪는 여러가지 역경을 이기고 자신을 극복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호연지기를 가지셨었다고 주위 건축사들은 말하고 있다.

필자(김득수)는 2008년 4월 23일 오전 약속한 홍성내포건축사사무소를 찾았다.(1970년도 당시 근무했던) 반갑게 맞이하는 고흥주 씨의 말에 의하면 1973년 군에 입대전까지 건축사보로 현장을 답사하고 설계업무에 임했으며 그 당시 장항선, 천안을 제외하고 온양, 홍성, 광천, 서산, 당진 등 건축사사무실이 전무하여 지방현장에도 많이 돌아다녔다고 한다.

예산리 마산골 출신 고흥주(내포건축사사무소 건축이사)와 김세환건축사사무소 인연은 보건소, 신문사에 근무한 부친 고영우(高永祐) 씨, 국회의원 박병선(朴炳善) 씨와 세분이 돈독한 친구사이로 서울 미8군 소속 설계사무소 근무 중 시골 예산에 오게 되었다고 했다. 낮에는 현장, 밤에 주로 건축설계를 하면서 밤 12시 전후 귀가가 보통이었다니 얼마나 열심이셨는지 알 수가 있다. 또한 지방현장에서 오삽으로 콘크리트 배합율과 시공과정을 배운 본인이 대전건설공병단 군복무 중 믹서기로 콘크리트 타설 과정을 처음 보았으며 건설자재에 대한 많은 자료와 경험을 얻었다고 하면서 김세환 씨의 건축철학은 사무실 청소를 잘해야 설계도 잘한다는 사명감, 주인의식을 갖도록 주지시키면서 지나친 상업화로 가다보면 작품성이 없어진다고 강조하셨다 한다. 섬세하고 꼼꼼한 성격으로 설계 검토 후 지적사항을 나열한 후 수정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예 트래싱 페이퍼(원도)를 찢어 버리고 다시 시키는 일이 비일비재 하셨다니 일에 있어서는 얼마나 혹독하게 가르치셨는지 잘 알 수 있다. 이것을 참고견디면서 배운 것이 훗날 건축을 이해하고 현장을 알게 되는데 큰 힘이 되었다고 한다.

작품은 주로 주택, 상가주택, 소규모 상가, 창고 등이 많았으며 특히 박선린(충남교통) 사장 주택 설계가 애착이 간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첫번째 혈압으로 쓰러진 후 불편한 몸으로 침을 흘리면서 전자계산기가 없던 시절 슬라이드 계산기로 면적 계산, 재료 수량 산출 등 견적을 주로하셨고 같이 일하면서 정이 많이 들었다고 한다. 불편한 몸을 지탱하기 위해 사무실과 집안 제거식 화장실을 콘크리트 정화조 시설로 개량하여 좌변기를 설치한 예산읍내 최초 수세식 화장실이 탄생하게 된다. 걷기가 불편하여 집에서 사무실, 화장실 등을 모시고 다녔다고 하니 고마운 마음을 느끼면서 필자도 많은 정감을 갖게 되었다.

꼭 하고 싶은 말은 제대 후 합동사무실 운영 당시 김현용[8](현 홍성건축사사무소 대표)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1년 남짓 함께 있다가 홍성에 자리를 잡게 된다. 홍성에 자리를 잡은 후 김세환 건축사님이 부르면 혼자 사무실 잔무처리를 하시면서도 반가워하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고 하셨다. 낮에는 홍성, 밤에는 예산을 오가면서 일을 도왔던 생각 등 김세환 소장님은 꼼꼼하고 청결하여 쓰러진 후에도 작품에 몰두하고 열정을 가진 분으로 충남건축사지부 회원은 물론 관계기관에 잘알려진 분이시다라고 말을 맺었다. 필자는 창작활동과 작품을 기대하면서 고흥주 씨의 앞날에 건투를 빈다.

---

5) 김동국(金東國, 1939년생) : 예산군 오가면 태생으로 서라벌 예술대 미술대를 졸업, 대한건축사협회 서울지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본부에 근무하였으며 경기건축사지부 사무국장으로 정년퇴직하였다.(자택 전화 031-764-5930, HP 011-9750-5932)

6) 정상원(鄭相元, 1939년생) :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태생으로 예산초등학교, 예산중학교, 예산농업고등학교, 서울대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충남대 미대 교수를 역임하였다. (자택 전화 041-338-2236, HP 011-448-2237)

7) 김정자(金正子, 1942년생) :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태생으로 예산여고, 수도사대 미술대학을 졸업하였고, 중 · 고등 미술 교사를 하였다.(HP 018-263-9248)

8) 김현용(金顯用, 1947년생) : 현 洪城건축사사무소 대표, 1970년도 건축사보시절에 1년간 김세환 건축사사무소에 근무 모시면서 작품 및 현장 등 열심히 하신 분으로 1999년도 충남건축사회 18대 회장, 2003년도 대한건축사협회 이사를 역임한 분이다.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464-12 홍성건축사사무소를 개설,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사무실 전화 041-632-4120, HP 010-4451-9944)

고흥주 씨를 만난후 김현용 건축사님의 사무실을 찾았다. 점심 약속을 한터라 반가워하면서 1973년도 김세환 소장님의 얘기를 꺼냈다. 1년 남짓 근무하면서 소장님의 세심한 내용, 꼼꼼한 성격, 인허가 도면이 아니라 시공도면을 주문하셨던 분이라고 고흥주 씨가 말한 그대로 열심히 빠짐없이 했다고 자부하지만 소장님의 설계검토는 선하나의 굵기 차이, 연필로 작도한 설계도면에 때가 묻지 않도록 깔끔한 설계를 원했던 것이다. 특히 시공할 수 있는 도면, 수량 산출에 지장이 없어야 하는 수치, 거짓말 설계가 아니라 평면, 입면, 단면, 디테일이 일치하는 도면을 원했고 그렇지 못하면 수정하면 쓸 수 있는 트레싱페이퍼(원도)를 주저하지 않고 갈기갈기 찢었다고 하니 견디기 힘들 정도로 고생하면서 그후 많은 작업을 거쳐 교회 교육관 설계도서 작성은 건설회사의 칭찬을 받을 정도로 교육을 받았으며 엄격한 교육 덕택으로 건축사 면허를 취득하고 홍성에서 현 홍성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게 되었다한다. 김세환 건축사를 존경하는 김현용 건축사님의 열정과 작품활동에 건투를 빌면서 필자는 예산 버스 편에 올랐다.

황규신[9](黃圭信, 1956년생, 현 건축사사무소 진화건축 대표건축사) 김세환 건축사사무소(1974~1975) 건축사보로 2년간 근무하면서 그당시 군 당국시책으로 예산읍 무허가 건축물 350여건을 현장조사와 실측을 반복하면서 작업에 참여하였으며 예산중학교 뒤 두견 양주공장 설계와 여러 작품에 활동한 후 건축사 면하취득, 대전에서 작품활동에 열심히 하고 있는 분이다.

김홍택[10](1951년생, 현 김홍택건축사사무소 대표)은 1974년도부터 1979년까지 6여년간 김세환의 건축과 동반한 분신과 같은 분이다. 본론을 집필한 자료를 몸소 체험하고 기억하고 있는 유일한 분이라 그에게 의뢰한 자료는 대부분 대화로 나누었고 이를 일부 반영한 내용은 설계 과정에 있었던 일, 현장 체험 내용, 김세환 씨의 철학 등 그는 대부분의 우리나라 모더니즘과 같이 일제시대의 교육경험을 가지고 광복 후에 건축적 실천을 도모하면서 한국적 모더니즘을 실천한 건축사이다. 건축사는 작품으로 자신을 이야기하고 평가를 받게되지만 이것에 못지않게 살아생전 지내온 언행과 발자취는 한사람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좌담회

필자 김득수 : 오랜만에 회장님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전에 본협회에서 자주 뵈었는데 지금 건강은 어떠하신지요? 늦게 모시게 되어 죄송합니다. 이 자리는 저의 부친이신 김세환 건축사의 형제분 발자취를 자료로 남기는데 여러분의 고언을 듣고자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연세대 공학대학원 석사논문「일제시대 소읍도시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 충남예산지방의 근대적 도시 변화」1차 논제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 연세대 이경회 교수, 김성우 교수와 목원대학 건축과 김정동 교수의 조언으로 개항이후 서구식 교육을 받은 한국의 건축사의 건축계 활동, 해방이후 건축사제도 시행 전후 배경을 추가자료를 찾아 정리하는게 어떤가 하는 김정동 교수의 의견에 의해 –김세환과 그 시대 작품활동– 자료를 추가하여 2차 심사에서 짧은 시간에 많은 자료를 찾았다 하였으나 조사과정이 짧아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협회 건축사지에 투고하고자 합니다. 이로 인하여 후배건축사들이 선배건축사들의 건축활동은 물론 작품을 정리하고 잊혀져가는 건축사의 출현과 배경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어 지역건축사들의 작품성향과 빛을 보지 못하는 자료를 발굴,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먼저 초창기 협회 발족과 함께 창설한 그 시대의 건축 상황과 당시 생각나는 에피소드 등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홍우 전회장 : 우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 김득수 건축사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건축역사의 초창기에 활약한 건축사의 자제분이 그 당시 함께 했던 사람들을 대접해 주고 더군다나 선배건축사이자 선친이신 분에 대한 기록을 찾아 남기려고 하는 열정에 대해 고맙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당시 건축대서사소 시절 구협충남지부장은 배한구 씨가 맡아 활동했으며, 당시에는 건축사시험에 대학졸업자에게는 건축사자격증을 그냥 준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배한구 회장님을 비롯한 역대 회장님들은 협회 창립을 위해 서울, 대전을 오가면서 건축사법에 의거 창립회원 22명으로 충남건축사지부를 세우게 됩니다. 당시 초대지부장은 양세환 건축사가 맡았고, 간사 3명, 감사 2명을 선출하여 지역건축 발전과 협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김종민 전회장 : 양세환 회장님에 이어 제가 2번째(4, 5대) 지부장을 맡게 되었고, 당시 전국에서 처음으로 회관을 건립, 준공식을 가진 회장으로서 감회가 크고 두고두고 잊지 못할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홍우 전회장 : 그 당시는 내세워 자랑할 만한 작품과 그렇지 못한 작품들이 혼재되어 있던 때였고, 주택이 주를 이루었으며 목조와 블럭조로 도시나 농촌의 경관을 결정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김종민 전회장 : 양세환 초대회장 당시 초대 감사를 김세환 씨가 맡아 대선배인 두분이 콤비를 이루어 충남지부를 잘 이끌어 갔습니다. 약주를 좋아하시는 두분이 어울리면 집에도 못가실 정도였고 저도 두 선배님을 모시고 끝까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9) 황규신(黃圭信, 1956년생) 예산군 응봉면 임침리 태생으로 현 건축사사무소 진화건축 대표건축사로 나의 건축 반세기 2009년 초판 발행한 후에 김세환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한 사실을 알게되어 재판발행에 그의 행적을 삽입하게 되었다. 대전관역시 서구 갈마동 1131-2 월드빌딩 6층(사무실 042-527-5102 HP. 010-5426-54752)

10) 김홍택(金洪澤, 1951년생) : 현 김홍택건축사사무소 대표. 예산 태생으로 김세환건축설계사무소(1974~1979) 근무, 건축사면허 취득 후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526-3 국민은행 2층 김홍택건축사사무소를 개설 작품활동에 열심히 하고 있는 분이다.(사무실 전화 041-334-3456, HP 011-422-7013)

박홍우 전회장 : 약주를 드셔도 김세환 씨는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양세환 전회장님은 술을 드시면 (주사가 있어) 끝까지 후배들과 함께 행동하기를 원했습니다.

유근열 전회장 : 총회나 간사회의가 있을 때마다 집에 못가도록 감사님을 붙잡은 예가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강우식 전회장 : 양세환 회장님은 말할 것도 없고 김종민 회장님도 약주를 꽤 좋아하셨죠. 요즘처럼 자료보관이 잘 된 때도 아니어서 자료 찾기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조사를 많이 하셨네요.

필자 김득수 : 연세대 건축과 석사논문 – 일제시대 소읍도시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 심사위원으로 이경회, 김성우, 김정동 세분 교수님이 심사 때 목원대학 김정동 교수와 인연이 됐었지요 –예산지방근대적 도시변화–에 이어 해방 이후 건축과정에 대한 자료 조사로 예산지방 건축계 활동을 많이 하신 선친 위주로 쓰게 됐습니다. 아마 충남지방 각 시군의 공통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우식 현 충남회장 : 김득수 서울부회장님은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80년대 박천수 시장 시절 아산시가 발주한 시민체육관을 설계하셨을 때 제가 감독관으로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필자 김득수 : 그렇습니다. 박천수 아산시장은 예산중, 예산농고 2년 선배이기도 합니다. 당시 신회장님이 편안하게 감독해 주셔서 잘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고마웠다는 인사가 늦었습니다.

신우식 현 충남회장 : 저도 충북대를 졸업하고 연세대에서 석,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졸업은 제가 몇기 앞서 한 것 같습니다. 김득수 건축사님 석사논문에는 쉽게 구할 수 없는 자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젊은이도 하기 힘든 작업일텐데 연로에 수고 많이 하셨네요.

박홍우 전회장 : 김득수 건축사님의 작은 아버지 되시는 김윤환 씨는 형님 김세환 감사님을 말없이 끝까지 따라다녀셨던 기억이 납니다. 충남대 영선과에 근무하셨죠. 김윤환씨 큰 자제분 결혼 주례를 제가 하기도 했습니다.

유근열 전회장 : 김윤환 선배님은 통 말씀이 적은(편이면서 좀 짜다고 할까 동료들에게 약간은 인색한) 편이었던 같습니다.

김종민 전회장 : 선친되시는 김세환 씨는 전에 총회 때 대전에 오시면 회의 끝난 후 몇차례 약주를 하시고 술값을 지불하고 예산가는 차비를 빌린 뒤 몇해 후에 회의때 와서 그때 빌린 돈을 잊지 않고 갚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매사 정확하고 꼼꼼한 분이셨죠.

유근열 전회장 : 선친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산 사무실에 몇 번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뵐때마다 아들(필자 김득수) 자랑을 많이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주택마당에 지은 3층 건물 사무실도 아들이 자재를 보내주어 지었다며 설계에 필요한 트레이싱지, 청사진 감광지, 연필 등도 보내준 자랑을 하셨어요. 그리고 직장 퇴임 후에 잘나가던 건설업 사업에 실패하여 현재 살고 있는 집이 홍성 법원에 공매처분 때도 큰 아들(필자 김득수)이 알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마련하여 입찰 후 모친 앞으로 이전하였을 때 고맙다는 말 이외에 할말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부친께서는 속 있는 말까지 나에게 얘기하여 주어 김건축사의 속깊은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필자 김득수 : 선친께서 돌아가셨을 때 양세환 회장님, 박홍우 회장님, 김종민 회장님, 유근열 회장님 등 여러분이 많이 애쓰셨는데 인사를 자주 못해 죄송합니다.

강우식 전회장 : 선친께서 가끔 술을 드시고 "나는 한 살때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야"라고 농담을 하신 생각이 납니다.

필자 김득수 : 선친께서 1919년 3월 1일 태어나셔서 그러셨나 봅니다.

강우식 전회장 : 농촌 출신의 건축사이신 선친에 대한 자료를 남긴다는 것은 대단히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대를 이어 건축에 종사하는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자료를 찾아 모으고 기록으로 남긴다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목원대 김정동 교수에게 그 동안 모은 자료와 협회 관련 책을 기증했습니다. 김건축사님 자제분도 같은 전공을 하였다는데 정말 부럽습니다.

필자 김득수 : 예, 한양대를 나오고 지금은 미국 펜실바니아대학에서 박사과정에 있습니다.

■ **충청남도건축사회 역대회장**

- 양세환(梁世煥, 1920년 9월 16일생) : 1, 2, 3대 회장. 충남출신으로 대전공업학교 졸업(1940년), 건설회사 자영(1945~1947), 충남도청기원(1948~1951) 등 건축설계 영선업무를 담당했다. 1959년 건설기술자(건축1급 160호), 1965년도 건설부시행건축사(1–262)를 취득하고 1951년 건축대서사무소를 거쳐 1980~2000까지 정원건축사사무소를 개설 운영하다가 현재 폐업한 분이다. 대한건축사협회 충청남도지부 창립회원 ※참고 / 대한건축사협회 20년사
- 김종민(金鍾敏, 1934년 8월 3일생) : 4, 5대 회장(1971. 4~1975. 3). 대전 출신으로 대전공업고등학교 졸업(1954년), 충남대학교 공과대학 3년 수료(1956년), 대전체신청 회계과(1958~1967)에서 건축설계 영선업무를 담당했다. 1965년도 건설부 시행건축사(1–260)를 취득하고 1970~ 2005년까지 건축사사무소 새건축을 개설 운영하다가 현재 폐업한 분이다.
  ※참고 / 협회 입회(1967년도 대전건축사회 회원카드) / 대한건축사협회 8, 9대 감사(대한건축사협회 20년사)
- 박홍우(朴弘雨, 1935년 12월 15일생) : 6, 7, 8대 회장(1975. 4~1979. 3). 대전 출신으로 대전고등학교 졸업(1954년), 충남대학교 공과대학 졸업(1958년), 해동기업주식회사(1961~1963), 대전시교육청(1963~1964)에서 건축설계 영선 업무를 담당했다. 1958년 건축사공기사 2급(2329호), 1967년도 건설부시행 건축사(905)를 취득하고 1983~2005까지 협창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운영하다가 현재 폐업한 분이다.
  ※참고 / 협회 입회(1965년도 대전건축사회 회원카드), 대한건축사협회 충청남도지부 창립 회원, 대한건축사협회 14대 감사, 충청남도 지부 4, 5대 총무이사(1971. 11~1975. 12)(대한건축사협회 20년사)

김종민 전회장 : 선친께서 마음 곱게 늙으시면서 아들 자랑을 많이 하셨는데, 부친이 살아온 과정을 알기 위해 자리를 마련하는 일은 쉽지 않은 것으로 협회 창설 이래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 고마움을 전합니다.

필자 김득수 :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연히 모셔야 하는데 늦게 모셔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이번 기회에 선배 회장님들도 시간 나시는 대로 그동안 겪어온 건축 인생과 협회 활동, 작품 등을 정리하시어 후배들에게 소중한 자료로 남겨 주셨으면 합니다.

▷ 일시 : 2008년 5월 28일(수)
▷ 장소 : 대전
▷ 참석 : 김종민, 박홍우, 유근열, 강우식 전임회장, 현 정종태 대전회장
현 신우식 충남회장, 대전 이을구, 충남 이종국 사무국장
(양세환 초대회장님은 몸이 불편하시어 불참, 직함은 당시 기준)

마치는 글

지금껏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했고 앞으로 몇십년 후 또 다른 심판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 후손에 물려줄 우리의 고귀한 건축문화 유산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명감으로 참모습을 필요로 하는 것에 큰 의미를 갖고자 한다.

건축사사무소에서 가깝게 모시고 생활해 온 한사람으로서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서술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박갑순 한밭대학 건축과 교수의 아낌없는 증언과 고홍주 건축이사, 김현용 건축사, 황규신 건축사, 김홍택 건축사의 사실과 같은 진솔한 대화에 감명을 받아 깊이 새기고 필자는 고마움을 잊지 않고 오래 간직하고 싶다. 그리고 충남건축사 지부 김종민, 박홍우, 유근열, 강우식 역대회장님을 비롯하여 현 신우식 충남건축사회 회장, 정종태 대전건축사회 회장님과 이을국, 이종국 사무국장님을 모시고 좌담회에 참석하시어 들려주신 좋은 말씀과 고견은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에 대한 너그러운 양해를 구하면서 그의 발자취의 남아있는 부분들을 정리함으로써 본 집필을 마친다.

도시 건축물 보전방향

건축문화 유산은 보전 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선별하여 지정문화재로 지정하고 있지만 50년대에서 70년대 초반에 건축된 건축물은 현재 무분별하게 철거되고 있다. 근대 문화유산 문화재 등록제도가 2001년 7월에 개정되면서 법률적 보호근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법률이 발효되면서조차 경제적 가치가 저하된 건물들을 우선적으로 철거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국도극장이 하룻밤 사이에 철거된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결국 법과 원칙아래 보전계획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선행되어야 한다. 건축은 여러 시대에 걸쳐 변화해 온 다양한 양식의 건축물로 시대의 거울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졸필에도 불구하고 집필을 하는 이유는 건축 근대사 발전 속에 일제강점기시대 근대교육을 받은 잊혀져 가는 건축사들의 출현과 그 배경을 정리함으로서 지역 건축계의 현황과 위상을 정립하고 근대건축의 형성과 현대건축으로 이어지는 틀을 마련하고자 함이다. 6 · 25전란과 영세한 기반에서도 건축사의 활동은 1970년대까지 열심히 한 흔적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다. 필자의 이러한 수고가 한국의 현 근대 건축사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뿐더러 지역의 건축사들의 작품조사와 빛을 보지 못하는 자료를 발굴, 연구의 필요성에 시금석이 되기를 바란다.

건축사들이 완성해 놓은 작품은 그 시대에 따라 다른 표현을 하고 있듯이 50여년의 세월 속에 혹은 철거되었으나 2층도 짓기 어려운 시기에 구하기 힘든 건축자재, 장비 등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기능공의 부족, 공기 지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여곡절 끝에 완성된 건축물들로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것은 당시 정성을 들인 건축사의 사명감의 소산이라 생각된다.

필자는 1958년부터 현재까지 50여년 건축계에 종사하면서 필자의 작품은 물론 부친이신 김세환 씨의 작품세계를 기록보전 하고자 10여 년에 걸쳐 조사는 물론 그 시기에 함께 종사한 분들의 이야기 등을 참고하였다.

세월이 지난 지금 부족하고 졸속한 내용을 기록보전 차원과 건축사의 집안으로서 자부심을 간직하고, 주변의 고마운 분들, 특히 선친의 건축작업에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이 글을 정리하였다.

•유근열(柳根洌, 1936년 8월 8일생) : 8, 9대 회장(1979. 4~1983. 4), 충남 부여 출신으로 대전공업고등학교 졸업(1957년), 충남대학교 공과대학 졸업(1962년), 대전시청(1962~1972)에서 건축설계영선, 인 · 허가 업무를 담당했다. 1970년도 건설부시행 건축사(1143)를 취득하고 192~2005까지 중도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운영하다가 현재 폐업한 분이다.
※참고 / 협회 입회(대전건축사회 회원카드), 대한건축사협회 15대 감사, 충청남도 지부 6, 7대 감사(1975. 12~1980. 12)(대한건축사협회 20년사)

•민영기(閔榮基, 1937년 8월 19일생) : 10대 회장(1983. 4~1985. 3), 충남 부여 출신으로 공주고등학교졸업(1956),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졸업(1961), 1967년도 건설부시행 건축사(925)를 취득하고 1965~1995까지 민영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운영하다가 1995년도 작고한 분이다.
※참고 / 협회 입회(대전건축사회 회원카드), 충청남도지부 4, 5간사(1971. 11~1975. 12), 6, 7대 총무이사(1975. 12~1982. 12), 대한건축사협회 13대 이사(대한건축사협회 20년사)

•강우식(康佑植, 1935년 2월 20일생) : 11, 12대 회장(1985. 4~1989. 3), 충남 부여 출신으로 대전고등학교 졸업(1955),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졸업91960년), 1966년도 건설부시행 건축사(811)를 취득하고 1980년부터 현재까지 (주)조형그룹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운영하고 계시다.
※참고 / 협회 입회(대전건축사회 회원카드), 충청남도지부 8, 9대 간사(1980. 11~1984. 12) (대한건축사협회 20년사)

•참고문헌 / 강경중앙초등학교 100주년 년사(2005. 4. 3 발행), 전주공업학교, 80년사(1994. 5. 1 발행)전주공업학교 학력증명, 졸업증명, 일본간조(間組하자마구미), 한국근대건축개론 건축운동연구회 1992

House created by a poem

건축과 함께하는 시로 지은 집

낙선재의 열어놓은 문

장양순 | 건축사사무소 창건축, 한서대 겸임교수

문

"가만히 오는 비가 낙수 져 소리하니 / 오마지 않는 이가 일도 없이 기다려져 / 열린 듯 닫힌 문으로 눈이 자주 가더라" [1]라고 읊은 가람의 시조나 **"송화 가루 날리는 / 외딴 봉우리 / 윤사월 해 길다 / 꾀꼬리 울면 / 산지기 외딴집 / 눈 먼 처녀사 / 문설주에 귀 대이고 / 엿듣고 있다"** [2] 는 목월의 시는 '오마지 않는 이에 대한 그리움이요, 가족을 향한 기다림이다. 그래서 **"그리운 사람을 기다릴 때면 / 대문에 등불을 걸어두었다 // 별빛 머금고 / 빨갛게 타오르던 / 그리움의 심지 / 그런 밤이면 개들이 유난히 짖어대고 / 개들이 짖을 때마다 / 노오란 살구 같은 별들이 / 후두둑 떨어졌다." ///** –이준관 '그리운 등불'

한국의 전통가옥에선 앞뒤로 문을 내어 출입과 통풍을 자유롭게 하였으며, 창은 그렇지 못할 경우, 제한적으로 쓰였다. 조선 영조 때 이만영이 저술한 '재물보'에 '문은 어떤 장소를 출입할 수 있는 시설이며, 한 짝이면 호, 두 짝이면 문이고, 창은 건물의 눈이며 외호는 대문'이라하였다. 즉 농가의 작은집에서 싸리나무나 짚으로 엮은 사립문은 외짝이니 호에 해당되는 것이고, 대문은 ㅁ 자 형태의 큰집들이나 높은 담으로 집을 외워 싼 저택에 있는 것이다. 그 중에도 종2품 이상이 타는 외바퀴 수레 초헌(軺軒)이 다니는데 이 상이 없도록 대문의 높이를 높인 솟을 대문은 위엄과 권위의 상징이었다. 윤증 고택이나 필자의 고향집은 대문에 들어서면 내외간으로 막혀 있고, 직각으로 꺾여 중문이 있다. 이는 아낙들이 기거하는 안채를 배려한 것이며, 대문에서 부엌이 보이면 복이 나간다는 가옥풍수에 기인한 것으로 봐야할 것이다. 대문 중 삼문(三門)은 궁궐이나 종묘 재실 사당 건축에 쓰였는데, 가운데문은 궁궐에선 왕의 출입문으로, 종묘와 재실에선 신도(神道)로 쓰였다.

"이따금 / 내 가슴 깊은 곳에 / 문 열고 들어와 / 여름바다의 파도로 몰려와 / 무성영화시대의 / 활동사진 틀어놓고 / 에덴동산의 / 보라빛 도라지꽃 / 도라지꽃도 피워놓고 / 이슬비에 젖은 사월의 새벽길을 / 수 만 번 넘어지며 무릎 깨는 / 사랑아" [3] 시인들은 **"당신의 고요한 문을 여십시오. 그 속으로 펴가는 숨결은 가슴과 통하는 것"** 이라면서 마음의 문을 통해 사랑을 연주하고, 문 밖에서 짝사랑에 애태우며, 문 안으로 들어온 사랑에 감격한다.

연풍향교의 홍살문과 삼문

언제나 정겨운 사립문

1) 이병기 「비」 2) 박목월 「윤사월」 3) 홍윤숙 「사랑아」 부분 4) 김상억 「벌판」 부분

※주기 : 시에 있어서 /는 줄바꾸기, //는 연바꾸기, ///는 전략, 중략, 후략 시 사용.

문을 밀고 성큼 바다가 들어섭니다 / 바다에게 붙잡혀 / 문에 꽁꽁 묶였습니다 / 목선 한척 수평선을 끊어 먹고 사라질 때 까지 / 서해가 붉은 덩어리 하나를 삼킬 때 까지 / 조용히 쪽문에 묶여 / 생각합니다 / 아득한 바다가, 어떻게 / 그 작은 문으로 들어 왔는지 / 그대가, 어떻게 / 나를 열고 들어왔는지" –마경덕 '문'

당신은 / 어디에 숨어 계시니까, 당신이 계신 곳을 찾으려고 / 나는 / 꽃의 문 앞에 서성거렸습니다 / 당신은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 꽃의 문을 열자 향기가 있었습니다, 향기의 문을 열자 바람이 있었습니다, 바람의 문을 열자 하늘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자 빛이 있었습니다 / 빛의 문을 열자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 무지개의 문을 열자 비가 내렸습니다 / 비의 문을 열자 나무가 있었습니다, 나무의 문을 열자 다시 꽃이 있었습니다 /// 당신은 어디에 숨어계십니까, / 나는 항상 당신의 / 문 밖에 서있습니다 //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언제나 문밖에 / 서있습니다

–오세영 '문 밖에서'

대문이 집과 밖, 가정과 사회를 연결하는 통로이며 경계 구실을 한다면, '방문'은 그 방의 용도와 독립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문에는 문짝이 없는 경계와 상징의 문들도 있다. 큰 절의 입구에 서 있는 일주문은 '여기서부터 절의 경계'임을 알려 속세의 번뇌를 내려놓는 무문관이고, 효자, 효부, 열녀, 충신을 위한 정문은 가문뿐만 아니라 동네의 자랑거리이며 사당과 능 묘 앞의 홍살문은 붉은 주칠을 하여 권위의 상징으로 쓰였다. 또한 수원성곽의 화홍문과 같은 수문이나 수구문도 문짝이 없다. 사찰이나 소쇄원 같이 담을 끊어 만든 통로 또한 문 없는 문이 되기도 한다.

문이 좁아서 못 들어 갑네다 / 문이 낮아서 못 들어 갑네다 / 문에 맞춰 이 몸을 굽히고 가기 싫어 / 저는 마지막 날까지 못 들어가는 몸이 되는 가 뵈외다 // 이 몸이 세상에 맞춰 살아가기보다 / 세상을 한 몸에 맞춰 꾸며볼까 생각하면서 / 오늘도 헛되이 살아 갑네다 / / 그러나 어느 날은 새 문턱에 내 발길 들여놓고야 말걸요

–김동환 '문'

문짝 없는 문이 있듯이, 마음속의 문에도 사랑 이외의 문들이 있다. 파인(巴人)은 현실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자신이지만 **'낮아서, 좁아서, 굽히기 싫어서 세상을 한 몸에 맞춰 꾸며볼까'**란 멋진 공상을 해 본다. 그러나 건축가이며 시인인 이상은 금전적으로 무능력한 자신을 자탄만하고 있다.

문을암만잡아다녀도안열리는것은안에생활(生活)이모자라는까닭이다 /// 나는방속에들어서서제웅[5]처럼자꾸만감(減)해간다. 식구(食口)야봉(封)한창호(窓戶)에더하더라도한구석터놓아다고내가수입(收入)되어들어가야하지않나 /// 우리집이앓나보다그러고누가힘에겨운도장을찍나보다. 수명(壽命)을헐어서잡히나보다. 나는그냥을열려고안열리는문(門)을열려고 –이상 '가정'

조지훈은 "신혼 첫날 밤, 화장실에 다녀오던 신랑이 창문에 비친 댓잎 그림자를 연적이 품은 칼로 오인하여 그대로 도망한 후, 수십년 뒤 그곳에 들렀을 때, 첫날밤 그대로 앉아있는 신부를 만지자 재로 변하였음으로, 사당을 지어 이를 기렸다"는 고향의 전설을 석문(石門)이란 시로 만들었다.

당신의 손끝만 스쳐도 소리 없이 열릴 돌문이 있습니다. 뭇사람이 조바심치나 굳이 닫힌 이 돌문 안에는, 석벽 난간(石壁欄干) 열두 층계 위에 이제 검푸른 이끼가 앉았습니다. /// 몇 만 리 굽이치는 강물을 건너와 당신의 따슨 손길이 저의 목덜미를 어루만질 때, 그 때야 저는 자취도 없이 한 줌 티끌로 사라지겠습니다. 어두운 밤 하늘 허공 중천(虛空中天)에 바람처럼 사라지는 저의 옷자락은, 눈물 어린 눈이 아니고는 보이지 못 하오리다. /// 여기 돌문이 있습니다. 원한도 사무칠 양이면 지극한 정성에 열리지 않는 돌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오셔서 다시 천 년(千年)토록 앉아 기다리라고, 슬픈 비바람에 낡아 가는 돌문이 있습니다.

중층문은 궁궐과 성곽 그리고 사찰에서 많이 쓰였으며, 궁궐과 성문은 홍예문을 만들고 문루를 세웠다. 사찰은 양 옆으로 사천왕상을 두거나, 문 위를 종루나 고루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임원경제지에는 주실에 따라 대문의 동서남북 위치를 달리했는데 이는 길흉화복에 근거한 것이다. 대체로 대문은 널판으로 만들었는데 불탑 등에는 석판문을 쓰기도 한다. 판문점, 암사동 신석기 시대 수혈주거지를 보면 채광을 고려하여 출입구가 남에서 남서쪽에 위치한 것을 볼 수 있다.

시인들은 문을 통해 세상의 변화를 읽고, 문 닫은 집이 많다는 것이 끝장이 아니라 희망이라 여긴다. 건축사들은 계획적인 재개발을 통하든지, 인구증가와 산업발전에 다른 수요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헌집을 헐고 새집을 짓는다.

우리 집이 이곳으로 이사 와서 사는 동안 참 많은 집이 문 닫았다 / 맨 먼저 맥주 맛이 이 골목에서 제일이던 쿠바[6]가 문 닫자 /// 술꾼들의 지린 오줌을 받아먹고 무성하던 공터의 잡풀들도 문을 닫고 / 잡풀들 사이 걸린 거미집도 문 닫았다 / 오겹살 맛이 기

통 돌로 만든 창덕궁 후원의 석문인 '불로문(不老門)'

담을 끊으면 문 없는 문이 되고, 개울엔 담을 틀었다–소쇄원의 오곡문

5) 제웅 「볏집인형」

주춧돌에 맞게 만든 문짝–송광사(좌) 실용과 미를 갖춘 선암사의 문(우)

막히던 고그리[7]도 어느새 문 닫았고 /// 쌩쌩 복권방이 문 닫고 신나라노래방이 문 닫고 조은약국도 문 닫았다 / 문 을 닫 았 다 / 라는 말 곰곰 되새겨보니 / 영 끝장은 아니라는 희망의 신 침이 입안에 고인다 / 그 집의 추억은 계속 문을 열고 있기 때문인가 /// 훗날 그 집의 기억마저 문 닫았을 때 / 무거운 눈꺼풀이 모두 내린 그 집은 / 그제야 영원한 잠에 빠져들게 된다.

–문성해 '문을 닫다'

막다른 집에서 꽤 오래 산적이 있다 / 헐어빠진 나무대문들을 / 희망처럼 보이게 하려고 / 페인트로 파랗게 칠을 했었다 / 대문의 무늬 결은 숨을 그치고 / 그날부터 파랗게 죽어갔다 ///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 긴 골목도 없이 나를 막아서는 802호 / 지금은 거기에 산다 / 열쇠를 돌리려면 한참씩 문 앞에서 달그락 거리지만 / 잠긴 저안은 언제나 쇠처럼 고요하다 / 하루 종일 / 이 색깔 저 색깔로 덧칠당하고 돌아온 나를 / 아무도 눈치채지 못 한다 / 희망처럼 보이는 푸르딩딩한 폐허를 / 아무도 짖어대지 않는다 / 사라진 개를 / 찾아 나서고 싶다.

–최문자 '파란 대문에 관한 기억'[8]

희망처럼 보이려고 대문에 칠한 파란페인트는 목재무늬 숨결을 질식시킨다. 위의 시는 세상에서 덧칠당한 자신과 대문을 비교한다. 이에 비해 같은 파란대문이 주제인 아래 시는 닫쳐진 마음의 문이 열려 득도의 경지를 맛보고 있다.

그때, 철판같이 견고한 철판 한 장이 내렸다 / 엄마가 나게 나직이 말했다 얘야 / 누구든지 자기 안에 파란 대문이 있단다 네 안을 들여다 보렴 /// 가만히 바라보니, 파란 대문하나가 떡 버티고 있었다 / 흔들어 보아도 / 꼼짝도 하지 않았다 / 하지만 엄마, 문이 잠겨있어요 열쇠가 없어요 / 걱정 말아라 네 마음을 그 열쇠구멍에 꼽고 힘껏 비틀어 보렴 /// 나는 굳게 닫힌 파란대문의 열쇠구멍에 나의 / 마음을 꽂고는 힘껏 비틀었다 그러자 저편 / 시간의 태엽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다 순간, 내 마음의 / 경계선이 모두 지워져버렸고 내 생각의 안팎이 무너져버렸다 / 촘촘한 두려움의 경계가 훨훨 날아가 버렸다 그리고 더 이상 / 파란대문은 내 안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9] 하지만 사람들은 안다, 마음의 문을 열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세상에서 / 가장 열기 어려운 / 문이 / 마음이라네 // 굳게 잠겨 있는 / 문 / 좀처럼 / 열리지 않는다네 // 열릴 듯하다가 / 다시 / 잠기는 / 문"**

–이근풍 '마음의 문'[10]

창호지 문에 달비치듯 / 환히 비친다 네 속살거정 / 검은 머리칼 두 눈 / 꼭두서니 물든 두 뺨 / 지금도 보인다 낱낱이 보인다 ///[11] 30~40년 전만 하여도 흔하던 창호지문은 보통 여닫이 외짝문이다. 하지만 규모가 갖춰진 집에는 두 짝으로 되어 있고 추운 겨울에 대비하여 밖에는 여닫이문으로, 안에는 미닫이문으로 이중문을 하였다. 이 때 방풍을 위한 밖의 문을 빈지문이라고 부른다. 창호지 이중문은 페어글래스보다 단열효과가 더 크며, 추석 전에 문 바르기로 겨울나기를 준비 하였다.

아제비들이 풀칠한 창호지를 문살에 바른 후 물 한 모금 입에 물고 분무기처럼 '푸아'하고 뿜어대면 문 바르기는 끝이 난다. 이때 할머니께서 들국화 몇 가지를 꺾어 오시면, 꽃과 이파리를 문잡이 쪽에 예쁘게 놓고 나서 어른 양손만한 크기의 창호지를 덧바른다. 손잡이 부분이 뚫어지기 쉬우니 이를 막으려면 어차피 창호지를 겹 발라야 하고, 그사이에 꽃을 넣어 운치를 돋우니 그야말로 임도 보고 뽕도 따며, 도랑 치고 가재 잡는 격이다. 양지바른 토방에 쭉 널어 말린 후 제자리에 달라치면 그 팽팽하기가 손만 닿아도 쇳소리가 날 정도였다 / 그날 밤, 잠자리에 누우면 창호지에 배인 풋풋한 풀냄새와 함께 날듯말듯한 국화향이 그리도 싱그러웠다. 캄캄한 방안에 보름달이라도 용(用)자 문에 비치면 국화꽃은 그림자놀이를 하였다. 숙부댁은 국화 대신 코스모스를 자주부터 연분홍까지 색색으로 넣어 놓았다. 한겨울까지 탈색되지 않고 자태를 뽐내는 코스모스가 놓여 진 띠살문은

물쪽은 완자문으로, 뭍쪽은 띠살문으로 장식한 부용정

6~7) 쿠바와 고그리는 내가 사는 동네의 맥주집과 고기집 이름인데 얼마전에다 문닫았다.
8) 1943년생이 서울 귀안에 슬픈 망 있네 외
9) 신지혜 「파란 대문」 〈서울 미국거주〉
10) 전북임실–나에게 쓴 편지 / 가슴에 고인 사랑 / 아침에 창을 열면 외
11) 이근배 「찔레」

가을을 겨울 속에 품고 있었다

–필자 수필 「꽃문 바르기」[12]

우리 선조들은 문에 들어가는 문살도 방의 용도에 맞도록 제작하였다. 사랑방에는 손님과 대화가 끊이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입(口)을 의미하는 정자(井字)살문이나 띠살문을 만들었고, 안방에는 부부가 떨어지지 말고 금실이 좋으라고 아자(亞字)문이나 완자문을 달았다. 궁궐이나 사찰의 주건물에는 꽃살문을 달고 색칠까지 하여 호화롭게 장식하였다.

문의 종류를 좀 더 살펴보면 전체를 나무로 만든 판장문과 골판문이 있고, 문틀에 살을 넣고 창호지를 바르는 문의 양식에 띠살문, 정자살문, 빗살문, 소슬빗살문, 완자문, 아자문, 꽃살문이 있다. 문살에 종이를 바른 장지문과 안팎으로 바른 갑장지문이 있다. 또한 문짝의 중간부분만 살창으로 한 연창문도 있다. 전통문의 특징 중 하나는 분합문이다. 통상 4짝으로 되어 있는 분합문은 대청과 누마루 사이 또는 안방과 웃방 사이에 만들어져 필요에 따라 들어 올려 공간을 넓게 쓸 수 있도록 만든 개폐식 문이다. 오늘날 한국의 주거문화는 서양의 개인주의 경향에 따라 공간이 고정되어 있으며, 문명의 이기인 자동문이 많은 점포와 빌딩에 설치되어 있다.

이제 어디를 가나 아리바바의 참깨 / 주문 없이도 저절로 열리는 / 자동문 세상이다 / 언제나 문 앞에 서기만 하면 / 어디선가 전자 감응 장치의 음흉한 혀끝이 / 날름날름 우리의 몸을 핥는다 순간 // 스르르 문이 열리고 스르르 우리들은 들어간다 / 스르르 열리고 스르르 들어가고 / 스르르 열리고 스르르 나오고 / 그때마다 우리의 손은 조금씩 퇴화되어 간다 / 하늘을 멀뚱멀뚱 쳐다만 봐야 하는 / 날개 없는 키위 새 / 머지않아 우리들은 두 손을 잃고 말 것이다 / 정작, 두 손으로 힘겹게 열어야 하는 / 그 / 어떤 / 문 앞에서는 // 키위키위 울고만 있을 것이다

– 유하 '자동문 앞에서'

정작 열기 어려운 문이 삶의 길목에 버티고 있는데, 손을 이용하여 쉽게 열문은 자동문이 되어버렸다. 세상의 모든 문들이 꿈 속 문과 같기를 바란다면 이야말로 꿈일까? **문을 열고 / 들어가서 보면 / 그 것은 문이 아니었다 /// 파아란 바다가 보이는 / 산모롱이 길로 / 꽃상여가 하나 / 조용히 흐들리며 가고 있었다 /// 꽃상여는 작은 배애 실렸다 / 그 배가 떠나자 / 바다 위에는 갑자기 어둠이 오고 / 별빛만이 쏟아져 내렸다 // 문을 닫고 나와서 보면 / 그것은 문이 아니었다**

–조지훈 '꿈이야기'

"문지방 하나 / 또 넘어선다 / 황막한 광음의 광야에 서서 ///"[13] 입신양명을 위해 새해를 타향에서 맞길 수년, 고독과 상실에 몸부림치다 돌아온 옛집에는 그 잘난 자식에게 모든 걸 주고 빈항아리가 된 어머니가 있다. **"햇살 아래서만 돌던 젊음 / 다 지난 뒤 / 옛집 대문 안으로 / 고개 숙이고 들어서면 / 뒤쫓는 내 발자국에 놀라는 어둠은 / 등 돌린 어깨로 흘러 떨어지는 빗물 빛이다 / 허리 휜 계단 논에 엎드린 두꺼비 빛이다 / 불면에 시달린 새벽 안개 빛이다 / 돌아오는 그림자에 귀 세우며 / 담장에 웅크린 빈 항아리, 어머니 / 시린 눈빛이다."** 하지만 그에게도 어린 날 아름다운 추억이 있다.

추운 날 혼자서 / 대문 앞에 서 있으면요 / 지나가던 아저씨가 / 엄마를 기다리니? 발 시리겠다 / 지나가던 아줌마가 / 원 저런, 감기 걸리겠다. 집에 들어가거라 / 지나가던 강아지가 / 야단맞고 쫓겨났군, 안됐다, 컹컹 // 대문 앞에서 친구를 기다리는 / 내 마음 / 알지도 못하고 // 팽, 팽, 팽 돌고 싶은 팽이가 / 내 주머니 속에서 / 친구를 동동 기다리는 줄도 모르고….

–이준관 '추운 날'[15]

파란 양철 대문에 사자머리 문고리 장식이 붙어 있다. 어느 날 손잡이인 코뚜레를 망치와 펜치로 끊어 던졌다. 문득 코뚜레 한 사자를 잡귀들이 무서워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다음날 풀숲을 헤쳤다. 다시 코뚜레 손잡이를 찾아 사자 콧구멍을 뚫었다. 장식의 의미가, 이 집에는 사자도 코뚜레 뚫을 만큼 용감한 사람이 산다는 뜻일 것 같아서였다.[16]

대문에는 문고리가 있고 배목판이 있다. 배목판은 잡귀를 쫓기 위한 치우천황상이 많았고, 근세에는 사자머리 등도 등장하였는데, 손님이 왔음을 알리는 두드림을 문고리로 배목판에 하였다. 여기 득도일념으로 봄이 다할 때까지 문 열 줄도 모르는 산사엔 문고리도 없으리라

절집은 흰 구름 속에 있건만 / 흰 구름, 스님은 쓸지를 않네 / 손님이 오신다기 문 열고 보니 / 온산골짝 송화 꽃 하마 쇠었네[17]

–이달 '불일암 인운스님에게'

창

어둑새벽 창을 열다 / 쏘는 듯 신선한 바람 / 부드러운 햇살 / 깨끗한 눈뜨임에 감사하며 / 오늘도 하루가 시작된다 // 고요함 속으로 걸어오는 / 발자국 소리 / 존재하지 않는 소리가 / 태어나고 / 힘 있게 일어서는 생명의 빛 // 길 없는 길 열어 가는 / 새 떼처럼 / 나도 이 아침 날개를 펴다 // 도전과 극복이다

–김후란 '새벽, 창을 열다'

창은 밖을 볼 수 있고 환기를 할 수 있으며 채광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새벽의 창은 희망이다. 동쪽에 창이 있는 방은 그

12) 장양순 저 「툇마루한담」 중에서
13) 이희승 「새해」
14) 김금용 「어둠의 빛깔」
15) 1949년생 정읍 황야 외 동시집 우라나라 아이들이 좋아서
16) 함민복 「집에 대한 패설」 중
17) 寺在白雲中 白雲僧不掃 客來門始開 萬壑松花老

래서 좋다. 아침 창가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당신'의 모든 것이 있다. 창은 희망이며 그리움이기도 하다.

아침에 창을 열면 / 고운 햇살 같은 당신이 보고 / 싶습니다 / 아침에 창을 열면 / 새소리 같은 당신의 노래가 듣고 / 싶습니다 // 아침에 창을 열면 / 살가운 바람 같은 당신이 / 생각납니다 // 아침에 창을 열면 / 푸른 하늘같은 당신이 / 그립습니다 // 아침에 창을 열면 / 맑은 공기 같은 당신 향기가 맡고 싶습니다 // 아침에 창을 열면 / 희망 같은 꿈을 줄 당신이 너무 / 그립습니다

–오선장 '아침에 창을 열면'

한옥은 들창이 가장 흔하며 교창이나 살창도 있다. 또 문 속의 창인 눈꼽재기창도 있다. 이는 문의 중간부를 별도로 열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중 **"남향인 안방 영창엔 밝은 햇빛이 보송보송 핀 햇솜처럼 보드랍게 머무르고 있었다."** [18] 는 표현처럼 영창은 방안을 밝게 하기 위해 마루 쪽으로 낸 두 짝의 미닫이인데, 그리움의 주제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희승은 **"휘영청 밝은 달이 영창으로 새어들어 / 억지로 눈을 감고 잠못이뤄 고생"** [19] 하고, 김달진은 **"미닫이창에 가득히 밀려든 한나절 햇볕 / 무엇을 잊은 듯 서운하야 눈을 감아본다"그리곤 "콧물 훔쳐가며 / 담벼락에 등 붙이고 놀던 / 어린시절 / 그 따듯했던 햇살이 그리워진다 ///** –김달진 '햇볕'

송강(松江)은 **"마음이 달되어 영창에 비치셨다니 / 화초 병풍 위에 서러운 이 눈물"** [20] 을 쏟고 있으며, 황금찬은 **"하얀 창호지 / 남창가에 머무는 / 동백꽃 소식 / 얼음이 앉았던 자리에 / 꽃잎이 앉듯 / 인정이 먼 가슴엔 / 사랑이여 오려나."** [21] 고대하고 있다. 묏버들을 자기화하는 홍랑의 연정이, 햇빛은 받아들이고 바람은 막는 창호지의 실루엣처럼 아련하다. **"묏버들 가려 꺾어 보내노라, 님의 손대 / 자시는 창 밖에 심어 두고 보소서. / 밤비에 새잎 나거든 날인가도 여기소서."** –홍랑 [22]

사랑과 창의 관계는 동서양이 다를 바 없다. 서양에선 연인의 창가에서 세레나데를 부르는데, 우리네는 **"낮이면 / 구름이 되어 / 너의 창 앞에 떠돌다가 / 밤이 되면 / 비가 되어 / 네 잠든 꿈 언덕에 / 소리 없이 내리리라"** [23] 고 노래한다. **"더 그리워지기 전에 창문을 닫는"** [24] 여린 마음부터 투명한 유리창에 그리움을 말리고, 그리움으로 열리는 강에 다리를 놓기도 한다.

누군가 그리운 날은 / 창을 닦는다 // 창에는 가장 눈부신 유리가 끼워 있어 // 천도의 불로 꿈을 태우고 / 만도의 뜨거움으로 영혼을 살라 만든 / 유리가 끼워 있어 // 솔바람 보다도 창창하고 / 종소리보다도 은은한 / 노래가 떠 오른다 // 온몸으로 받아들이되 / 자신은 그림자조차 드러내지 않는 / 오래도록 못 잊을 사랑하나 살고 있다 // 누군가 그리운 날은 / 창을 닦아서 // 맑고 투명한 햇살에 / 그리움 말린다 –문정희 '유리창을 닦으며'

창은 외경(外景)을 네모진 액틀에 끼워 / 방안의 답답한 하루를 위무한다 / 밖으로 열리는 눈을 즐겁게 하고 / 답답한 사람의 내부를 즐겁게 한다 / 어두운 속을 밝히고, 저 멀리 / 멀리에 마음을 실어가는 그리움을 만든다 / 그리움으로 열리는 강에 다리를 놓고 / 사람과 사람의 가슴에 / 다리를 건넨다 –박남수 '창' [25]

유리창을 '세월의 단면을 가로막는 투명체,'와 '맑은 눈'으로 보는 두편의 시가 있다.

갈피 잡을 수 없이 엇갈린 생각을 / 네게 의지하면 / 나의 그리움은 비로소 하나의 형상을 이룬다 // 허구한 날 물같이 흐르는 세월의 단면을 / 조용히 가로막은 투명체 / 나의 창(窓)이여 /// 그리하여 밤이면 밤마다 나는 / 창(窓), 너와 더불어 침묵하며 오래 오래 참고 기다리는 / 눈을 기른다, 절망하지 않는다

–이형기 '창'

창을 사랑하는 것은, 태양을 사랑한다는 말보다 / 눈부시지 않아 좋다 / 창을 잃으면 창공으로 나아가는 해협을 잃고 / 명랑은 우리에게 오늘의 뉴스다 / 창을 닦는 시간은 또 노래도 부를 수 있는 시간 / 별들은 12월의 머나먼 타국이라고 /// 창을 맑고 깨끗이 지킴으로 눈들을 착하게 뜨는 버릇을 기르고 / 맑은 눈은 우리들 / 내일을 기다리는 / 빛나는 마음이게 /// –김현승 '창'

유리창은 창호지창과 달리 투명하여, 차게 느껴지는 면과 깨끗하다는 양면을 지니고 있다. 시인의 창은 스러지는 생명을 디딤돌로 무한히 지속되는 우주의 섭리가 통하는 곳이요, 유리창에 부딪혀 죽은 새가 살아나 자유로이 통과하는 곳이기도 하다.

학교는 유리창이 참 많은 건물 / 종 종 뒷산의 산새들 / 학교 유리창에 부딪혀 죽는다 / 유리창에 숨어 사는 뒷산 때문이라고도

낙선재의 만월문 –외부에도 있다

문 속의 창, 눈곱재기창을 둔 체화정

18) –서기원 '암사 지도'
19) –이희승 '시조 실솔(蟋腸소곡1)'
20) –정철, 김동환 번안. '내마음 비어내어'
21) –황금찬 '발소리'
22) 조선 중기 명기. 홍원. 당대 8문장으로 불리던 최경창에게 준 이별 시
23) –황금찬 '사랑의 에스프리'
24) –원재훈 '더 그리워지기 전에'
25) 박남수 시선집〈어딘지 모르는 숲의 기억〉

한다 / 발효한 산열매를 조아 먹고 음주비행을 했기 때문이라고도 하지만 / 새가 되고 싶은 유리창의 음모라는 풍문이 설득력이 있다 /// 유리창에 부딪혀 죽은 새는 다시 살아나 / 유리창을 마음대로 통과하며 살아간다고 한다 / 산맥과 달님도 마음대로 뚫으며 날아다닌다고 한다. –장인수 '유리창'

그런가 하면 유리창에 촛불을 밝히며 이 겨울이 빨리 가고 따스한 봄이 어서 오기를 기도한다.

파랗게 언 유리창에 / 장미를 피우듯 / 고운 촛불을 밝혀 둡시다 // 창 밖은 사뭇 휘몰아치는 눈발 / 벗은 나무 가지들 / 찬바람 속에 흐느끼며 / 거친 등결 밑에 무수히 금긋는 / 아픔을 앓는 밤이옵기에 // 막 피어나는 장미 빛 등불을 밝혀 두며는 / 저들을 위해 자비스런 축도(祝禱) / 우리에겐 소리 없는 / 갈채도 되리니 // / 연연한 첫가락을 / 맨 먼저 그 손에 / 감아 드리리니 / 파랗게 언 유리창에 / 장미를 피우듯 / 고운 촛불을 밝혀 둡시다

–김남조 '장미를 피우듯' [26]

"창을 열면 / 저 변산의 산자락들 / 아슴한 골안개에 묻히면서 / 난초 잎에 몇 방울 이슬로 차(다)"고 –송수권 '蘭' **"미루나무 강변엔 / 아직도 흘러간 사랑이 /// 못잊을 창가에 가 서면 / 하늘엔 / 하얀 치마 두른 / 여인의 부끄러움이"**있다. [27] **"검정 수목 두루마기에 / 흰 동정 달아 입고 / 창에 기대면 // 박 넌출 상기 남은 / 기울은 울타리 위로 장독대 위로 / 새하얀 눈이 / 나려 쌓인다"** [28] "흰 동정과 흰 눈이 낭만적인 위 시와 달리 좋았던 시절을 회상하며 무료하게 화투패를 떼는 늙은 접대부도 있다. /// **"눈 내리는 창가에 앉아 그여자 화투패를 듭니다 / 공산에 명월이라 / 기다리지 않아도 님이 온다 / 식어버린 톱밥난로 옆 / 그믐처럼 눈을 내려 깔고서 / 그 여자, 좋았던 시절을 / 생각합니다 호오호오 입김을 불어가며 / 유리창 위 듯모를 글자를 새깁니다 ///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 낡은 탁자위 / 그 여자가 놓아둔 공산에는 / 어느새 눈물이 한 점 보름달처럼 / 환하게 떠올라 있습니다"** –최갑수 '창가의 버드나무'

창밖의 비는 **"새로 두시에 산등성이를 건너온 비는 / 내 방창을 두드린다 창문에 / 조팝나무 잎이 우표처럼 붙어 있었다 ///"** [29] 비바람의 조화를 노치지 않은 위의 시와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에 새벽잠에서 깬 시인의 타임머신을 탄 과거여행이 재미를 더한다. **"무엇을 원하는지 / 하늘의 기타줄이 끊어졌는지 / 머리를 치렁치렁 기른 빗줄기들이 / 새벽부터 내 창문을 두드렸다 / 헌데, 찰나 나의 망상은 최치원의 한시로 달려갔던 거다 / 이런 곳이 문화의 힘이고, 전통의 생명력일가 / 내가 빗줄기를 헤비메탈 같다고 느끼는 사이 / 내 마음 속애선 / 창밖에 삼경의 비 내리는데 / 등 앞엔 만리의 마음 달리는구나 / 라는 시구가 떠오른 것이다 / 오로지 그것뿐이었다. / 나의 무식과 무교양을 한참 동안이나 탓해보았지만 /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 [30] 하지만 생전에 이루지 못한 해방을 꿈꿨던 시가 아쉬움을 더한다. **"/// 육첩방은 남의 나라 /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

–윤동주 '쉽게 쓰여진 시'

통풍과 채광을 위한 다양한 표정의 창과 문 – 청도 운강고택의 부엌

겨울아침 유리창에 가득 반짝이는 / 성애를 본다 유리창에 만발한 하얀 식물 / 꽃과 잎과 줄기를 본다 / 무엇일가 막힘없는 물방울들을 / 섬세한 꽃과 잎의 무늬 안에 가두어 놓은 힘은 /// 겨울 아침 하얀 성애를 보며 / 문득 지상의 모든 얼음들을 떠올린다 / 푸른 얼음들 속에 울창하게 퍼져있는 / 또 다른 원시림을 생각해 본다 / 청정한 법과 도가 / 열대의 온갖 동식물처럼 / 뿌리내리고 자라 넘실거리는 / 뛰고 날고 헤엄치며 노는 / 투명하고 차가운 밀림을 생각해본다. [31] 어릴적 추운 날, 유리창에 기하학적으로 그려진 무수한 성애꽃을 보고 우리는 얼마나 찬탄했던가. 지금은 건축의 발전으로 단열이 잘 되어 볼 수 없는 풍경이기에 아쉽기만하다.

추위가 칼날처럼 다가든 새벽 / 무심히 커튼을 젖히다 보면 / 유리창에 피어난,아니 이런 황홀한 꿈을 보았나 / 세상과 나 사이에 밤새 누가 / 이런 투명한 꽃을 피워놓았을까. / 들녘의 꽃들조차 제 빛깔을 감추고 / 씨앗 속 깊이 숨죽이고 있을때 / 이내 스러지는 니르바나의 꽃을 / 저 얇고 날카로운 유리창에 누가 새겨 놓았을까 /// 누가 저토록 슬픈 향기를 새기셨을까 / 한 방울 물로 스러지는 / 불가해한 비애의 꽃송이들을 –문정희 '성애꽃'

검은 유리창을 둘러놓아 거리를 지날때마다 / 궁금했던 카페 안으로 들어와 보니 / 안에서만 바깥이 보이는 / 창을 붙여놓았다 창가에 앉아 / 내가 걸어온 길거리의 풍경을 바라본다 / 술잔이 비워지자 아는 사람이 지나 간다 / 나는 그이를 보며 웃어 보인다 / 그이는 웃지 않는다 / 나는 손을 흔들어 보인다 / 그이는 창가를 스쳐 지나간다 –윤병무 '낮술'

이러한 창에 대한 기원은 믿음으로 승화되고 있다

여보 / 내 마음은 유린가봐 겨울 한울처럼 / 이처럼 작은 한숨에도 흐려버리니…. // 만지면 무쇠같이 굳은 체 하더니 / 하로 밤

26) 1958년생이 아름다움
27) 최돈선 「미루나무 강변」
28) 조지훈 '눈 오는 날에」 부분
29) 권혁웅 「왕십리」 〈67 충주 황금나무아래서〉
30) 진이정 「헤비메탈 같은 비」 〈59 춘천 거꾸로선 꿈을 위하여 유고시집〉
31) 김기택 「얼음 속의 밀림」 〈57 안양 태아의 잠 외〉

찬 서리에도 금이 갔구료 // 눈포래 부는 날은 소리치고 우오 / 밤이 물러간 뒷면 온 빰에 눈물이 어리오 // 타지 못하는 정열 박쥐들의 등대 / 밤마다 날어가는 별들이 부러워 쳐다보며 밝히오 // 여보 / 내 마음은 유린가봐 / 달빛에도 이렇게 부서지니

–김기림 '유리창'

"창 밖에 가득히 낙엽이 내리는 저녁 / 나는 끊임없이 불빛이 그리웠다" [32] 늦가을 낙엽 속의 쓸쓸함과 초겨울 부부의 정감어린 대화가 대조적이다. **"자정 넘어 든 잠자리에서 / 바라보는 창문에 나무그림자가 서렸다 / 가을은 너무 깊어 이미 겨울인데 / 저 나무를 비추고 서있는 등불은 / 얼마나 춥고 외로울까 / 갑자기 어려져서 철없이 하는 말을 듣고 / 옆에 누운 사람이 하는 말 / 그럼 나가서 등불이나 껴안아주구려 / 핀잔을 준다 / 그래 정말 막막한 이 밤 등불의 친구나 될까보다 / 괜스레 마음은 길 위에 있다"**

–나해철 '가을 끝'

미세기창은 반만 열리게 되어있고, 방충망이 설치되어 있다. 어느 날 사용하지 않던 반쪽의 창을 통해 시인은 다른 세상을 본다.

사용하지 않는 창이 있다 / 언제부턴지 모르겠지만 / 잠에서 깨어나 무심결에 여는 창도 / 일을 하다가 비가 오거나 하여 다가서는 창도 / 밖으로 나갈 때 확인하는 창도 / 늘 한쪽창이다 /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커튼도 늘 한쪽으로만 쳤다 /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으므로 /// 어느날 밤늦게 집에 들어 갔는데 아들놈이 잡아 놓은 매미를 날려주어야 한다고 징징거렸다 /// 그런데 열리는 창은 모두 방충망으로 되어 있어 결국 한 번도 쓰지 않은 창을 열어 매미를 날려주며 나는 보았다 ///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지저분해진 그 창문으로는 / 다른 세상이 보였다

–오철수 '사용하지 않는 창' [33]

인생에 있어 사랑과 고독은 함께한다.

"물들은 나뭇잎새 / 달빛에 젖어 // 비인 뜰에 귇도리와 / 함께 자는데 // 푸른 창가에 / 귀 기울이고 // 생각나는 사람 있어 / 밤은 차고나" [34] 와, **"밤마다 나의 창문가에 / 밤새워 깨어있는 나의 별아 / 너와 나사이의 길은 멀고도 멀어 / 저녁이면 내미는 이 팔이 / 오늘밤도 창문턱에 고달피 누었다."** [35] 는 연인에 대한 그리움이다. 이와 달리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 모래알 같은 이름 하나 불러본다 /// 얼굴을 가리우는 차가운 입김 /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 물방울 같은 이름 하나 불러본다. / 어머니, 자식, 남매의 사랑 그리고 노란새"** [36] 가족애이고, **"낮에 나온 반달, 나를 업고 / 피투성이 자갈길을 건너온 / 뭉툭하고 둥근 발톱이 / 혼자 사는 변두리 아파트창가에 걸려있다 / 하얗게 시간이 째깍째깍 흘러가버린 / 낮에 잘못나온 반달이여"** [37] 는 어머니의 고독에 대한 연민이다.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 열없이 붙어 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 길들은 양 언 날개를 파닥거린다 ///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 / 고운 폐혈관(肺血管)이 찢어진 채 / 아아,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38] 란 시는 어린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아픔이 창가에 투영되고, **"팡, 유리창에 부딪히는 / 작고 보드라운, 주둥이 노란새 / 손으로 감싸 안자 눈빛이 사라진다 / 온 몸에 찍히는 체온의 흔적 / 새가 한 번도 날지 못한 하늘에 / 노을이 스친다, 아른거린다 // 새를 돌려주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다. /// 새를 내려 놓는다. 솔잎이 내린다. 솔잎이 솔잎 위에 내린다. 나도 내 위에 내리고, 툭, 그 위에 다시 내리는 솔잎, 솔잎. 툭"** [39] 에선, 투명한 유리창에 부딪쳐 죽은 작은 새를 묻어주며 하나가 된다.

"지금 그 사람 / 이름은 잊었지만 / 그 눈동자 입술은 / 내 가슴에 있네 / 바람이 불고 / 비가 올 때도 / 나는 저 유리창 밖 / 가로등 그늘의 밤을 / 잊지 못하지" [40] **"저는 항상 꽃잎처럼 겹겹이 에워싸인 마음의 푸른 창문을 열어놓고 / 당신의 그림자가 어리울 때까지를 가슴 조여 안타까웁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 하늘이여"** [41] 흘러간 사랑이든, 끝없는 짝사랑이든, **"사랑하는 것은 / 사랑을 받느니 보다 행복하니라 / 오늘도 나는 / 에메랄드 및 하늘이 환히 내다뵈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42] 낭만적인 사랑은 지금도 있겠지만 IT세대의 방법으로도 이런 맛을 느낄 수 있을까?

서양에선 한 때 굴뚝세와 더불어 창문의 숫자에 비례한 창문세도 거두었다지만, **"고드름 고드름 수정 고드름 / 고드름 따다가 발을 놓아서 / 각시방 영창에 달아놓아요"** [43] 는 순수한 동심의 세계로 인도하고, 남으로 창을 낸 초가삼간의 귀거래사는 읽는 것만으로도 삶을 청정하게 한다.

남으로 창을 내겠소 / 밭이 한참갈이 // 괭이로 파고 / 호미론 풀을 매지요 // 구름이 꼬인다 갈 리 있소 /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랴오 // 강냉이가 익걸랑 함께와 자셔도 좋소 / 왜사냐 건 / 웃지요.

–김상용 '남으로 창을 내겠소'

전형적인 치우천황상(귀문)의 배목판

본지 편집방침에 의해 6회로 마감하는 "시로 지은집"은 추가원고 및 기 연재분의 보완과 함께 내년에 책으로 만나보실 것입니다.

32) 황동규 「10월」 부분 〈38 평남 숙천 '사는 기쁨」 외〉
33) 1958년생 인천 시가 사는 마을 등
34) 조지훈 「사모」 부분
35) 모윤숙 「나의별」 부분 〈10 원산 렌의 애가〉
36) 이가림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37) 박형준 「어머니」
38) 정지용 「유리창 1」
39) 손필영 「솔잎」 〈빛을 기억 하라고?〉
40) 박인환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41) 김관식 「다시 광야에서」
42) 유치환
43) 유지영

협회소식

제8회 이사회

2013년도 제8회 이사회가 지난 8월 21일 오후 2시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협의사항으로 사무기구 개편의 건, APEC 등록건축사 운영매뉴얼 개정의 건, 2013년도 일본건축가협회 전국대회 참가의 건과 부의안건으로 한국건축산업대전운영규정 개정의 건, 건축자재추천업무규정 개정의 건, 건축사등록원운영규정 개정의 건, 전라남도건축사회 제명회원 미납회비 결손 처분의 건, 비품 폐기의 건, 사무조직 개편에 따른 관련규정 개정 및 직원전보의 건, APEC 등록건축사 운영매뉴얼 개정의 건, 회원신고관리규정 개정의 건과 기타사항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사무기구 개편의 건
  –부의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함.
- 제2호 : APEC 등록건축사 운영매뉴얼 개정의 건
  –부의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함.
- 제3호 : 2013년도 일본건축가협회 전국대회 참가의 건
  –원안대로 참가하기로 하며 우리협회와 일본건축가협회간의 격년제 방문 및 초청에 대한 논의를 하기로 함.
  ▷대표단 : 회장외 1인, 소요예산 : 3백만원
  ▷예산집행은 UIA PPC 참가 잔여예산(약 340만원)에서 집행

▲부의안건

- 제1호 : 한국건축산업대전운영규정 개정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의안 : 건축자재추천업무규정 개정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호의안 : 건축사등록원운영규정 개정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 제4호의안 : 전라남도건축사회 제명회원 미납회비 결손 처분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결손처분 대상 10명, 결손처분액 : 15,880,000원)
- 제5호의안 : 비품 폐기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 제6호의안 : 사무조직 개편에 따른 관련규정 개정 및 직원전보의 건
  –회장에게 위임함.
  ▷ '13.9.1 사무조직 개편 완료
  ■ 기획실과 문화홍보실을 기획홍보실로 통합 · 개편
  ■ 실적관리팀의 소속을 회원지원실에서 등록관리실로 변경
  ■ 정책연구실의 업무 중 건축사법 운영은 등록관리부서로 이관
  ■ 회원지원실장의 교육관리 겸직 해제
  ▷주요 인사이동
  등록관리실장 장영인 / 경력관리실장 허훈 / 교육관리실장 이홍식 / 기획홍보실장 대행 최동일 / 운영실장 대행 고한상
- 제7호의안 : APEC 등록건축사 운영매뉴얼 개정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 제8호의안 : 회원신고관리규정 개정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기타사항

- 2013년도 제9회 이사회를 '13.9.25(수) 14시에 개최하기로 함.
- 건축법인 설립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사 모두가 동의하나 법인의 업무를 제한하거나 규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추이를 지켜보기로 하고 추후 법안이 정리되면 협회 이사와 시도건축사회장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하기로 함.
- 나홀로 건축사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위원회 개최 현황

■ 제4회 감리제도개선 TF

제4회 감리제도개선 TF 회의가 지난 8월 21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감리제도개선 연구 내용(감리대상 등)에 대한 방향 설정의 건
  –아래의 사항을 건기연에 제안하기로 함.
  1) 설계 · 감리 분리에 대하여 법적 근거 마련
  2) 설계와 감리분리시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 의무화(건축가협회 및 새건축사협의회 요구사항임)
  3) 감리대상 건축물 : 비상주 건축물로 한정
  4) 감리비 예치제도의 법적 제도화 필요
  –공청회에 대비한 객관적 자료 정비 방법에 대한 사항

–건기연의 황은경 박사가 국토부 건축과장에게 보고하기 전에 협회의견을 전달하기로 함.
–국회의 일정에 맞추어서 철저히 대비하기로 함.

■ 제2회 녹색건축 소위원회

제2회 녹색건축 소위원회 회의가 지난 8월 22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물 유지관리법 제정(안)의 건
–건설기술연구원의 제정(안)을 기존 협회(안)과 비교한 결과 정리된 문제점에 대해 건설기술연구원 담당자와 협의하여 개선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제정(안)의 목적에 건축법의 취지와 목적이 누락
▷대통령령으로의 전면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
▷중앙정부의 건축물 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 필요
• 제2호 : 유지관리점검 평가제도 관련 건축법령 개정(안)의 건
–아래 내용을 보완하여 국토부에 전달하는 것이 필요함.
▷점검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되 양정기준을 구체적 · 합리적으로 규정
▷평가 위탁기관은 우리협회로 규정
▷기타 문구 조정

■ 법제현안 TF

법제현안 TF 회의가 지난 8월 27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사법인제도 도입안 검토의 건
• 제2호 : 건축사실적관리제도 개선안 검토의 건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법인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함.
• 제3호 : 건축사공제조합 분리운영안 검토의 건
–건축사공제조합을 협회에서 분리운영하는 안에 대해 협회의 공식입장은 분리운영에 찬성하는 것으로 하되 다음 사항에 검토하여 보완하여 진행하기로 함.

■ 제5회 회장 직선제 TF

제5회 회장 직선제 TF 회의가 지난 9월 3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정관 및 임원선거관리규정 개정(안) 협의의 건
–정관 개정(안)은 오늘 회의로 확정하고, 임원선거관리규정 개정(안) 논의과정에서 수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보완키로 함.
–임원선거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해서는 조항별 축조심의를 하고, 향후 1~2회 논의를 거쳐 10월말까지 확정키로 함.

■ 제5회 국제위원회

제5회 국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9월 4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2013년도 JIA 전국대회 참가의 건
–짝수 해에는 본협회가 JIA 명예회원 수여 대상이므로, 2014년도 까지는 JIA 전국대회 참가에 관한 예산을 수립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함.
• 제2호 : 제16차 한중일건축사협의회 참가의 건
–업무분장에 따른 대표단의 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함 (발표자료 준비, 참가 후 보고서 제출 등)
• 제3호 : 제34차 ARCASIA 이사회 및 제17차 ARCASIA 포럼 참가의 건
–참가희망자 : 김지덕, 이근창, 신춘규, 김성민, 이승석, 강승우(후반부 참가) / 이윤석(별도참가)
–전일정 참석, Committee Meeting(5~7일) 참석, ARCASIA Forum 참석 일정을 구분하여 참가하는 방안을 제안 함.
–대표단 구성은 업무분장에 따라 적임자를 제안하여 최종결정은 회장에게 위임하도록 함.
• 제4호 : 제56차 일본건축사회연합회(JFABEA) 전국대회 참가의 건
–원안대로 승인하도록 함.

▲기타사항

2013년도 ARCASIA 건축상 수상예정자 명단 접수
–김태만 건축사는 ARCASIA의 규정을 준수하되, 수상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함.

■ 제1회 대한민국 신인건축사 대상 심사위원회

제1회 대한민국 신인건축사 대상 심사위원회 회의가 지난 8월 14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2013년도 대한민국 신인건축사 대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류춘수 위원을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함.
• 제2호 : 2013년도 대한민국 신인건축사 대상 심사방법 및 절차의 건
–제1차 서류심사는 각 위원이 탈락할 작품을 선택해서 많이 선택된 13작품을 탈락시키기로 하고, 2차 현장심사에서는 붙임 심사기준표를 일부 변형하여 심사하기로 함.
–제출서류로 설계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가로 확인서를 받기로 함.
• 제3호 : 2013년도 대한민국 신인건축사 대상 1차 심사의 건
–붙임 1차 심사결과표와 같이 13작품을 선정하여 4일간 2차

현장심사를 실시하기로 함.

–2차 현장심사는 9.1(일) – 세종, 9.2(월) – 경북 · 경기, 9.9(월) – 서울, 9.10(화) – 제주 · 인천으로 나누어 총 4일간 실시하기로 함.

■ 제4회 미래인재육성위원회

제1회 대한민국 신인건축사 대상 심사위원회 회의가 지난 8월 20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발주처의 불합리한 계약요구의 건

–이번주(8/23)까지는 각 위원이 제공한 자료를 정리하여 요약본만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다음주에 자료를 정리하여 제공하기로 함.

- 제2호 : 지자체 및 발주기관의 부당한 기준 등의 건

–지자체 및 발주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의 장 · 단점이 있으므로 지역별로 실제 적용하고 있는 건축허가 및 심의기준을 취합하여 제공하기로 함.

- 제3호 : 핸드폰 건축사의 실태와 폐해의 건

–회원정보 및 건설기술자 정보를 활용하여 통계자료를 작성하고, 건축사 혼자 사무소를 운영하는 부분의 폐해보다는 현재 실태를 알리는 방향으로 보고하기로 함.

■ 제1회 건축사등록원운영위원회 소위원회

제1회 건축사등록원운영위원회 소위원회 회의가 지난 9월 4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자기계발 인정심사의 건

–건축사 자기계발 인정은 교육위원들의 1차 심의 후(총 188건 중 인정 162건, 이견 26건) 이견이 있는 26건에 대하여 심사 함.

▲기타사항

- 건축사자기계발 인정 세부기준 마련

–전영철 위원이 작성한 자기계발 인정의 세부내용, 인정시간 등에 대해 협의하여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차기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하여 추후 사무처에서 활용토록 함.

김영수 회장, 강원도건축사회서 정책 간담회 가져

우리협회 김영수 회장은 지난 9월 4일 강원도건축사회를 방문해 협회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김영수 회장은 "협회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법령, 제도, 관행과 관련하여 각종 규제가 심한 '심의제도' 등 불합리한 점에 대해 회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건의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설계 감리 분리에 대해서는 김태흠 의원이 입법 발의한 법제화에 관계기관 및 T/F팀을 중심으로 연구수행기관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하고 도내 회원들도 인식을 같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년 9월말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10월초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어 건축사 회원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도 당부했다.

또한 건축물의 유지관리 점검제도는 일몰규제법(한시적적용)으로 현행 자치단체의 조례로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치단체와 MOU를 체결함은 물론, 유지관리 보고서를 빈틈없이 작성하는 등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건축사 스스로 자정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건축사업무영역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서 도회 임원들은 △건축신고건의 허가제 전환 △관공서의 불합리한 계약관련 공정위 위반사례 공유 △민간부분 건축사업무대가 기준마련 △경력에 의한 건축사보 인정 등 다양한 질문이 있었다.

특히 민간부분 건축사업무 대가기준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정부가 기준을 정해 줄 순 없지만 금년 12월중 공공 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 개정 고시되면 민간부분 대가기준도 임기중에 반듯이 마련할 계획임을 밝히고 이외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조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김 회장은 밝혔다.

끝으로 김 회장은 "지역건축사회, 회원들의 어려움이 있겠으나 협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호소하고 회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더 매진할 것"을 약속하고 간담회를 마쳤다.

우리협회, 사무처 6실 16개팀으로 조직 개편

우리협회는 지난 9월 1일 기존 7실 20팀으로 운영되던 사무처를 6실 16팀으로 개편했다. 이번 조직 개편은 정부위탁사무 및 건축문화행사 등 협회의 업무가 증가되고, 다양화됨에 따라 사무조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단행됐다.

정부 위탁사업은 등록원(실무수련, 등록, 갱신등록), 교육원(실무교육, 한옥)이 있으며, 신설된 건축문화행사는 건축창의체험, 신인건축사대상 등이 있다.

조직개편을 살펴보면, '문화홍보실'과 '기획실'을 '기획홍보실'로 통합했으며, '회원지원실'을 '경력관리실'로 변경했다. 또한 겸직 중이던 기획실장과 교육관리실장도 분리했다. 이에 따라 기존 실장들의 보직을 변경했으며, 2명의 차장급 인사가 실장으로 승진했다. 건축연구원의 선임연구원은 연구위원으로 승진했다.

〈주요 인사이동〉

▲등록관리실장 장영인(前 운영실장) ▲경력관리실장 허훈(前 회원지원실장) ▲교육관리실장 이홍식(前 문화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최동일(前 등록관리실장 직무대리) ▲운영실장 고한상(前 운영실 회계경리팀장)

서울시건축사회, '사랑의 집고치기'봉사활동 참여

서울시건축사회(회장 조충기)는 봉사위원회(위원장: 이성우) 주관으로 2013년도 사업계획의 일환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랑의 집고치기'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해비타트 서울지회와 공동으로 봉사활동을 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봉사위원회 위원과 서울건축사봉사단 단원 및 임직원 13명이 참여하여 강동구 성내동에 위치한 독거노인의 주택에 장판 및 창문틀 교체, 벽체 집성보드 및 도배 해주었으며 해비타트에 후원금도 전달했다.

건축계소식

대한건축사협회, 국토부와 건축설계산업 육성방안 9개 TF팀 중간점검

대한건축사협회와 국토교통부, 건축단체 관계자들은 지난 9월 12일 오후 4시 건축사회관 2층 교육장에서 '건축설계산업 육성방안 9개 TF팀' 중간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 회의에는 이화순 국토부 건축정책관을 비롯한 국토부 관계자와 각 TF팀별 팀장 및 팀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8월 9일 TF팀 구성이후 갖는 첫 전체 회의로, TF팀별 진행사항에 대한 중간보고 형식으로 이뤄졌다.

그간 TF팀별로 논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1과제 '설계공모 등 발주제도 개선'은 △설계공모 의무화 대상 범위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안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개정안, 2과제 '기획업무 분리, 대가기준 개선'은 △기획업무에 대한 법률적 근거마련 및 세부업무항목 설정 △대가기준의 방향설정 및 법적 위상 제고 방안 마련, 3과제 '표준계약 체계 정립'은 △민간과 공공부문 계약체계 중 공공부문 계약체계 정립 △실효성 있는 표준계약 체계 정립 필요, 4과제 '건축사 제도 개선'은 △건축법인 도입관련 △ FTA에 따른 자격 상호인정관련 법적근거 마련 △정부 위탁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마련 등, 5과제 '건축정보시스템 구축'은 △국내외 건축서비스산업 동향조사 실시 및 산업 기대효과 분석 중 △건축서비스산업의 범위 정립 필요, 6과제 '건축설계 기술력 강화'는 △한국건축규정 수립 및 운영방안 마련 △한국건축정보 DB구축 및 운영방안 검토, 7과제 '건축문화진흥 및 신진건축사 육성'은 △신진건축사 후원 및 홍보에 관련된 정책조사 △신진건축사사무소 운용의 효율성 증대방안 검토, 8과제 '건축사 해외진출 지원'은 △해외진출 유경험회사 의견 수렴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내 해외진출 관련 내용 검토 △관련한 실현가능한 개선 방향 검토 · 정리, 9과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하위법령'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대상 연구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요건 검토 등이다.

'그린리모델링 행복릴레이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선정

최우수작 Sustainable SKIN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장애인 복지시설인 부산직업재활원을 대상으로 한 '그린리모델링 행복릴레이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 결과 최우수작에 왕정한(아라그룹 건축사사무소) 건축사의 'Sustainable SKIN'을 선정하는 등 총 9개 작품을 선정, 발표했다.

〈주요 인사이동〉

▲등록관리실장 장영인(前 운영실장) ▲경력관리실장 허훈(前 회원지원실장) ▲교육관리실장 이홍식(前 문화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최동일(前 등록관리실장 직무대리) ▲운영실장 고한상(前 운영실 회계경리팀장)

서울시건축사회, '사랑의 집고치기'봉사활동 참여

서울시건축사회(회장 조충기)는 봉사위원회(위원장: 이성우) 주관으로 2013년도 사업계획의 일환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랑의 집고치기'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해비타트 서울지회와 공동으로 봉사활동을 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봉사위원회 위원과 서울건축사봉사단 단원 및 임직원 13명이 참여하여 강동구 성내동에 위치한 독거노인의 주택에 장판 및 창문틀 교체, 벽체 집성보드 및 도배 해주었으며 해비타트에 후원금도 전달했다.

건축계소식

대한건축사협회, 국토부와 건축설계산업 육성방안 9개 TF팀 중간점검

대한건축사협회와 국토교통부, 건축단체 관계자들은 지난 9월 12일 오후 4시 건축사회관 2층 교육장에서 '건축설계산업 육성방안 9개 TF팀' 중간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 회의에는 이화순 국토부 건축정책관을 비롯한 국토부 관계자와 각 TF팀별 팀장 및 팀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8월 9일 TF팀 구성이후 갖는 첫 전체 회의로, TF팀별 진행사항에 대한 중간보고 형식으로 이뤄졌다.

그간 TF팀별로 논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1과제 '설계공모 등 발주제도 개선'은 △설계공모 의무화 대상 범위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안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개정안, 2과제 '기획업무 분리, 대가기준 개선'은 △기획업무에 대한 법률적 근거마련 및 세부업무항목 설정 △대가기준의 방향설정 및 법적 위상 제고 방안 마련, 3과제 '표준계약 체계 정립'은 △민간과 공공부문 계약체계 중 공공부문 계약체계 정립 △실효성 있는 표준계약 체계 정립 필요, 4과제 '건축사 제도 개선'은 △건축법인 도입관련 △ FTA에 따른 자격 상호인정관련 법적근거 마련 △정부 위탁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마련 등, 5과제 '건축정보시스템 구축'은 △국내외 건축서비스산업 동향조사 실시 및 산업 기대효과 분석 중 △건축서비스산업의 범위 정립 필요, 6과제 '건축설계 기술력 강화'는 △한국건축규정 수립 및 운영방안 마련 △한국건축정보 DB구축 및 운영방안 검토, 7과제 '건축문화진흥 및 신진건축사 육성'은 △신진건축사 후원 및 홍보에 관련된 정책조사 △신진건축사사무소 운용의 효율성 증대방안 검토, 8과제 '건축사 해외진출 지원'은 △해외진출 유경험회사 의견 수렴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내 해외진출 관련 내용 검토 △관련한 실현가능한 개선 방향 검토 · 정리, 9과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하위법령'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대상 연구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요건 검토 등이다.

'그린리모델링 행복릴레이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선정

최우수작 Sustainable SKIN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장애인 복지시설인 부산직업재활원을 대상으로 한 '그린리모델링 행복릴레이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 결과 최우수작에 왕정한(아라그룹 건축사사무소) 건축사의 'Sustainable SKIN'을 선정하는 등 총 9개 작품을 선정, 발표했다.

수상작은 건축관련 전문가, 학생, 일반인 등이 제출한 작품을 대상으로 건축, 건물에너지, 복지시설 분야의 전문가 등 총 8인으로 구성된 선정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었으며, 선정위원회 위원장(이규인 아주대 교수)은 공모전의 취지에 맞게 그린리모델링 적합성, 실현가능성, 장애인 편의성, 시장 확장성 등 다양한 부문을 고려하여 수상작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우수작에는 구재형 건축사(아이삼 건축사사무소)의 'Go With WEETH'를, 가작에는 이선호(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씨와 박세현(공주대 건축공학과 학생)를 각각 선정했다.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이번 공모전은 노후한 사회복지시설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고 시설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사회취약계층 이용자에게 행복공간을 제공하고자 시작되었으며,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함께 전국 450여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해 사업참여 의향 조사 및 심사절차 등을 실시하여 '부산직업재활원'을 첫 번째 행복릴레이 대상으로 선정하고 국민들에게 아이디어를 공모했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물 유지 · 관리 가이드 시리즈」 발간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물 유지 · 관리 점검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건축물 유지 · 관리 가이드 시리즈」를 발간해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한다.

이 책은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매뉴얼 및 사례집, 건축물 유지관리 관련 법령집 2권으로 구성돼 있으며, 발송료 포함 회원 15,000원, 비회원 20,000원에 판매한다.

국토교통부는 8월 8일부터 건축물 유지 · 관리점검 매뉴얼을 시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정책연구실 건축제도팀
02-3415-6833~4

〈바로잡습니다〉

지난 533호(2013년 9월호)의 '건축사지 지역건축특집 시리즈①'내용 중 30페이지 우측칼럼 맨 위 사진설명을 전남대학교 대강당_임영배에서 '어비슨기념관_류연창'으로 바로잡습니다.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 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77-9494 · 강북구건축사회/903-4666 · 강서구건축사회/2661-6999 · 관악구건축사회/888-2490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864-5828 · 금천구건축사회/808-0400 · 노원구건축사회/937-1100 · 도봉구건축사회/3494-3221 · 동대문구건축사회/9927-0503 · 동작구건축사회/814-8843 · 마포구건축사회/338-5556 · 서대문구건축사회/324-3810 · 서초구건축사회/3474-6100 · 성동구건축사회/2292-5855 · 성북구건축사회/927-3236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2644-6688 · 영등포구건축사회/2634-3102 · 용산구건축사회/719-5685 · 은평구건축사회/357-6833 · 종로구건축사회/725-3914 · 중구건축사회/2266-4904 · 중랑구건축사회/496-3900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66-5651**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고양지역건축사회/(031)963-8902 · 광명건축사회(02)2684-5845 · 동부지역건축사회/(031)563-2337 · 부천지역건축사회/(032)327-9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1)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246-8046~7 · 시흥지역건축사회/(031)318-6713 · 안산건축사회/(031)48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1)449-2698 · 북부지역건축사회/(031)876-0458 · 이천지역건축사회/(031)635-0545 · 파주지역건축사회/(031)945-1402 · 평택지역건축사회/(031)657-6149 · 오산 · 화성지역건축사회/(031)234-8872 · 용인지역건축사회/(031)336-0140 · 광주지역건축사회/(031)767-2204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강릉지역건축사회(033)653-9680 · 삼척지역건축사회/(033)533-6651 · 속초지역건축사회/(033)637-6621 · 영평정태지역건축사회/(033)374-6478 · 원주지역건축사회/(033)745-2906 · 춘천지역건축사회/(033)251-2443

■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84~6**
청주지역건축사회/(043)223-3084 · 남부지역건축사회/(043)543-9911 · 제천지역건축사회/(043)647-6633 · 충주지역건축사회/(043)842-3400 · 음성지역건축사회/(043)872-2084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2-4088**
천안지역건축사회/(041)554-0070 · 공주지역건축사회/(041)858-5110 · 보령지역건축사회/(041)932-8890 · 아산지역건축사회/(041)549-5001 · 서산지역건축사회/(041)662-3388 · 논산지역건축사회/(041)662-3388 · 금산지역건축사회/(041)751-1333 · 연기지역건축사회/(041)866-2276 · 부여지역건축사회/(041)835-2217 · 서천지역건축사회/(041)952-2356 · 홍성지역건축사회/(041)632-2755 · 예산지역건축사회/(041)335-1333 · 태안지역건축사회/(041)674-3733 · 당진지역건축사회/(041)356-0017 · 계룡지역회장/(042)841-5725 · 청양지역회장/(041)942-5922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군산지역건축사회/(063)452-6171 · 남원지역건축사회/(063)631-2223 · 익산지역건축사회(063)852-1515

■ **전라남도건축사회/(061)285-7563~4**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1)726-6877 · 광양지역건축사회/(061)726-6878 · 여수지역건축사회/(061)686-7023 · 나주지역건축사회/(061)285-7563~4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경산지역건축사회/(053)801-0386 · 경주지역건축사회/(054)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4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436-2651 · 문경지역건축사회/(054)552-1412 · 상주지역건축사회/(054)536-8855 · 안동지역건축사회/(054)853-4455 · 영주지역건축사회/(054)631-4566 · 영천지역건축사회/(054)337-0085 · 칠곡지역건축사회/(054)973-12195 · 포항지역건축사회/(054)278-6129 · 군위,의성지역건축사회/(054)383-8608 · 청도지역건축사회/(054)373-2332 · 고령,성주지역건축사회/(054)931-35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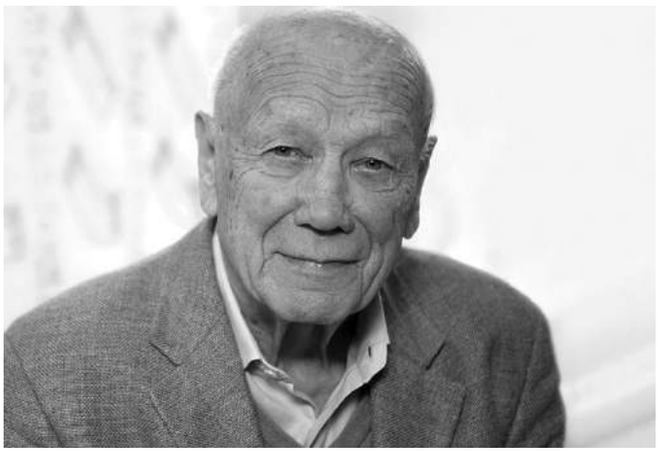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거제지역건축사회(055)636-68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5)943-6090 · 고성지역건축사회(055)673-0487 · 김해시건축사회/(055)334-6644 · 마산지역건축사회/(055)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5)355-1323 · 사천시건축사회/(055)832-1301 · 양산시건축사회/(055)384-3050 · 진주지역건축사회/(055)762-6434 · 진해시건축사회/(055)547-4530 · 창녕시건축사회/(055)532-9913 · 창원시건축사회/(055)282-436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642-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5)883-4611 · 함안시건축사회/(055)585-85831 · 합천지역건축사회/(055)-933-2933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63-1010

김은미_Kim, Eunmee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조교수

헤닝 라센

Henning Larsen, 1925-2013



Henning Larsen / Agnete Schlichtkrull

Harpa, Reykjavik, Iceland, 2011 / Nic Lehoux

"빛의 장인, 세상을 떠나다"는 지난 6월 6월 22일 국립 덴마크 신문 Politikken의 머리기사 제목이었다.

건축사 Henning Larsen은 아주 평온하게 수면 중 세상을 떠났다. 향년 87세. 스칸디나비아에서는 그를 종종 "노르딕 현대 건축계의 등대"라고 불렀다. 그는 코펜하겐에 정착하기 전 국제적으로 1964년에는 Yale대학에서 1965년에는 Princeton에서 가르치기도 하였다.

그가 몇 년 동안 Royal Art Academy Architecture School in Copenhagen에서 가르친 후 그곳의 학장이 되었을 때 학생들 중 일부가 이념에 빗대어 학교를 일컬어 종종 "마르크스주의 기관" 또는 "빨간 학부"라 부르기도 했으나 그것은 그의 성향과는 아주 거리가 멀었다.

그는 정치적인 관계에서는 어떠한 역할도 거부하고 디자인 자체가 변화의 주요 엔진으로 작용 하게끔하여 학교가 조심스럽고 올바른 변화를 가지게끔 이끌어낸 아주 따뜻한 신사였다. 그는 디자인의 힘을 믿는 예술가였지만 그 반면 그는 또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 그 장소의 역사와 context를 아주 열심히 공부, 연구하는 학자와 같은 면도 있었다. 또한 덴마크의 건축이 한동안 너무나 지루한 휴면기에 빠져 있을 당시 그는 학생들에게 스칸디나비아 바깥인 더 크고 재미있는 곳에 가서 폭 넓고 빠르게 경험을 쌓는 것을 그의 학교 학생들에게 허가해 주었다. 이로써 그의 학교는 아주 빠른 속도로 코펜하겐에서 가장 진학하여 공부하기를 선망하는 학교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Henning Larsen 그 자신도 the Royal Art Academy School of Architecture in Copenhagen에 1952년도에 졸업한 동문이다. 그가 AA런던과 보스턴의 MIT에서 공부하던 시절 그는 이미 외향적이며, 실험적이며, 지적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국제적인 교육 배경과 광범위 한 여행의 특별한 경험을 가졌음에도 어렵게 얻은 "edu-tainment" 건축 교육 형태를 그의 작업에 그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그는 아주 보통의 겸허한 배경을 가진 학생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Ringkøbing 지역 근처 Opsund의 학교 선생님이었고 이것은 그의 작품의 근간이 된다.

졸업 후 Henning Larsen은 짧게 Arne Jacobsen사무소에서 실무를 쌓은 후 1956년도에 Gehrdt Bornebusch and Jørgen Selchau와 함께 작은 사무실을 개소한 후 3년 후 독립하여 Henning Larsen's Tegnestue이라는 그만의 사무소를 그의 학생 한명을 고용하여 개소한다. 지금은 Henning Larsen Architects라 명명된 그의 사무소는 1980년도에 스칸디나비아에서는 가장 큰 설계 회사 중 하나로 코펜하겐, 오슬로, 뮌헨, 이스탄불, 리야드에 등지에 분소를 가진 국제 규모로 성장하였다. 오늘날 그의 회사 홈페이지는 170개가 넘는 설계 하였거나 지어진 프로젝트들을 소개하고 있다. 물론, 이중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로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 Riyadh (Saudi Arabia, 1984), The Danish Embassy in Riyadh(Saudi Arabia, 1987), The Malmø Stadsbibliotek(Sweden, 1997), and in Denmark the Handelshøjskolen(1989), the Enghøj Church(1994), the Ny

Carlsberg Glyptotek(1996), and the Copenhagen Opera(2004)을 꼽을 수 있다.

바로 지난해 Henning Larsen은 예술분야의 노벨상이라고 여겨지는 Peaemium Imperiale Prize를 수여 했다. 그는 그러한 영광스런 상을 수여한 최초의 덴마크인이 되었다. 올해 Henning Larsen이 atterii ø Architects and Studio Olafur Eliasson와 협업하여 설계한 Reykjavik concert hall Harpa가 The Mies van der Rohe Award 2013을 수상하였다.

그 빌딩 옆을 배를 타고 지나가면 노르딕의 한여름의 빛 즉, 낮게 깔리는 태양빛의 일렁임, 적극적으로 도시효과를 유도하여 건물 외관이 수면위에 반영되도록 완벽히 계획되어져 장관을 이룬다. 이 관경은 왜 Larsen 이 종종 빛의 마술사라고 불리게 되었는지를 알게 해 준다. Henrik Sten M ø ller이 Larsen의 75세 생일에 취재를 했을 때 Larsen 자신도 이 호칭에 대해 수긍하는 분위기였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언어에서 가진 미묘한 다름을 그들 생활 속 빛의 중요함으로 표현 하지 못한다." 라고 그는 말했다. "나는 항상 무언가 내 빌딩에서 빛의 축제를 원했다." 라고 Larsen은 밝혔다.

1967년에 Larsen 은 Aarhus에 작지만 강력한 효과를 내는 빛의 틈을 가진 단순하게 만들어진 빛나는 작은 채플을 설계하였다. Larsen의 프로젝트는 장소의 역사성, 물리성, 문화적 내용들을 잘 고려하여 입지하고 있고 빛과 그림자의 절묘한 배합을 통한 조각적으로 아름다운 공간을 가지고 있다. 그는 결코 개인적인 이고나 브랜드 효과에 현혹되지 않았으며, 대신 각각의 프로젝트의 기본적인 개념과 질을 추구하였다.

Henning Larsen은 언제나 건축계를 위한 후원에 적극적이었다. 그가 젊은 시절 새로운 교수였을 때, 건축 잡지를 발간한 코펜하겐의 첫 번째 갤러리인 SKALA를 시작하였다. 그는 SKALA를 오랜 시간 동안 사비로 운영하였고 수많은 세계적인 건축사들을 초천하여 전시하고, 강연을 주선하며, 그 들과 나눈 광범위한 대담들을 출판하였다.

SKALA는 덴마크 건축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었다. 2001년도에 Larsen 은 Henning Larsen Foundation을 그의 사비로 발족 시킨다. 이 재단은 덴마크 건축을 진작시키고 널리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매년 그의 생일날 한 개나 두 개의 상금이 수여 된다.

2008년 Henning Larsen 설계 회사는 UN과 국제적 기업 간의 파트너십인 United Nations business network, Global Compact에 가입한다. 이것은 기업 사회 환원과 친환경 건축 실습을 목적한다.

덴마크 건축은 항상 빛으로 가득 차 아주 놀라운 공간이며, 따뜻한 자연 재료를 사용하고, 스칸디나비아 건축과 비슷해 보이지만 덴마크 인을 위한 아주 남다른 건축을 창조하는 건축으로 알려져 있다.

Henning Larsen이 이것을 국제적으로 완성하였다.

Harpa, Reykjavik, Iceland, 2011 / Nic Lehoux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사 : 사무소수, 회 : 회원수)

2013년 8월말

구분 / 건축사회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합계	
	1인		2인		3인이상		소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소계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합계	6,080	6,080	86	172	7	21	6,173	6,273	1,752	1,752	233	466	62	186	26	104	14	96	2,087	2,604	8,260	8,877
서울	951	951	21	42	0	0	972	993	887	887	123	246	42	126	14	56	9	55	1,075	1,370	2,047	2,363
부산	526	526	10	20	2	6	538	552	118	118	26	52	2	6	1	4	2	14	149	194	687	746
대구	520	520	19	38	4	12	543	570	71	71	14	28	4	12	2	8	0	0	91	119	634	689
인천	288	288	3	6	0	0	291	294	64	64	7	14	1	3	0	0	0	0	72	81	363	375
광주	219	219	1	2	0	0	220	221	42	42	6	12	3	9	2	8	0	0	53	71	273	292
대전	268	268	5	10	0	0	273	278	32	32	7	14	4	12	1	4	1	12	45	74	318	352
울산	196	196	4	8	0	0	200	204	21	21	3	6	0	0	0	0	0	0	24	27	224	231
경기	854	854	2	4	0	0	856	858	249	249	17	34	3	9	2	8	0	0	271	300	1,127	1,158
강원	202	202	2	4	0	0	204	206	23	23	2	4	0	0	1	4	0	0	26	31	230	237
충북	227	227	2	4	0	0	229	231	41	41	3	6	2	6	2	8	1	9	49	70	278	301
충남	299	299	1	2	0	0	300	301	57	57	7	14	0	0	1	4	0	0	65	75	365	376
전북	267	267	5	10	0	0	272	277	28	28	5	10	1	3	0	0	0	0	34	41	306	318
전남	214	214	0	0	0	0	214	214	26	26	2	4	0	0	0	0	1	6	29	36	243	250
경북	417	417	4	8	1	3	422	428	39	39	5	10	0	0	0	0	0	0	44	49	466	477
경남	493	493	6	12	0	0	499	505	38	38	4	8	0	0	0	0	0	0	42	46	541	551
제주	139	139	1	2	0	0	140	141	16	16	2	4	0	0	0	0	0	0	18	20	158	161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구분 / 건축사회	회원	
	건축사	비율
합계	8,877	100%
서울	2,363	27%
부산	746	8.4%
대구	689	7.7%
인천	375	4.2%
광주	292	3.3%
대전	352	4.0%
울산	231	2.6%
경기	1,158	13%
강원	237	2.7%
충북	301	3.4%
충남	376	4.2%
전북	318	3.6%
전남	250	2.9%
경북	477	5.3%
경남	551	6.2%
제주	161	1.8%

건축사등록원 통계현황

2013년 9월중순

구분	자격등록	실무수련
계	11,780	2,018
서울	3,800	1,397
부산	751	69
대구	683	38
인천	373	5
광주	301	40
대전	347	35
울산	233	23
경기	1,419	75
강원	257	12
충북	319	58
충남	376	48
전북	330	21
전남	278	49
경북	486	21
경남	583	30
제주	166	24
기타	1,078	73
비고	회원 : 8,682 / 비회원 : 3,098	대학 : 1,825 / 대학원 : 193

대한건축사협회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구분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합계	비고
회원수	6,273	2,604	8,877	
비율	70.67%	29.33%	100%	
사무소수	6,173	2,087	8,260	
비율	74.73%	25.27%	100%	